

박사학위 청구논문 중간발표용 원고(2024년 9월 13일)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디지털 큐레이션 연구 - 『범해선사유고』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을 중심으로 -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전공 박사과정 서소리

< 목 차 >

I.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
 - 1) 방법1 : 인문지식의 디지털 큐레이션 수행과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 2) 방법2 : 조선시대 승려문집 『범해선사유고』를 대상으로 구축 사례 제시

II. 지식의 아카이브 구현 전략 수립

1. 불교기록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2. 지식의 정보화 기반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례 검토
3. 불교기록문화유산의 지식의 아카이브 구현을 위한 과제
 - 1) 불교기록문화유산에 관한 지식의 기술 체계 설계
 - 2) 불교기록문화유산의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편찬
 - 3) 불교기록문화유산 시맨틱 데이터의 스토리텔링

III. 대상 세계에 관한 지식의 탐색과 자원의 수집

1. 『범해선사유고』의 서지 정보 조사
 - 1) 문집의 저자 범해 각안
 - 2) 문집의 간행
 - 3) 문집의 체제와 구성
2. 『범해선사유고』 수록 시문의 내용 조사
 - 1) 승려의 행적
 - 2) 사찰의 변천과 불사
 - 3) 유불의 교유
 - 4) 승려의 유람

IV. 지식의 아카이브 구현을 위한 데이터 모델 설계

1. 시맨틱 모델링

- 1) 기록물 정보
- 2) 승려 정보
- 3) 인물 정보
- 4) 단체 정보
- 5) 사찰 정보
- 6) 장소 정보
- 7) 사건 정보
- 8) 사물 정보
- 9) 개념 정보

2. 불교문화 지식정보의 시맨틱 데이터 편찬 모델 설계

- 1) 온톨로지 개요
- 2) 클래스(Class) 설계
- 3) 클래스의 속성(Attribute) 설계
- 4) 관계어(Relation) 설계

3. 시맨틱 데이터의 스토리텔링 구현 모델

V. 『범해선사유고』의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1.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환경

2. Factual Data 편찬 내용

(네트워크의 유형/패턴별로 보일 수 있도록 목차 구성 예정)

3. Factual Data를 활용한 Story Data 편찬 내용

- 1) 대흥사 승탑원의 승려들
- 2) 범해 각안이 수락산 덕사에 유숙한 인연
- 3) 범해 각안의 제주 유람
- 4) 정약용 가문과 대흥사 승려들의 대를 이어 온 교유
- 5) 범해선사유고를 통해 읽는 불가의 옛 이야기

VI.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불교기록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지식의 아카이브의 필요성

- 한국 불교기록문화유산의 가치: 한국의 불교기록문화유산은 한국 불교가 고유한 전통을 형성하고 발전시켜 온 과정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산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국 불교의 흐름, 사상, 의례, 예술적 성과 등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기존 디지털 아카이브의 한계: 그동안 진행되어 온 불교기록문화유산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작업은 대부분 단순한 디지털화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물리적 자료를 스캔하거나 텍스트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등의 작업은 이루어졌으나, 그 안에 담긴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맥락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채 단순 보존의 기능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자료가 담고 있는 의미를 깊이 있게 접근하거나 공유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연구자나 대중이 활용하기에도 제한적이다.
- 지식의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 기존의 디지털화 작업을 넘어, 불교기록문화유산에 담긴 역사적, 종교적, 예술적 맥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다양한 자료와 연관된 의미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아카이브가 필요하다. 이러한 아카이브는 불교기록문화유산에 관한 지식이 디지털 세계에서 소통하고 공유될 수 있는 ‘지식의 아카이브’로서 기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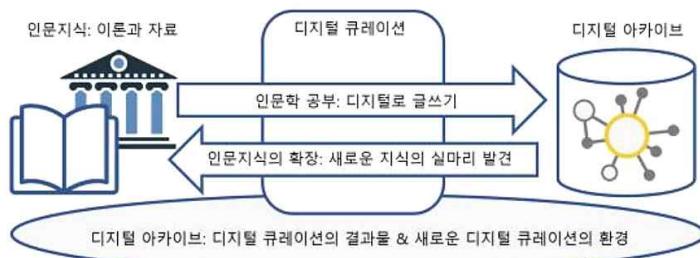
디지털 아카이브의 핵심: 디지털 큐레이션

- 디지털 큐레이션의 중요성: 방대한 아카이빙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가치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디지털 큐레이션이 중요한 핵심으로 떠 오르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큐레이션 도입을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인문학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불교기록문화유산에서의 디지털 큐레이션 논의의 한계: 그러나 불교기록문화유산의 경우, 디지털 큐레이션에 대한 논의가 아직 개념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구체적인 모델이나 사례를 제시하는 단계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불교기록문화유산에 관한 디지털 큐레이션 연구의 필요성: 불교기록문화유산을 디지털 큐레이션의 방법으로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의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불교 문헌에 대한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불교기록문화유산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방법 1: 인문지식의 디지털 큐레이션 수행과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 디지털 큐레이션: “디지털 환경에서 인문학적 지식을 탐구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새로운 체계로 엮어서 자신의 이야기로 표현하는 행위”로 요약할 수 있으며, 디지털 아카이브는 이러한 디지털 큐레이션이 진행되는 연구 환경임과 동시에 큐레이션의 결과물로서 만들어지게 되는 ‘인문지식에 관한 데이터’가 공유되는 환경(김현(2024))
- 시맨틱 데이터: 디지털 큐레이션을 통해 만들어지는 데이터는 대상 세계에 관한 의미론적 맥락(semantic context)을 표현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맨틱 데이터(semantic data)’의 형태로 기술되는 특징. 시맨틱 데이터는 관계성을 데이터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문 지식의 맥락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데 활용. 데이터 간의 상호연계를 통해 대상 세계에 관한 네트워크를 구현. 인문 지식의 다층적인 맥락을 네트워크 형태의 데이터로 체계화하는 데 활용
- 시맨틱데이터 아카이브: 디지털 큐레이션의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시맨틱 데이터가 축적되는 저장소. 또는 큐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공간. 이러한 측면에서, 디지털 큐레이션에 기반하여 만들어지는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는 지식의 아카이브의 구상 모델로 볼 수 있음.



김현, ‘디지털 큐레이션: 디지털 인문학의 실천 방법’,

2024년 한국학대학원 「인문정보학입문」 강의 자료,

[https://dh.aks.ac.kr/~tutor/Documents/PDF/2024/김현-2024-디지털큐레이션\(01\).pdf](https://dh.aks.ac.kr/~tutor/Documents/PDF/2024/김현-2024-디지털큐레이션(01).pdf)

2) 방법 2: 조선시대 승려문집 『범해선사유고』를 대상으로 구축 사례 제시

승려문집:

- 승려가 저술한 시문 등의 단편 저술을 모아 편집한 책.
- 한국인이 찬술한 불교 문헌을 망라한 『한국불교전서』에 따르면, 전체 수록 문헌 324종 가운데 99종이 승려문집으로 분류.
- 특정 주제에 관한 저술이 아닌 다양한 유형의 독립적인 개별 저술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대 불교 사회의 다채로운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적 가치
- 승려문집을 총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승려문집을 종횡하는 유의미한 지식 요소와 맥락을 중심으로 시문을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여러 측면에서 개별 시문에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발상의 연구 방법이 필요함

『범해선사유고』:

- 다양한 유형의 저술 수록: 전체 366건(시:292건, 산문:74건).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선시대 문집을 남긴 승려 50% 이상이 100~200여 편의 시를 남겼고, 200여 편 이상의 시를 남긴 승려는 18명으로 확인되는데, 범해는 292편으로 비교적 많은 작품을 남긴 승려
- 범해 각안이라는 인물의 불교사적 위치: 범해는 조선 후기 불교사에서 최대 계파를 이루며 발전해 나갔던 청허계 편양파의 법맥을 이어받은 승려. 범해가 주석했던 대홍사는 청허 휴정의 의발(衣鉢)이 전해지던 곳으로, 청허계의 후손들이 중심이 되어 사세를 확장해 나갔던 곳. 『범해선사유고』에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록이 다수 수록되어 있음
- 유관 자료의 풍부함: 범해는 『동사열전(東師列傳)』을 통해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의 승려의 전기를 저술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는 범해가 속해 있던 '대홍사 계통의 편양파' 승려에 관한 기록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이러한 특징은 고승전으로서의 『동사열전』이 지니는 한계로 지적되어왔지만, 오히려 범해와 관련된 주변 인물에 관한 정보가 풍부하다는 점에서 『범해선사유고』를 보조하여 범해의 주변 인물과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 또한 범해가 주석했던 대홍사에 대해서 사찰 관련 문헌 자료들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있음. 여기에는 축원문, 사찰계안, 재정관련 문서, 소임관련 문서, 승보안, 사적기 등 사찰과 관련된 여러 종류의 문헌이 포함됨. 특히 이러한 문헌 자료들은 현재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를 통해 제공 중. 따라서 이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불교기록문화유산의 큐레이션 사례를 보여줄 수 있음.

II. 지식의 아카이브 구현 전략 수립

1. 불교기록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이 제공하는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Archives of Buddhist Culture, 이하 ABC)’ 서비스는 한국불교의 기록문화를 대표하는 고려대장경을 비롯하여, 한국의 불교 관련 저술을 집대성한 『한국불교전서』, 국내외 사찰, 기관, 개인이 소장한 불교 문헌자료 등 불교 관련 문헌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대만의 CBETA¹⁾, 일본의 SAT²⁾와 함께 동아시아 불교학 연구에 필수적인 디지털 아카이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요 대상으로 다루는 『범해선사유고』 또한 이 사이트에서 원자료 이미지, 원문과 번역문의 텍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국내의 대표적인 불교기록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라 할 수 있는 ABC의 서비스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본 연구의 구체적 대상인 『범해선사유고』를 중심으로 현재 서비스가 지닌 문제점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현재 ABC는 통합대장경, 한국불교전서, 신집성문현, 고려교장, 변상도, 근대불교잡지, 근대불교문헌, 근대불교사진, 조선사찰본서목 등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카테고리 내에서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³⁾

-
- 1) CBETA(中華電子佛典協會, Chinese Buddhist Electronic Texts Association): 중국 불교문헌의 전자화를 통해 경전을 디지털로 제공한다.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脩大藏經)을 디지털화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그 밖에 중국의 불교 문헌을 디지털화하여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겁색과 열람이 가능하도록 웹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경전 탐색 도구, 인명 및 지명의 전거 데이터베이스 등을 연계하여 제공한다.
웹 주소: <https://www.cbeta.org/>
 - 2) SAT(Sūtra Text Archive): 대정신수대장경을 기본으로 하여, 불교 경전을 디지털화하여 제공한다. 일본의 동경대학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일본 불교 연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웹 주소: <https://21d zk.l.u-tokyo.ac.jp/SAT/>
 - 3) ABC를 통해 제공되는 불교기록문화유산의 DB구축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박인석·서소리, 「한국불교 기록문화유산의 디지털 활용방안 연구」, 계명대학교 창립 125주년 기념 학술대회 『디지털 시대의 한국학: 연구자원, 도구, 방법론』, 계명대학교 인문학연구단 한국학연구원, 2024, 343-344쪽.

【표 II-1】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ABC) 서비스 내용

카테고리	서비스 내용
통합대장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대장경의 원자료 이미지와 원문 텍스트, 고려대장경을 번역한 한글대장경을 통합하여 제공 · 제공 정보: 고려대장경의 원자료 이미지(인경본), 원문 텍스트, 번역문 텍스트, 서지, 해제 · 접근 방식: 경명순, 경번호순, 분류체계별, 주제별로 문헌 분류하여 목록 제공, 상세 내용 열람
한국불교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불교전서』(1-15책)를 디지털화하여 제공 · 제공 정보: 원자료(한국불교전서) 이미지, 원문 텍스트, 번역문 텍스트, 서지, 해제 · 접근 방식: 서명순, 저자순, 책차순별로 문헌 분류하여 목록 제공, 상세 내용 열람
신집성문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의 사찰, 기관, 개인이 소장한 불교문헌을 발굴, 수집하여 제공 · 제공 정보: 문헌의 원자료 이미지, 원문 텍스트, 번역문 텍스트, 서지 · 접근 방식: 서명순, 특성별, 판종별, 주제별, 발행년, 발행자 소장자별로 문헌 분류하여 목록 제공, 상세 내용 열람
고려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편제종교장총록』 수록 문헌 1,010부 4,880권에 대한 서지, 현존본 정보, 대장경 연계정보 등을 제공 · 접근 방식: 권별, 국가, 저자, 찬술방식, 장정, 판종, 발행년, 발행자, 소재처별 목록 제공. 상세 서지 정보 확인
변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교 문헌에 수록된 변상도를 수집하여 변상도의 이미지 제공 · 접근 방식: 서명순, 내용분류, 발행년, 발행자별 이미지 제공
근대불교잡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기 불교잡지를 디지털화하여 제공 · 제공 정보: 잡지의 원자료 이미지, 원문 텍스트, 서지, 해제 · 접근 방식: 서명순, 발행년별 문헌 분류하여 목록 제공, 상세 내용 열람
근대불교문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용성대종사총서』를 디지털화하여 제공 · 제공 정보: 총서의 원자료 이미지, 원문 텍스트, 번역문 텍스트, 서지 · 접근 방식: 목차순, 서명순별 문헌 분류하여 목록 제공, 상세 내용 열람
근대불교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불교문화와 관련된 사진을 수집하여 사진의 이미지, 메타데이터 등을 제공 · 접근 방식: 표제어, 분야, 연대, 지역별로 분류하여 이미지 제공
조선사찰본서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시대 사찰에서 간행한 불교문헌의 서지, 문헌과 관계된 신집성문화자료 연계정보, 조선시대 불서인명 DB 연계정보 제공 · 서명, 시대, 지역, 발행자, 문헌분류, 왕대, 산명별 목록 제공. 상세 서지 정보 확인

‘통합대장경’은 고려대장경과 이를 한글로 번역한 한글대장경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고려대장연구소의 ‘고려대장경 지식베이스 구축 사업’(2006-2008년)

의 결과물인 재조대장경 인경본의 원자료 이미지와 원문 텍스트, 그리고 동국대학교 동국역경원과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의 ‘한글대장경 개역 전산화 사업’(2001-2011년)을 통해 구축한 한글 번역문을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경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자료 이미지, 원문과 번역문의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각의 경전에 관한 서지정보와 해제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표 II -2】 ABC의 통합대장경 서지정보 예시

대장경 수록 문헌 『경율이상(經律異相)』의 서지정보		
분류정보	주제분류	통불교(通佛教)-사전(辭典)-불교(佛教) 백과(百科)
	분류체계	正藏-初雕藏經部-聖賢集-中國人撰述
제목정보	대표서명	경율이상(經律異相)
	경명	경율이상(經律異相) 50권
	병음	JINGLUYIXIANG
형태정보	권사항	50
확장정보	고려_위치	30-0810
	고려_주석	KBC는 僧旻을 공동저자로, 通檢은 抄者로 표기.
	신수_NR	T.2121
	신수_위치	53-0001
	적사_VOL	28
	적사_PAGE	661
	중화_NR	1141
	중화_VOL	052
	중화_PAGE	0722

‘한국불교전서’는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에서 편찬한 『한국불교전서(韓國佛教全書)』(1-15책)를 디지털화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한국불교전서』는 삼국시대부터 대한제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에 의해 찬술된 불교 관련 저술을 집대성한 총서로, 각 문헌을 탈초, 판독하여 원문을 수록하고, 다양한 판본 간의 이동(異同)을 교감하여 주석과 함께 전문을 수록하였다. 1979년 제1책의 발행을 시작으로 2022년 까지 전체 15책이 발행되었으며, 총 355종의 문헌이 수록되었다. 2010년부터는 『한국불교전서』를 역주한 『한글본 한국불교전서』이 간행되기 시작하여, 대중적으로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ABC에는 『한국불교전서』 14책까지 수록된 324종의 문헌의 원자료 이미지와 원문 텍스트가 모두 디지털화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문헌은 『한글본 한국불교전서』의 번역문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개별 문헌에 관한 서지정보와 해제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 대상으로 삼은 『범해선사유고』도 『한국불교전서』의 수록 문헌으로서, ‘한국불교전서’ 카테고리에서 원자료 이미지, 원문 텍스트, 그리고 번역문 텍스트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⁴⁾

【표 II -3】 ABC의 한국불교전서 서지정보 예시

『범해선사문집(梵海禪師文集)』의 서지정보		
제목정보	대표서명	범해선사문집(梵海禪師文集)
저자정보	저자	각안(覺岸)
	역자	김재희
발행정보	간행시기	조선
형태정보	권사항	v10
확장정보	시작책_시작번호	v10_p1075c
	시작책_끝번호	v10_p1098c
	시작책_권수	2
	시작책_단수	70
	끝책_시작번호	v10_p1075c
	끝책_끝번호	v10_p1098c
	끝책_권수	2
	끝책_단수	70

‘신집성문헌’은 국내외의 사찰, 기관, 개인이 소장한 불교 문헌자료를 발굴하고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15,949종의 문헌을 집성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신집성문헌’에는 대장경과 『한국불교전서』의 저본이 되는 문헌은 물론, 사지(寺誌), 사기(私記), 경전의 언해(諺解), 사찰문서, 다라니, 현판 사진 등 『한국불교전서』가 다루지 못했던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제공한다. 개별 문헌에 관한 서지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문헌은 원자료 이미지, 원문과 번역문의 텍스트, 해제를 함께 제공한다.

【표 II -4】 ABC의 신집성문헌 서지정보 예시

『다비계안(茶毘契案)』의 서지정보		
제목정보	책명	다비계안(茶毘契案)
	권수제	重修茶毘契案序
	표제	茶毘契案
분류정보	자료구분	고서
	주제분류	한국찬술-사지
저자정보	저역자	草衣 義恂(朝鮮)

4) 『범해선사유고』는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될 때 상권의 시집과 하권의 문집을 구분하여 각각 범해선사문집과 범해선사시집으로 구분하여 수록되었다. ABC에서도 이러한 『한국불교전서』의 체재에 따라 문집과 시집을 별도의 문헌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한글본 한국전서』 또한 이를 구분하여 『한글본 한국전서 조선56 - 범해선사시집』, 『한글본 한국전서 조선57 - 범해선사문집』으로 구분하여 간행하였다.

판사항	판종	筆寫本
발행정보	발행지	[不明]
	발행자	[不明]
	발행년	1850年(哲宗 1)
형태정보	장정	線裝
	장수	19張
	광곽형태	四周單邊
	광곽종류	半郭
	광곽크기	30.3×27.1
	계선	有界
	행자수	6行字數不定
	어미	無魚尾
	책크기	36.0×28.5
기록정보	서문	重修茶毘契案序...道光庚戌(1850)小雪日草衣意恂識
주기정보	지질	楮紙
	주기상세	1. 앞표지이면: '山中都茶毘契案' 墨書記 2. 앞속지: 다비계에 들어가는 물종 둑서 기재
소장정보	소장자	용흥사

‘근대불교잡지’는 근대기에 발행된 불교잡지를 디지털화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조선불교(朝鮮佛教)』, 『불교(佛教)』, 『불교시보(佛教時報)』, 『유심(惟心)』, 『조음(潮音)』, 『금강저(金剛杵)』 등 총 31종의 잡지를 제공하고 있다. 잡지는 세부 권호별로 구분하여 원자료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잡지에 관한 간략한 서지정보를 제공하며, 이 중 일부는 잡지의 원문 텍스트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표 II -5】 ABC의 근대불교잡지 서지정보 예시

『불교(佛教)』의 서지정보		
제목정보	대표서명	불교(佛教)
발행정보	발행기관	불교사(佛教社)
	발행자	권상로

‘근대불교문헌’은 대한불교대각회가 간행한 『백용성대종사총서』를 디지털화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총서에 수록된 문헌을 구분하여, 개별 문헌별로 문헌의 원자료 이미지, 원문과 번역문의 텍스트, 서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II -6】 ABC의 근대불교문헌 서지정보 예시

『용성선사 어록(龍城禪師語錄)』의 서지정보		
제목정보	총서명	백용성대종사총서(白龍城大宗師叢書)
	대표서명	용성선사 어록(龍城禪師語錄)

저자정보	저역자	불교사(佛教社)
판사항	판종	新鉛活字本
발행정보	발행자	金山泰冷
	발행년	1941
	간행년	1941.09.20
형태정보	권수	2
소장정보	소재처	죽림정사
확장정보	원전_책번호	0001
	원전_권번호	2
연계정보	신집성문헌	ABC_NC_03993_0001 ABC_NC_03968_0001

이상의 카테고리들은 문헌의 원자료 이미지, 원문과 번역문의 텍스트 등을 아카이빙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이들 서비스는 【표 II-7】의 마크업 규칙에 따라 XML 문서로 제작되며, 이를 웹페이지로 변환하여 문헌의 본문 텍스트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마크업 규칙은 주로 원자료의 형식적인 정보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되었으며, 본문을 기사, 시형식, 각주 등으로 구분하거나, 『한국불교전서』와 『한글본 한국불교전서』의 간행 시 텍스트의 교감자나 번역자가 추가한 주석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표 II-7】 ABC의 XML 전자문서 마크업⁵⁾

	이름	상세 태깅	설명
부 가 정 보	서명	<서명 id="H0156" org="불교학술 원ABC사업"></서명>	경 전체를 감싸고 있는 요소로서, 서명 번호와 기관명 사업명을 명시
	대표 경명	<제목></제목>	대표 경명으로, 한글(한문)의 형식으로 작성
	편저자 정보	<편저자></편저자>	대표 편저자로, 한글(한문)의 형식으로 작성
	원문	<원문></원문>	원문의 경계 역할
형 태 정 보	라인	<line id="권_페이지_단" indent=" 들여쓰기 칸수"><line id="***_** *_c" indent="0"/>	권, 페이지, 단, 라인, 칸 정보 통합하여 라인 별로 표기
	띄어쓰기	B	본문 중간에 1칸 띄어진 경우. 표점에 해당
	격자	<격자="*">	본문 중간에 내용과 형식 상의 표점 외 에 2칸 이상 임의로 사이를 띄운 경우. 표점과 한시의 띄움은 해당사항이 아님.
제 목	대항목	<제목 level="1"></제목>	원문 내 경명
	중항목	<제목 level="2"></제목>	권명

	이름	상세 태깅	설명
	소항목	<제목 level="3"></제목>	문체, 총목록
	기사명	<제목 level="4"></제목>	제목
	부제목	<제목 level="5"></제목>	原韻, 소제목, 부제, 第一
	임의 삽입구	<제목 level="*" from="삽입구">	원문에 없는 제목을 임의로 삽입하는 경우. 구조트리 상에는 보이나 원문에는 표시되지 않음.
저자	메인 편저자	<편저자 type="메인"></편저자>	경 전체의 편자 혹은 역자. 저자 정보
	일반 저자	<편저자 type="저자"></편저자>	경 내에 기사의 개별 저자 정보
본문	일반 형식	<본문 type="기사"></본문>	일반적인 산문 형식
	시 형식	<본문 type="시형식"></본문>	시문이나 계송 형식
	목차 형식	<본문 type="목차"></본문>	목차나 목록이 라인 단위로 나열된 형식
	각주 형식	<본문 type="각주"></본문>	주석 중 각주의 내용
	일반 형식	<본문 type="기사"></본문>	일반적인 산문 형식
	시 형식	<본문 type="시형식"></본문>	시문이나 계송 형식
	목차 형식	<본문 type="목차"></본문>	목차나 목록이 라인 단위로 나열된 형식
	각주 형식	<본문 type="각주"></본문>	주석 중 각주의 내용
본문	강제 줄 나눔	 	시, 목차 형식의 경우에는 라인 끝에 강제 줄 나눔을 하여 라인을 그대로 살림
		 	시의 경우. 한불전의 라인을 그대로 살려 줄 나눔을 해서는 내용 전달이 어려운 경우. 임의로 강제 줄 나눔
	들여쓰기	<본문 type="기사" indent="*"/>	원문 훠손 or *자 들여쓰기
	빈 라인	<line id="***_***_c" indent="0" />	본문 중간에 비어 있는 라인
주석	각주	<주석 type="각주" key="*"/>	원문 자체에 있는 교감주. 본문 가운데 각 번호에 해당하는 각주 내용 앞에 <각주 no="*"/>를 삽입
	원주	<주석 type="원주"></주석>	저본 자체에 있던 각주. 원주의 소자쌍 행인 경우 라인의 끝에 삽입
	교감주	<주석 type="교감주"></주석>	1차 사업 완료 후. 번역문과 함께 교감할 때 삽입할 예정임
	정정글자	<정정글자>원문글자/정정</정정글자>	원문 오자를 정정한 경우
	추가글자	<추가글자>추가글자</추가글자>	원문에 내용 상 추가되어야 하는 글자일 경우
	삭제글자	<추가글자>삭제글자</추가글자>	원문 가운데 삭제해야 되는 글자일 경우
이미지	그림	삭제글자	그림(image)
	도표	<chart>삭제글자</chart>	도표(chart)
	신출자	<파자>(并+儿)</파자><imghj href="">	유니코드가 없거나 웹에 구현이 되지 않는 신출 문자, 한자, 이미지 글자 처

	이름	상세 태깅	설명
기 타	소자		리의 네임은 'kh*****'으로 한다.
	저본 정보	<저본정보>*****</저본정보>	원문 상에 본문보다 글자 크기가 작은 경우
	마멸자	□(25A3)	한글전의 저본의 페이지 정보로, 내용과 관계없이 원문에 삽입되어 있음
	누락	<off></off>	인식 불능의 마멸자인 경우
	박스	<s>문</s>	누락(漏落), 마멸(磨滅)된 부분
	하이라이트	<h>【泰陵】</h>	문, 답, 해, 석 등 네모 박스 처리된 경우
	볼륨	第一	네모 박스로 되어 있지 않은 반복되는 기호인 경우. 본문의 []은 【泰陵】로 일괄 처리
	권점	○(25CB)	본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에 굵은 글씨로 된 것. 제목인 경우에는 처리하지 않음
			원문의 기호

‘고려교장’과 ‘조선사찰본서목’ 카테고리는 특정 주제와 관련된 불교문헌 목록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고려시대 승려 의천(義天, 1055-1101년)은 대장경의 주석서인 장소(章疏)를 수집하여 목록집인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教藏總錄)』을 편찬하였는데, ‘고려교장은’이 목록집에 수록된 1,010부 4,880권의 문헌을 대상으로, 각각의 문헌에 관한 저자, 장소, 형태 정보, 그리고 현존본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고려대장경연구소가 수행한 ‘고려 교장문헌 결집 및 DB구축 사업’(2012-2019년)의 결과물⁶⁾을 ABC의 체계에 맞춰 재구성한 것이다. 장소와 관련된 정보에서 특징적인 것은, 해당 장소와 관련된 경전의 연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ABC, CBETA 등에서 경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조선사찰본서목’은 『조선 사찰본 서지 연표』의 연구 성과물을 토대로 하여, 조선 시대 사찰에서 간행된 불서의 목록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총 1,755건의 문헌에 대해서 문헌의 발행지역, 산(사찰이 위치한 산), 발행자, 발행년 등의 발행정보, 형태 정보, 서발문 정보, 소장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⁷⁾ 해당 문헌에 관하여 ‘신집성

- 5)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ABC사업단,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사업 업무 지침서』,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사업단, 2018, 137-138쪽. 이 지침서는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홈페이지의 사업성과>간행도서>기타 간행물에서 확인한 것으로, 자료를 PDF 문서 형태로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다. 문서등록일: 2020년 5월 20일, 최종확인일: 2024년 8월 22일.
- 6) 고려대장경연구소의 ‘고려 교장문헌 결집 및 DB구축 사업’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애리, 「『신편제종교장총록』 소장 현존본의 조사현황과 DB 활용방안」, 『인문콘텐츠』 제50호, 인문콘텐츠학회, 2018, 37-61쪽.
- 7) ‘조선사찰본서목’은 『조선 사찰본 서지 연표』의 연구 성과물을 토대로 불교학술원에서 내

문헌'에서 수집한 문헌이 확인될 경우 이를 연계하였으며, 특히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에서 수행한 '조선시대 불서인명 DB'에서 해당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연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변상도'와 '근대불교사진'은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문헌자료를 재구성한 성격의 서비스이다. 먼저 '변상도'는 불교 문헌에 수록된 변상도를 수집하여 따로 모아 볼 수 있게 만든 서비스이다. 여러 문헌에 수록된 변상도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으며, 변상도가 수록된 견전의 해제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그림 II -1】 ABC의 변상도 자료 제공 예시

'근대불교사진'은 동국대학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의 '한국의 근대불교문화 사진 아카이브 구축 사업'(2017-2022년)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대의 불교문화와 관련된 사진을 수집하여 사진의 이미지와 메타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메타데이터에는 분야, 키워드, 연관어 등의 정보와 시간정보, 공간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간에 관한 지리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용을 보완하여 데이터베이스로 편찬한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논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일기, 『조선 사찰본 서지 연표』, 현재기록유산보존연구원, 2021.

【표 II -8】 ABC의 근대불교사진 메타데이터 예시

대흥사 황금 십자가(大興寺 黃金 十字架)의 메타데이터		
	수행기관	전자불문화콘텐츠연구소
	분야	불교미술-기타-십자가
	자료구분	PDF
	언어	한글
	설명문	1927년 대흥사 황금 십자가
	키워드	서산대사; 유물; 십자가; 십자패; 1927년
	연관어	
	URL	
	저작권자	이병두(종교평화연구원장)
	시간정보	1927년
	공간정보	전라남도-해남군
	GPS	34.477375, 126.616724
본문	1927년 대흥사에서 발견된 서산대사 유물로 추정되는 십자가 모습. 서산대사 유물 목록에는 십자패(十字佩)로 기록되어 있다.	
출전	이병두, 052_01	
공개여부	Y	

이처럼 ABC는 대장경부터 근현대의 사진 자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격의 문헌과 기록 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연구개발 사업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온라인상에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덕분이다. 따라서 다양한 자료들이 연구개발 사업 이후에도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 아쉬운 점은, 자료를 단지 각 사업의 결과물로서 아카이빙하는 데 그쳤다는 점이다. 현재의 시스템은 이미 설계된 틀에 맞춰 자료를 탑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불교기록문화유산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불교문화의 맥락에서 자료를 재구성하는 아카이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예를 들어, 『범해선사유고』의 경우, '한국불교전서'에서는 원문과 번역문의 텍스트를 제공하고 '신집성문헌'에서는 사찰에서 소장된 문헌의 실물 정보와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료가 분산되어 있다. 기록물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이 두 자원을 '범해선사유고'라는 문헌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자원으로서 '한국불교전서'와 '신집성문헌'의 자료를 재구성하여 하나의 통합된 맥락에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ABC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문헌'과 '연계정보' 기능을 통해 서로 다른 카테고리의 자료를 연결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능적인 조치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ABC에 불교문화의 맥락이 부재한 점은, 아카이브에서 이를테면 '범해 각안',

‘청허 휴정’ 등의 승려나 ‘대흥사’ 등의 사찰과 같은 정보 요소가 독립적인 개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헌의 저자와 발행자라는 속성 정보로서 승려와 사찰이 나타날 뿐, 승려와 사찰을 중심으로 하거나 그 외 불교문화의 맥락에서 이러한 방대한 규모의 자료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은 ABC가 그간 ‘문헌의 정보화’를 중심으로 아카이빙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ABC가 단순히 문헌의 디지털 사본을 보존하는 저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 불교기록문화유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헌의 정보화’ 중심으로 진행된 아카이빙의 과업이 ‘지식의 정보화’를 위한 과업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문헌의 정보화는 문헌에 담긴 지식을 정보화하기보다는 종이 매체로 만들어진 문헌 자체를 정보화하는 것으로, 정보화를 위한 최적의 데이터 편찬을 추구하기보다는 대상 문헌의 내용과 편찬 체계를 그대로 디지털 저작물 형태로 복원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반면 지식의 정보화는 종이 책이 채용한 형식에 얹매이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지식의 활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디지털화를 추구하며, 문헌의 내용을 통해 유의미한 데이터를 찾아내고 데이터의 특성에 적합한 디지털화 방법을 강구한다.⁸⁾

【표 II-9】 고전 정보화의 두 가지 모델⁹⁾

	종래의 고전 정보화 모델 As Is Model	고전 정보화의 새 방향 To Be Model
대상	책을 정보화	책 속에 담긴 지식의 정보화
정보화 방법	서문, 목차, 본문 등의 책의 구조를 재현	지식 Unit을 발굴하여 Node화
	‘아날로그 → 디지털’ 매체의 전환에 주력	활용 목적에 따라 정보를 재조직할 수 있게 함(Reuse)
서비스 방법	디지털 도서	특정 주제의 지식정보망

- 8) 이상의 문헌의 정보화와 지식의 정보화의 특징에 관한 내용은 ‘김현, 「다산 저작 텍스트의 전자정보화를 위한 온톨로지 설계」, 고전자료의 현대화 연구: 세계사 속의 다산학, 2016, 2-4쪽.’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9) 김현, 「다산 저작 텍스트의 전자정보화를 위한 온톨로지 설계」, 고전자료의 현대화 연구: 세계사 속의 다산학, 2016, 5쪽.

	종래의 고전 정보화 모델 As Is Model	고전 정보화의 새 방향 To Be Model
	내용 검색 + 순차적 글 읽기	본문 내용 속에서 문맥 요소를 드러내고 하이퍼링크를 통해 지식의 확대를 도모
활용성	Web of Document	Web of Data
	완결된 결과물	융복합적 재활용이 가능
	유관한 지식의 탐색은 독자의 노력으로……	유관한 지식 세계로 안내하는 지식정보망의 기능

가령 ‘한국불교전서’ 카테고리에서 제공되는 문헌들은 모두 아날로그 간행물인 『한국불교전서』의 체계를 그대로 따라서 디지털화되었다. 즉 한국불교전서(총서)→개별 수록 문헌→문헌의 권차(卷次)→본문이라는 아날로그 간행물의 구조를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한국불교전서』 그 자체를 디지털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범해선사유고』 또한 『한국불교전서』라는 컬렉션에 포함된 여러 문헌 중 하나로서 디지털화되었으며, 『범해선사유고』의 서지정보(【표 II-3】)와 텍스트 정보(【표 II-10】)는 이러한 디지털화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화 방식은 원본의 형태와 구조를 유지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과정에서 문헌이 담고 있는 다양한 맥락적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문헌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맥락과 배경을 포함하는 더욱 풍부한 정보화를 통해, 단순한 텍스트의 디지털화를 넘어서는 지식의 아카이빙이 필요하다.

【표 II-10】『범해선사유고』 번역문 XML 예시 - 「노인성기」 부분

```

<제목 level="4">노인성기老人星記</제목>
<문단 type="기사">「천문지」<주석 id="0015" type="각주">「천문지天文志」: 『後漢書』志「天文」을 말한다.</주석>에 이르기를, “노인성老人星은 남극성南極星이라고도 하는데, 항상 추분 새벽에 병방丙方(정남과 동남 사이)에 나타나서 춘분 저녁에 정방丁方(정남과 서남 사이)으로 사라진다. 추분에 남쪽 교외에서 관측하여 매우 밝으면 임금이 장수하고 천하가 안녕하며, 보이지 않으면 임금은 근심이 있게 되고 전쟁과 흉년이 발생한다.”라고 하였다.</문단>
<문단 type="기사">경진년(1880, 고종 17) 8월 19일 을묘 추분일 다음 날인 20일 병진일 석양에 무위無爲 사형, 덕암德庵 스님 및 기정奇正 등 4인이 함께 하루의 식량을 지니고 성도암成道庵에 갔다. 삼경三更에 들어가 앉아 허공을 보니 주성主星이 장성張星<주석 id="0016" type="각주">장성張星: 남방 주작 칠수朱雀七宿 중 한 별자리이다.</주석>이었다. 21일 정사 새벽에 큰 별이 완도 서쪽 소완도 동쪽에 뜨는 것을 보았다. 얼마 되지 않아 해가 떠오르자 사라졌다. 시를 지어 노래하였다.</문단>

```

```

<br/>
<문단 type="시형식">
舊友昏傾舊友跡 옛 친구 저녁에 옛 벗의 술 따르는데<br/>
老人曉得老人星 노인들이 새벽에 노인성을 보았도다<br/>
江村作火寒猶煖 강 마을 불을 때어 추위에도 따스하니<br/>
假寢通宵役眼青 밤새도록 잠 못 들고 반갑게 마주하네</문단>
<br/>
<문단 type="기사">임오년(1882, 고종 19) 8월 12일 을축이 추분인데, 23일 병인 새벽에 무위
<경판 id="010_1078_a_01L"/>사형,동산東山 상좌 등 3인이 함께 해림령海臨嶺 위에 오르니, 노
인성이 완도 서쪽 소완도 동쪽에 떴다. 바로 동쪽에 혜성이 있었는데 희고 붉은 기운이 곧바로
서쪽을 쏘았다. 그 기운 끝에 큰 별 하나가 있어 작은 여러 별들과 서로 다투는 듯하였다. 얼마
후에 해가 오르자 사라졌으니 길흉이 아울러 나타났다 사라진 것이다. 내려와 본소本所로 들어
가자 상원암上院庵과 진불암眞佛庵에서 종이 울렸다.</문단>
<문단 type="기사">내가 사형께 말하였다. “이 같은 길성吉星을 형의 나이 67세에, 저는 63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보게 되었으니, 어찌 이리 늦었는가.” 동산東山을 돌아보고 말하였다. “내가 보
건대 너는 이르니, 이른 것이 얼마나 다행이며, 늦은 것은 얼마나 불행인가.” 사형은 슬퍼하고
상좌는 기뻐하니, 기뻐하면 길성이요, 슬퍼하면 흉성凶星이로다. 올해 추분은 흐려서 길성을 보
지 못했으니 하물며 요기妖氣이겠는가.</문단>

```

예를 들어, 위에서 제시한 『범해선사유고』에 수록된 「노인성기(老人星記)」는, ‘범해 각안이 도반 승려들과 함께 두 번에 걸쳐 노인성을 관측한 사실’을 기록한 기문(記文)이다. 문헌의 정보화에 초점이 맞춰진 현재의 디지털화 체계로는, 이 기문을 독립된 정보 개체로 구분하고, 그 안에 담긴 사실과 맥락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어렵다. 이는 문집에 수록된 개별 시문을 독립된 항목으로 구분하거나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세부 정보를 기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성기」는 범해 각안의 행적, 도반 승려들과의 관계, 그리고 노인성이 라는 천문 현상에 대한 당대의 인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문의 내용에 관한 지식의 정보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화는 단순히 「노인성기」에 관한 정보를 풍부하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해선사유고』라는 문집, 범해 각안이라는 승려, 나아가 당대 불교사회의 맥락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음의 【표 II-11】는 이와 같은 지식의 정보화 관점에서 「노인성기」에 관한 정보화의 내용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II-11】 「노인성기」에 관한 지식의 정보화를 위한 조사내용

시문의 내용에 관한 사실 정보의 조사	
A 단 계	범해 각안의 노인성 관측을 두 개의 사건으로 구분: · 1880년 8월 20-21일 관측 : 추분(8월 19일) 다음 날인 20일 저녁, 범해는 무위 안인(無爲安忍), 덕암(德庵), 기정(奇正)과 함께 성도암(成道庵)에 가서 삼경(三更,

	<p>밤 11시-새벽 1시)부터 관측을 시작, 21일 새벽에 완도 서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노인성을 관측함</p> <p>· 1882년 8월 23일 관측 : 추분(8월 12일)이 지나서, 23일 새벽, 범해는 무위안인(無爲安忍), 동산(東山) 상좌와 함께 해림령(海臨嶺)에 올라, 완도 서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노인성을 관측함. 관측 후 본소(本所)로 돌아왔을 때 상원암(上院庵)과 진불암(眞佛庵)에서 종이 올림</p>
	문맥 정보를 통한 사실 정보의 확장
B 단 계	<p>① 관측에 동행한 승려와의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위 안인: 범해와 무위는 호의 시오(縞衣始悟)에게 법맥을 전해받은 법형제. 『범해선사유고』에는 둘의 가까웠던 사이를 추정할 수 있는 시문이 수록되어 있음. 「挽無爲兄」, 「無爲眞身贊」 · 동산: 상좌라는 호칭에서 드러나듯 범해의 문인으로 추정됨. 법명이 확인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식별이 어려우나, 『범해선사유고』에 동산이라는 법호가 확인되는 기록이 있음. 「沃州雙溪寺重脩記」 · 기정: 법명이 확인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식별이 어려움. 『범해선사유고』에 기정이라는 법호가 확인되는 기록이 있음. 「贈奇正上人」 · 덕암: 식별이 어려움 <p>② 관측 장소인 두륜산의 산내 암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륜산은 범해 각안이 주석했던 대흥사가 위치한 산으로, 이 산에는 대흥사에 소속된 암자가 여럿 있었음. · 성도암: 두륜산 위봉에 있었던 암자. 지금은 성도사. 대흥사의 승려들의 수행처였던 곳. 『범해선사유고』에는 성도암에 관한 시가 수록되어 있음. 「成道菴」. 또한 『조계고승전』의 「曹溪宗師臥月禪師傳」에는 성도사의 변천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 기록에 따르면 성도사는 1794년 봉암 낙현이 수행에 정진하다가 입적한 곳이며, 1794년 와월 교평의 주도로 보수되었음. 또한 범해의 1차 유람(경상도, 전라도)에서 방문했던 곳. · 진불암: 『범해선사유고』에는 진불암과 관련된 여러 시문이 있음. 「頭輪山眞佛庵法堂上梁文」, 「眞佛庵志序」. 특히 범해는 『진불암지』 편찬을 주도하였음. 이 밖에도 진불암에서 안거, 강학, 주석, 입적했던 승려들의 기록이 전함. · 안거: 응화 유한, 강학: 한명 대운, 주석: 범해 각안/무위 안인/영산 경순/벽해 채총/춘파 유찬/호의 시오, 입적: 백련 도연 · 상원암: 『범해선사유고』에는 상원암에 새로 지은 칠성전에 대하여 범해가 저술한 상량문이 수록되어 있음. 「頭輪山上院庵新建七星殿上梁文」. 또한 상원암에서 결성되었던 사찰계에 관한 기록도 문집에 전해짐. 「普濟會中學禊案序」. 이 밖에도 상원암에서 안거, 주석, 입적했던 승려들의 기록이 전함. · 안거: 응화 유한, 주석: 완호 윤우/호의 시오/백련 도연, 입적: 철선 혜종 <p>③ 노인성에 관한 기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려의 시문집에서 확인되는 노인성에 관한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담 유일(蓮潭有一, 1720-1799)의 「朴御史自耽羅出陸」: 『연담대사임하록』 수록. 제주에서 귀환한 관리에게 주기 위해 지은 시. 제주의 명소와 경관을 나열하며 이를 보았는지를 언급하는데 여

		기애 노인성이 포함되어 있음. 노인성은 19세기 이전까지 제주에 서만 볼 수 있는 신비로운 자연 현상으로 인식되어 왔음. ¹⁰⁾
C 단 계	이상의 내용과 관련된 디지털 아카이브의 자원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문, 고승전, 행장, 사찰문서 등 아카이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의 원문 확인이 가능한 URL 정보 · 언급된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의미를 해설한 학술연구 자료 정보

먼저 A단계는 기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 정보를 조사하여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노인성기」는 ‘범해 각안의 노인성 관측’이라는 사건을 기록한 기문이기 때문에, 이 기문에 관한 내용 조사는, 곧 ‘범해 각안의 노인성 관측’ 사건에 대한 정보 조사가 되어야 한다. 기문의 내용에 따라 1880년 8월 20-21일의 노인성 관측 사건과 1882년 8월 23일의 노인성 관측 사건으로 구분하고, 사건별로 관측에 동행한 승려들과 관측 장소를 식별하였다.

A단계가 문헌에 기록된 사실 정보를 식별하는 과정이라면, B단계에서는 A단계에서 수집한 사실 정보를 둘러싼 배경과 맥락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범해와 함께 노인성을 관측한 승려들은 범해와 어떤 관계였는가? 노인성을 관측한 장소인 성도암은 어떤 곳인가? 다른 승려들의 시문에는 노인성과 관련된 기록이 있는가?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표에서 제시된 ①관측에 동행한 승려와의 관계, ②관측 장소인 두륜산의 산내 암자, ③노인성에 관한 기록은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를 탐색한 내용이다.

C단계는 이상의 단계에서 탐색한 사실과 맥락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러한 정보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조사하고 수집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승려들과 범해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록들, 관측 장소인 두륜산 산내 암자들과 관련된 기록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이유는, 지식정보를 중심으로 자료가 연계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지식과 자료가 분절되지 않고 하나의 체계 속에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식의 정보화는 이처럼 문헌에 담긴 개별 정보와 그와 관련된 맥락적 정보를 조사하고 정리하여, 이를 디지털 환경에서 체계적으로 편찬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즉 「노인성기」를 두고 봤을 때, 이 기문을 단순히 『범해선사유고』의 일부 텍스트로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 불교 사회의 일면을 담은 중요한 자료로 인식하

10) 이현정, 「사대부의 제주 체험에 따른 노인성(老人星) 인식의 변화 양상 - 조선조 16~19 세기 체류 기록과 한시를 중심으로 -」, 『우리문학연구』 65집, 우리문학회, 2020, 171-208 쪽.

여, 그와 관련된 정보가 아카이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표Ⅱ-11】과 같은 내용을 디지털화의 주요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단순히 문헌을 디지털화하는 것만으로는 그 문헌이 담고 있는 다면적인 맥락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 따라서 기록문화유산이 투영하고 있는 불교문화에 관한 풍부한 인문 지식이 아카이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의 정보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지식의 정보화를 위한 선행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의 아카이브 구현을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2. 지식의 정보화 기반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례 검토

지식의 정보화에 기반한 디지털 아카이브 연구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이하 디지털인문학연구소)를 들 수 있다. 디지털인문학연구소는 학술 및 산업의 다양한 분야와 협력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한국의 전통문화와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한국문화 데이터 아카이브’의 구현을 목표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데이터 모델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 데이터 모델은 특히 유관 분야의 아카이빙 사업에 학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¹¹⁾ 따라서, 이 장에서는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데이터 모델을 검토함으로써 지식의 정보화를 위한 단서를 파악하고자 한다.

【표 II-12】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연구개발 사업¹²⁾

사업명	주관기관	수행 연도
한국 기록유산의 디지털 스토리텔링 자원 개발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2017
문화유산 속의 인물에 관한 시각적 스토리텔링 자원 개발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전통문화 용복합 자원을 위한 지능형 검색 플랫폼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 (주)PCN	2017-2019
고양 서삼릉 내 묘역 및 태실 역사성 회복 연구	문화재청	2019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문화자산 아카이브 구축	목포시청	2020-2021
문화재명칭 영문 표기 용례 / 문화재 안내판 안내문 안 데이터 아카이브	문화재청 / 한국문화유산활용 단체연합회	2019-2022
한양도성 타임머신 빅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문화재청 / (주)PCN	2020-2022
광주 문화예술 인문 스토리 플랫폼 개발	광주광역시 / (주)대동문화재단	2022-2024

11) 본문의 【표 II-N】은 이러한 아카이빙 사업 중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가 참여한 연구개발 사업을 제시한 것이다. 그 밖에 다른 조직에 의해 수행된 아카이빙 사업으로는, 서울문화재단의 남산예술센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2020년),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의 대구1907 구축 사업(2021년),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충청국학 디지털 아카이브의 지식관계망 구축 사업(2023년) 등이 있다. 이상의 사업은 모두 본문에서 후술하게 될 디지털인문학연구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백과사전적 아카이브의 개념에 따라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를 구축한 사례이다.

12) 이상의 연구개발 사업의 이력은 다음의 글에서 ‘각주 14번’에 정리된 내용을 기반으로 2024년의 내용을 추가하여 정리한 것이다. 김현, 강해원, 「고고학술정보 데이터 아카이빙 전략과 구현방안 - 한국고고학사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제안」, 국제학술심포지엄 『고고학술정보 디지털대전환』 자료집, 국립문화재연구원, 2022, 135쪽.

디지털인문학연구소가 제안하는 한국문화 데이터 아카이브에 관한 구상은 ‘백과사전적 아카이브(Encyves, Encyclopedic Archives)’라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백과사전적 아카이브는 아날로그 세계에서 독립된 두 영역에 존재했던 백과사전 정보와 아카이브 자료가 상호 의미적 관련성을 추구하여 긴밀하게 엮어진 데이터 아카이브를 말한다.¹³⁾ 기존의 아카이브는 문헌이나 자료 등 자원(resources)을 아카이빙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면, 백과사전적 아카이브는 그러한 자원에 관한 지식을 정보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새로운 개념의 지식정보 아카이브를 제안한다.

‘EKC(Encyclopedic Archives of Korean Culture) Data Model’은 이러한 백과사전적 아카이브의 개념을 구체적인 데이터 모델로 발전시킨 것이다. EKC Data Model은 한국의 전통문화에 관한 역사적 사실 관계 및 그 사실의 문헌적 근거에 관한 지식을 시맨틱 데이터로 기술하기 위한 온톨로지 스키마로,¹⁴⁾ 2016년 ‘한국기록유산의 디지털 스토리텔링 자원 개발’ 연구 프로젝트를 계기로 EKC의 1.0버전이 제정되었으며¹⁵⁾, 이후 여러 연구개발 사업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재 ‘EKC 2022’가 공시되어 운용되고 있다. (【표 II-12】의 연구개발 사업은 EKC Data Model에 입각하여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

【표 II-13】 EKC Data Model의 클래스(Class) 구성¹⁶⁾

section	class	description
① 사실과 문맥 데이터 (Fact & Context Data) ⇒ 지식 정보 네트워크	Actor	역사적인 인물/집단적 행위 주체로서의 단체/운영주체로서의 기관 등
	Event	아카이빙 대상 공간 및 시간 범위 안에서 일어난 사건과 발생 시점이 있는 의례/이를 재현하는 행사, 기념제 등
	Place	역사적 배경(사건, 인물)과 관련이 있는 장소, 유물의 소장처

13)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한국 기록유산 Encyves’, https://dh.aks.ac.kr/Encyves/wiki/index.php/한국_기록유산_Eencyves

14)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Ontology:EKC 2022’, https://dh.aks.ac.kr/hanyang2/wiki/index.php/Ontology:EKC_2022

15)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EKC Data Model-Draft 1.1’, https://dh.aks.ac.kr/Encyves/wiki/index.php/EKC_Data_Model-Draft_1.1

16) 김현, 강혜원, 「고고학술정보 데이터 아카이빙 전략과 구현방안 - 한국고고학사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제안」, 국제학술심포지엄 『고고학술정보 디지털대전환』 자료집, 국립문화재연구원, 2022, 138쪽.

section	class	description
① 아카이빙 데이터 (Archiving Data) ⇒ 아카이빙/증언자원 연계	Architecture	아카이빙 대상 공간 안에 있는 건축물과 조형물
	Clothing	아카이빙 대상 시간 범위의 역사적 인물들이 착용했던 다양한 성격의 복장과 복식 요소들
	Food	아카이빙 대상 의례·행사에서 차려졌던 음식, 식재료와 상차림
	Object	각종 의례/행사의 도구, 그 시대의 문화를 보이는 물품들
	Work	음악, 연희, 무용 등의 공연예술 작품이나 시, 악장가사 등의 문학작품
	Record	문헌, 사진, 도면, 금석문 등 지식 데이터의 원천 자료가 되는 기록물
	Concept	제도, 의례, 풍속 등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용어와 개념
	Heritage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등록 정보
② 학술문헌/웹자원 데이터 (Reference Data) ⇒ 학술정보/관련자원 연계	Bibliography	학술적 연구 자료의 목록, 서지사항과 원문/서지사항 URL
	WebResource	월드 와이드 웹상에서 접근할 수 있는 참고자료
	Text	설명의 증거 기능을 하는 문헌상의 텍스트
③ 스토리텔링 데이터 (Storytelling Data) ⇒ 스토리텔링	Story	'이야기'(Storytelling) 전달을 목적으로 아카이브 속의 노드를 선택하고 설명한 데이터
④ 공간 데이터 (Spatial Data) ⇒ 전자지도	Space	GPS 상에서 지리적 위치를 시각화하는 데이터
⑤ 시간 데이터 (Temporal Data) ⇒ 전자연표	TimeSpan	Event 시점/시간 범위를 전자연표상에서 시각화하는 데이터
⑥ 메타버스 어셋 (Metaverse Asset) ⇒ 메타버스 제작/활용	3dModel	건물, 물품, 의복, 음식 등의 3차원 형상
	3dScene	3D 모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한 3D 공간
	VR	실사 영상 기반으로 제작한 3D 공간

【표 II - 14】 EKC Data Model의 관계성(Relation) 구성¹⁷⁾

구분	relation	domain	range	inverse relation	attribute
----	----------	--------	-------	------------------	-----------

17)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Ontology:EKC_2022:Relation', https://dh.aks.ac.kr/hanyang2/wiki/index.php/Ontology:EKC_2022:Relation

구분	relation	domain	range	inverse relation	attribute
A1	ekc:hasAdoptedHeir	Actor	Actor		
	ekc:hasBrother	Actor	Actor		형,동생, 오빠
	ekc:hasBrotherInLaw	Actor	Actor		매부,동 서
	ekc:hasConcubine	Actor	Actor	ekc:hasHu sband	
	ekc:hasCousin	Actor	Actor		
	ekc:hasDaughter	Actor	Actor	ekc:hasFat her	
	ekc:hasDaughterInLaw	Actor	Actor		
	ekc:hasDescendant	Actor	Actor		
	ekc:hasDisciple	Actor	Actor	ekc:hasMa ster	
	ekc:hasFatherInLaw	Actor	Actor	ekc:hasSo nInLaw	
	ekc:hasGrandDaughter	Actor	Actor		
	ekc:hasGrandson	Actor	Actor		
	ekc:hasOwner	Actor	Actor		
	ekc:hasSister	Actor	Actor		누나,언 니,여동 생
	ekc:hasSisterInLaw	Actor	Actor		시누이, 동서
	ekc:hasSon	Actor	Actor	ekc:hasFat her/ekc:ha sMother	
	ekc:hasSubject	Actor	Actor		
A2	ekc:hasWife	Actor	Actor	ekc:hasHu sband	처서
	ekc:isAffinalKinOf	Actor	Actor		
	ekc:isFellowOf	Actor	Actor		
	ekc:isLineageKinOf	Actor	Actor		
	ekc:isMentionedBy	Actor	Actor		
	ekc:knows	Actor	Actor		
	ekc:wasOrdainedBy	Actor	Actor		
A2	ekc:annotator	Record	Actor		
	ekc:calligrapher	Record	Actor		
	dcterms:contributor	Record/Obje ct/Event	Actor		
	dcterms:creator	Record/Obje ct	Actor		
	ekc:creatorPresumed	Record/Obje ct	Actor		
	ekc:editor	Record	Actor		
	ekc:doner	Record/Obje ct	Actor		

구분	relation	domain	range	inverse relation	attribute
		ct			
	ekc:inscriber	Record	Actor		
	dcterms:publisher	Record	Actor		
	ekc:owner	Record/Object	Actor		
	dcterms:rightsHolder	Record/Object	Actor		
	ekc:translator	Record	Actor		
	ekc:writer	Record	Actor		
A3	ekc:hasAffiliation	Actor	Agent		
	ekc:isMemberOf	Actor	Agent	foaf:member	
A4	ekc:servesAs	Actor	Concept		
	ekc:servesTemporarilyAs	Actor	Concept		
	ekc:wasPosthumouslyPromotedTo	Actor	Concept		
	ekc:isPasserOf	Actor	Event		
	ekc:isOfficialPostOf	Concept	Agent		
	ekc:hasAppointee	Record	Actor		
P1	ekc:enshrines	Place	Actor	ekc:isEnshrinedIn	
	ekc:isBirthPlaceOf	Place	Actor		
	ekc:isDeathPlaceOf	Place	Actor		
	ekc:isDeliveryPlaceOf	Place	Actor		
	ekc:isNear	Place	Place		
	ekc:isPlacentaChamberOf	Place	Actor		
	ekc:isSiteOf	Place	Place/Architecture/Agent		
P2	ekc:livesIn	Actor	Place		
	ekc:wasBuriedIn	Actor	Place		
	ekc:wasExecutedAt	Actor	Place		
	edm:currentLocation	Object	Place/Agent		
	edm:formerLocation	Object	Place/Agent		
	ekc:isProducedIn	Object	Place		
	ekc:isProducedBy	Object	Actor/Place		
	ekc:isCurrentlySituatedOn	Place/Architecture/Agent	Place		
	ekc:isLocatedIn	Place/Architecture/Agent/Object	Place		
	ekc:isPreviouslySituatedOn	Place/Architecture/Agent	Place		
E1	edm:happendAt	Event	Place		
	ekc:isCausedBy	Event	Event		
	ekc:isVictimOf	Actor	Event		
	ekc:leads	Actor	Event		

구분	relation	domain	range	inverse relation	attribute
E2	ekc:administrates	Actor	Event		
	ekc:hasParticipant	Event	Actor	ekc:participatesIn	
	ekc:isHeldAt	Event	Place		
	ekc:isHeldFor	Event	Actor		
	ekc:isOperatedIn	Agent	Event		
	ekc:virtuallyParticipatesIn	Actor	Event		
E3	ekc:appearsIn	Actor	Concept		
	ekc:isAwarded	Actor	Object		
	ekc:isPerformedAt	Event/Concept	Place		
	ekc:isPerformedBy	Concept	Actor		
	ekc:isPerformedIn	Concept	Event	ekc:hasPerformance	
	ekc:plays	Actor	Object		
E4	ekc:curates	Event	Object/Record/Event		
	ekc:hasExhibition	Object/Record	Event		
	ekc:hasExhibitionAt	Record	Place/Agent		
AR	ekc:constructor	Architecture	Actor		
	ekc:hasDrawing	Architecture	Record		
	ekc:isNamedBy	Architecture	Actor		
	ekc:reconstructor	Architecture	Actor		
	ekc:renovator	Architecture	Actor		
	ekc:founder	Architecture/Agent	Actor		
CL	ekc:wears	Actor	Clothing		
	ekc:isWornIn	Clothing	Event/Concept		
FO	ekc:serves	Actor	Food		
	ekc:cooks	Agent	Food		
	ekc:prepares	Agent	Food		
	ekc:hasIngredient	Food	Food		
	ekc:isGarnishedWith	Food	Object		
	ekc:isProvidedIn	Food	Event		
	ekc:isServedIn	Food	Object		
	ekc:isServedOn	Food	Object		
	ekc:isServedTo	Food	Actor		
OB	ekc:commemorates	Object/Event/Record	Event		
	ekc:goesWith	Object	Object		
	ekc:hasInscription	Object	Text		
	ekc:isMadeOf	Object	Object		
	ekc:isStoredIn	Object	Place/Architecture		

구분	relation	domain	range	inverse relation	attribute
	ekc:isUsedIn	Object	Event		
RE	ekc:isDepictedIn	Any	Record	ekc:depicts	
	ekc:isMentionedIn	Any	Record	ekc:mentions	
	ekc:documents	Record	Event		
	ekc:hasEpitaph	Record	Text		
	ekc:hasHistoricalSetting	Record	Event		
	ekc:hasText	Record	Text		
	ekc:hasVersion	Record	Record		
	ekc:isPostedIn	Record	Record		
	ekc:references	Record/Concept	Record		
	edm:isDerivativeOf	Record/Object	Record/Object		
HR	edm:isSuccessorOf	Record/Object	Record/Object		
	dcterms:provenance	Record/Object	Actor/Place		
	ekc:hasAsset	Place	Architecture/Object/Record		
	ekc:hasBranchTemple	Place	Place		
	ekc:hasHermitage	Place	Place		
	ekc:isDesignatedAs	Place	Heritage		
	ekc:isSteleOf	Object	Actor		
NM	ekc:isTombstoneOf	Object	Actor		
	ekc:isStupaOf	Object	Actor		
	ekc:isTombOf	Place	Actor		
	ekc:hasNewName	Place/Architecture/Agent	Place/Architecture/Agent	ekc:hasOldName	
	ekc:isNamedAfter	Place/Architecture/Agent	Place/Architecture/Agent		
CO	ekc:isNamesakeOf	Place/Architecture/Agent	Place/Architecture/Agent		
	dcterms:hasPart	Any	Any	dcterms:isPartOf	
	ekc:isInfluencedBy	Any	Any		
	ekc:isKindOf	Any	Any		
	edm:isRelatedTo	Any	Any		
	ekc:mightBeRelatedTo	Any	Any		
	owl:sameAs	Any	Any		
	dcterms:type	Any	Any		
	ekc:includes	Concept	Any		
	edm:isNextInSequenceTo	Event/Concept	Event/Concept	ekc:isPreviousInSequenceTo	

구분	relation	domain	range	inverse relation	attribute
TM	ekc:timeline	Any	Index		
	ekc:hasTemporalElement	Index	Event		
ST	ekc:hasContextualElement	Story	Story		
	ekc:hasEnglishExplanation	Story	Story		
	ekc:hasChineseExplanation	Story	Story		
XR	ekc:bibliography	Any	Index/Bibliography		
	ekc:onlineReference	Any	Index/WebResource		
	ekc:textReference	Any	Text		
	ekc:archiveHolding	Any	Index/WebResource		
	edm:isShownAt	Any/Index	WebResource		
	edm:isShownBy	Any/Index	WebResource/Multimedia		
	ekc:hasPhoto	Multimedia	WebResource		
	ekc:isReferencedFrom	Index	Bibliography		
	ekc:isHeldBy	WebResource	Place		
	ekc:hasReferenceNote	Multimedia	Any		
	ekc:isAvailableAt	Multimedia	Any		

※ 관계어 ‘구분’의 의미		
A1 인적 관계	A2 문헌/작품/사건의 역할자	A3 인물과 기관/단체의 관계
A4 관직 관련 관계	P1 인물과 장소를 설명하는 관계	P2 장소가 목적어인 관계
E1 이벤트 관련 관계: 사건	E2 이벤트 관련 관계: 행사	E3 이벤트 관련 관계: 공연
E4 이벤트 관련 관계: 전시	AR 건조물 관련 관계	CL 복식 관련 관계
FO 음식 관련 관계	OB 물품 관련 관계	RE 기록물/유물 관련 관계
HR 문화재 관련 관계	NM 이름 사이의 관계	CO 개념적/포괄적 관계
TM 연표의 구성을 지시하는 관계	ST 스토리텔링 구성을 지시하는 관계	XR 참고자료를 지시하는 관계

EKC Data Model은 아카이브의 기능적 특성에 따라 클래스를 6개의 섹션으로 구분하였으며, 아카이빙의 목적과 활용성에 맞게 데이터 모델에서 제안하는 여러 클래스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그에 관한 데이터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가령 ‘공간 데이터(Spatial Data)’와 ‘시간 데이터(Temporal Data)’, ‘메타버스 어셋(Metaverse Assets)’ 섹션은 각각 전자지도와 전자연표를 시각화하거나 메타버스 제작과 활용을 위한 기능적 요구에 따라 데이터 모델로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이다.¹⁸⁾

18) 예를 들어, ‘한양도성 타임머신 빅데이터 아카이브 구축(2020-2022)’ 사업은 한양도성의 주요 건축물의 3D 모델 데이터를 제작하여 이를 아카이빙의 주요 리소스로서 활용하게 됨

EKC Data Model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섹션은 ‘사실과 문맥 데이터(Fact & Context Data)’와 ‘학술문헌/웹자원 데이터(Reference Data)’로, 이의 섹션은 이 모델에서 중점을 두는 백과사전적 아카이브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이다.

‘사실과 문맥 데이터’는 아카이빙 대상에 관한 지식의 내용을 전달하는 요소들과 그 요소들의 문맥적 상관관계를 네트워크 형태로 구현하는 기능을 한다.¹⁹⁾ 따라서 ‘사실과 문맥 데이터’에는 이러한 지식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범주화하기 위한 클래스(class)와 지식 요소들의 의미적 관계를 정의하는 관계어(relation)를 제시하고 있다. 인물(Actor), 장소(Place), 사건(Event), 기록물(Record), 사물(Object), 개념(Concept) 등의 클래스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관련된 자원들이 가지는 다면적 맥락을 범주화한 것이며, 문화유산(Heritage)은 그러한 맥락을 구성하는 요소들 가운데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유산을 구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또한 복식(Clothing), 음식(Food) 등과 같이 전통 의례와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카이빙할 수 있는 특수한 성격의 범주도 마련되어 있다. 이처럼 EKC Data Model이 복합적 성격의 클래스로 구성된 데에는, 이 모델이 다양한 자원을 대상으로 한 아카이빙 사업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에서 기인하며, 이 과정에서 각 자원이 가지는 정보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클래스를 유연하게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EKC Data Model은 특정 도메인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지식의 범주를 다룰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아카이빙 자원에 관한 풍부한 지식정보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관계어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자원에 대한 지식 요소 간의 관계성을 의미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어휘들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적 관계(A1)에서는 혈연, 혼인 등으로 형성된 친족 관계와 학문적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 등 전근대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인적 관계를 기술할 수 있는 어휘를 제공한다. 장소 관련 관계(P1, P2, AR)에는 특정 장소와 관련된 인물, 장소의 변천, 장소와 관련된 사건 등을 기술할 수 있는 어휘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유산, 유적지, 건조물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기술할 수 있게 하였다. 기록물 관련 관계(A2, RE)에서는 문헌자료의 서지정보뿐만 아니라, 기록물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지식 요소 간의 관계성을 기술할 수 있는 어휘를 제공함으로써, 서지정보 중심의 평면적 정보가 맥락 정보를 만나 기록물에 관한 입체적인 지식의 정보망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관계

에 따라, ‘메타버스 어셋’ 섹션의 3dModel 클래스를 구성하여 데이터를 편찬하였다.

19) 김현, 강혜원, 「고고학술정보 데이터 아카이빙 전략과 구현방안 - 한국고고학사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제안」, 국제학술심포지엄 『고고학술정보 디지털대전환』 자료집, 국립문화재연구원, 2022, 13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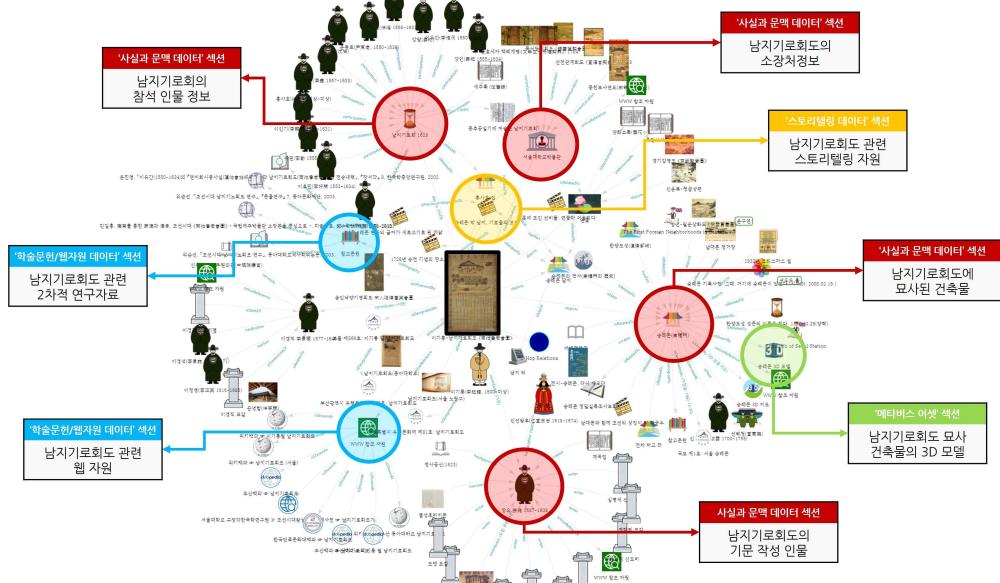
어들에 의해 표현된 시맨틱 데이터는, 대상 자원에 관한 사실과 문맥 데이터를 기술하여 지식정보의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술문헌/웹자원 데이터’는 ‘사실과 문맥 데이터’를 통해 만들어진 지식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식의 학술적 근거를 밝히는 원천자료와 2차적 연구자료, 웹상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자원들을 연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²⁰⁾ 이 섹션에는 참고문헌(Bibliography), 웹자원(WebResource), 텍스트(Text)와 같은 클래스가 포함되며, 이 클래스들은 참고자료를 지시하는 관계어(XR)를 통해 ‘사실과 문맥 데이터’의 지식 요소와 연결된다. 참고문헌(Bibliography) 클래스는 주로 오프라인에서 발간된 학술 연구자료로 구성되며, 자료의 서지사항과 원문을 열람할 수 있는 URL 정보를 제공한다. 반면, 웹자원(WebResource) 클래스는 웹상에 존재하는 여러 유형의 디지털 콘텐츠로 구성되며, 이 역시 콘텐츠로 접근 가능한 URL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클래스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사실과 문맥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 네트워크 상에서 연계된다는 점이다. 이는 “유관한 지식자원들이 온라인상에서 정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백과사전적 아카이브”를 구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술적 장치라 할 수 있다.²¹⁾

예를 들어, 다음의 【그림 II-2】은 ‘한양도성 타임머신 빅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사업(2020-2022년)의 결과물 중 하나로, 조선시대에 제작된 계회도(契會圖) 중 하나인 〈남지기로회도(南池耆老會圖)〉를 대상으로 이 그림의 ‘사실과 문맥 데이터’와 ‘학술문헌/웹자원 데이터’를 편찬하고 이를 네트워크 그래프의 형태로 시각화한 것이다.

20) 김현, 강혜원, 「고고학술정보 데이터 아카이빙 전략과 구현방안 - 한국고고학사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제안」, 국제학술심포지엄 『고고학술정보 디지털대전환』 자료집, 국립문화재연구원, 2022, 136쪽.

21) 인용된 표현은 다음의 글에서 각주4에 언급된 것으로, 백과사전적 아카이브의 취지가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되어 있어서 전체 내용을 옮겨 적는다. “어느 동일한 문헌자료 한 권을 두고 볼 때, 그 책에 대한 해제와 관련 인물에 대한 정보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데이터베이스에 있고, 그 책 실물의 서지사항과 원문 이미지 데이터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에 있는데, 이 두 조직의 데이터베이스는 서로에 대해 어떠한 연결고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 책자 형태의 저작물을 만들어내던 시절부터 그 두 가지 일은 별도의 조직에서 다른 연구진들에 의해 수행되어 온 일이었기 때문에 디지털 기반으로 일을 하는 현재에도 서로에 대해 무관한 듯한 예전의 체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백과사전 편찬’과 ‘아카이브 운영’을 각기 다른 업무로 취급하는 기존 조직체계의 제약을 넘어서서 유관한 지식자원들이 온라인상에서 정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지식정보 아카이브를 구현하자는 것이 ‘백과사전적 아카이브’의 취지이다.” - 김현, 강혜원, 「고고학술정보 데이터 아카이빙 전략과 구현방안 - 한국고고학사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제안」, 국제학술심포지엄 『고고학술정보 디지털대전환』 자료집, 국립문화재연구원, 2022, 129쪽.



【그림 II-2】 〈남지기로회도〉의 시맨틱 데이터(22)

〈남지기로회도〉는 1629년 숭례문 밖 남지(南池) 부근에 있었던 흥사효(洪思敎)의 집에서 열린 기로회(耆老會)의 모습을 그린 기록화이다. 그림의 제작자, 소장처 정보, 원본과 이모본(移模本)의 현황, 문화유산 지정 정보, 그림의 서문(序文)·기문(記文)·좌목(座目)의 저자, 기로회의 참석 인물 정보, 기로회와 관련된 또 다른 기록물 등의 정보를 시맨틱 데이터로 기술하여 그림에 관한 지식의 정보망을 제작하였다.

<남지기로회도>에 관한 사실과 문맥 데이터를 편찬하고 이에 관한 자원들을 연계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식 요소를 발굴하고 관계 데이터를 구축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계회도라는 그림과 그림에 묘사된(depicts) 구체적 대상으로서 계회(契會)라는 모임(Event)을 구분하기 위해 ‘남지기로회(1629)’라는 요소를 발굴한 것이 주목된다. 이 요소를 발굴함으로써 ‘남지기로회(1629)’의 참석 인물들을 모임의 참여자(participatesIn)로 기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남지기로회도에 묘사된 계회 모임과 이 모임의 참석자’라는 맥락을 분명하게 데이터로 기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의 구성은 이 그림과 유사한 성격의 기록화 혹은 그림 자료들의 문맥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그림에는 ‘승례문’

22) 예시로 제시한 남지기로회도 데이터는 다음에서 확인하였다. <https://dh.aks.ac.kr/~sandombox/cgi-bin/Story02.py?db=hanyang2023&project=hanyang&account=guest&pwd=guest&key=남지기로회도-이기룡>

이 그려졌는데(depicts), 송례문이 묘사된 또 다른 근대기 사진과 그림 등의 기록물을 조사하여 연계함으로써, 송례문의 변천을 이미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현재의 송례문을 3차원 형상으로 제작한 3D모델 데이터를 연계함으로써, 지식정보의 관계망 속에서 문화유산에 관한 멀티미디어 자료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남지기로회도〉와 관련된 학술 연구자료를 참고문헌(Bibliography)으로 연계하여, 지식 정보망을 통해 확인한 지식이 전문 연구자료의 탐색까지 이어져 관련 지식을 심화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남지기로회도〉를 해설한 디지털 사전의 웹 페이지를 웹 참조 자원(WebResource)으로 연계함으로써, 웹 상에 존재하는 〈남지기로회도〉와 관련된 자료를 지식의 정보망 속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EKC Data Model은 아카이빙 대상의 지식 내용과 이와 관련한 자원을 의미적으로 재구성하고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데 유용한 데이터 기술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대상의 속성 정보를 나열하는 메타데이터 기술 체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닌다. 또한 이러한 아카이빙 과정은 지식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보를 의미 있는 맥락 속에서 선별하고 배치하여 조직하는 연구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큐레이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식의 아카이브를 구현하는 과정은 디지털 큐레이션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지식의 아카이브는 그러한 디지털 큐레이션의 결과물이 축적되고 공유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EKC Data Model은 이러한 디지털 큐레이션의 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지식의 저작 도구인 셈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EKC Data Model은 그 자체로 디지털 큐레이션을 위한 도구라 할 수 있지만, 이 데이터 모델은 이렇게 만들어진 시맨틱 데이터를 재활용(reuse)하여 데이터를 특정 줄거리(storyline)에 따라 큐레이션하여 이야기(storytelling)를 제공할 수 있도록 큐레이션을 위한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였다.²³⁾ ‘스토리텔링 데이터(Storytelling Data)’ 섹션의 Story 클래스는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시맨틱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구성할 수 있는 개별 이야기’가 이 클래스의 구성 요소가 된다. 이 구성 요소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개별 지식 요소들과 각각 ‘세부 문맥요소 ~이 있다’는 의미의 ‘hasContextualElement’의 관계어로 연계된다. 하나의 스토리는 또 다른 스토리의 하위 스토리가 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스토리 간의

23) 김현, 강혜원, 「고고학술정보 데이터 아카이빙 전략과 구현방안 - 한국고고학사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제안」, 국제학술심포지엄 『고고학술정보 디지털대전환』 자료집, 국립문화재연구원, 2022, 136쪽.

상하위 관계는 hasPart의 관계어로 정의할 수 있다. 예컨대 위의 <남지기로회도>의 시맨틱 데이터에서 보이는 지식 요소 중 일부는 ‘송례문 밖 남지, 기로들의 모임’이라는 스토리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이야기는 ‘송례문의 역사’라는 상위 이야기 요소의 하위 이야기이다.

【표 II-15】 EKC Data Model의 Story 데이터 예시²⁴⁾

source	target	relation
E4-001	3D-송례문	hasContextualElement
E4-001	강담	hasContextualElement
E4-001	강인	hasContextualElement
E4-001	남지_터	hasContextualElement
E4-001	남지기로회	hasContextualElement
E4-001	남지기로회도-부산	hasContextualElement
E4-001	남지기로회도-서울	hasContextualElement
E4-001	동추공일기:남지기로회_기사	hasContextualElement
E4-001	서성	hasContextualElement
E4-001	서울대학교_박물관	hasContextualElement
E4-001	세구록	hasContextualElement
E4-001	송인낙양기영회도	hasContextualElement
E4-001	송례문	hasContextualElement
E4-001	송례문_남지	hasContextualElement
E4-001	심론	hasContextualElement
E4-001	유순익	hasContextualElement
E4-001	운동로	hasContextualElement
E4-001	이경직	hasContextualElement
E4-001	이권	hasContextualElement
E4-001	이귀	hasContextualElement
E4-001	이기룡-1600	hasContextualElement
E4-001	남지기로회도-이기룡	hasContextualElement
E4-001	이유간	hasContextualElement
E4-001	이인기	hasContextualElement
E4-001	이호민	hasContextualElement
E4-001	장유	hasContextualElement
E4-001	홍사효	hasContextualElement
E4-001	홍사효_집	hasContextualElement
E4-001	A00-0001-0000	hasContextualElement
E4-001	B00-0866-0000	hasContextualElement
E4-001	bib-이기룡-남지기로회도	hasContextualElement
E4-001	ref-이기룡-남지기로회도	hasContextualElement
E4-001	vmap-송례문	hasContextualElement
S4-001	E4-001	hasPart

24) 예시로 제시한 ‘송례문 밖 남지, 기로들의 모임’의 스토리 데이터는 다음에서 확인하였다.
<https://dh.aks.ac.kr/~sandbox/cgi-bin/Story03.py?db=hanyang2023&project=hanyang&key=E4-001>

시맨틱 데이터는 대상 세계에 관한 정보를 의미론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의미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 요소를 발굴하는 한편, 이러한 지식 요소 간의 풍부한 맥락을 표현하기 위해 관계 데이터를 심화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데이터의 규모가 방대하다는 특징이 있다. 데이터의 규모가 방대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데이터의 맥락이 복잡해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Story 클래스는 이렇게 방대해진 시맨틱 데이터를 이야기 형식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스토리 데이터는 복잡한 지식을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다. 【표 II-16】은 ‘광주 문화예술 인문 스토리 플랫폼 개발’(2022-2024년) 사업에서 편찬한 Story 데이터의 목록이다. 이 사업에서는 줄거리를 가진 이야기를 스토리라인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줄거리를 에피소드로 세분화 하였다. 총 11,500건의 규모로 제작된 시맨틱 데이터는 각각 2-5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22개의 스토리라인을 통해 광주에 관련된 이야기를 흥미롭게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복잡한 데이터의 맥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광주의 인문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표 II-16】 ‘광주 문화예술 인문 스토리 플랫폼 개발’ 사업의 Story 데이터 편찬 사례²⁵⁾

스토리라인	에피소드
광주 기독교 선교 유적 이야기들	근대기 미국 장로회의 조선 선교 기지
	광주 양림동의 기독교 선교 유적
	광주 양림교회와 3.1운동
	광주 제중병원의 사람들
	우일선선교사사택의 어제와 오늘
조선대학교와 미술작가들	김보현 실비아올드 미술관 조성과 전시
	미래 프로작가들을 위한 조선대학교미술관
	조선대학교 출신 작가들의 작품 활동
광주권번의 광주소리와 박동실	광주권번의 예술가들
	광주소리의 맥
	박동실의 소리인생
시대에 공명한 광주의 종교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시대와 공명해 온 광주의 불교
	구한 말 저항의 기록, 시대정신의 계보로써 동학농민운동
	시대의 아픔과 함께하고, 더 나은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한 광주의 기독교

25) ‘광주 문화예술 인문 스토리 플랫폼 개발’ 사업의 Story 데이터의 현황과 구체적인 시맨틱 데이터의 내용은 다음의 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dh.aks.ac.kr/~gwan/gju/wiki/index.php/스토리_목록

스토리라인	에피소드
다양한 설화 속 김방을 통해 보는 현재의 광주	유능함을 인정받아 관직에 복귀한 김방의 일생
	다양한 설화를 남긴 김방
	김방의 자취를 따라서 보는 광주의 근대화
소리꾼 임방울을 통해 보는 일제 말기부터 한국전쟁까지의 시대사	임방울을 가족관계도와 판소리 전수
	주목받는 소리꾼으로서의 활동
	판소리 쇠퇴 분위기 속에서 꿋꿋하게 이어간 판소리 공연
광주의 민속문화	마을 공동체와 전통 문화
	광주지역 농악을 집대성한 광산농악
	마을의 대표하는 나무들
광주의 자연 유산	광주의 천연기념물
	영산강이 품은 이야기(특징적 동식물, 문인들의 시 등)
	무등산이 품은 이야기(특징적 동식물, 사찰, 봉우리 등)
광주를 배경으로 하는 K-콘텐츠	광주를 담은 영화와 드라마
	광주를 담은 문학 작품
	광주를 담은 연극
1980년대 광주의 민중미술 지형도	광주지역 미술운동 집단과 대학 미술페
	판화와 민중운동
	<민족 해방 운동사> 걸개그림 사건
광주의 유명 건물로 보는 근대 역사	일제강점기 초기 서구 선교사들의 영향
	일제강점기 후기 근대화된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20세기 중반 기독교, 천주교의 성장
	20세기 중반 고등 교육 붐
역사가 기억하는 광주의 활동가	민주화운동 활동가
	선교 활동가
	의료 활동가
	의식을 깨우는 활동가
광주의 도시재생프로젝트	기독교로 시작해 예술가들과 함께 하게 된 양림동 팽귄마을
	폐선부지를 푸른길의 공원으로
	공간에 불어넣은 예술, 광주 폴리
영산강과 황룡강이 품은 광주의 유원지	인근 광주천과 영산강이 합류하는 구간, 극락강역
	영산강을 바라보고 있는 풍영정
	자연과 함께하는 광주의 축제
광주 스포츠	광주의 유명 스포츠 구단과 광주 출신 대표적인 운동 선수들
	광주의 고교 야구팀과 기아 타이거즈
	광주의 프로축구팀 광주FC
	광주가 낳은 세계 최강 신궁
	광주의 배구팀, AI페퍼스 배구단

스토리라인	에피소드
광주 비엔날레	광주 비엔날레
	광주를 소재로한 광주비엔날레 작품들
	광주의 도시문화 풍경을 만들어온 광주풀리를 비롯한 공공예술프로젝트
	광주 비엔날레의 전시 공간
	광주의 민주정신과 비엔날레
광주의 뮤지엄	광주 비엔날레의 역대 주제들과 특별 프로그램
	역사와 민속을 담아낸 박물관
	문화 예술을 담아낸 박물관
광주와 고려인마을	과학을 담아낸 박물관
	광주공동체의 일원이 된 고려인들
	고려인마을의 맛과 멋
무등산이 품은 이야기	고려인 사회의 지도자, 흥법도 장군
	무등산과 문학
	무등산의 사찰과 명승지
	무등산의 동식물
	무등산 자연복원 사업
광주의 유적과 건축문화재	무등산의 전통산업과 현재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를 거쳐 통일신라까지 광주가 품은 유적들
	문화재가 된 가옥
광주의 여성 교육	유교문화를 간직한 유적
	역사를 이끈 여성들
광주의 산업과 경제를 일군 공장들	여성 교육 기관
	광주의 제조업
	광주의 미래를 위한 주력 산업

마지막으로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EKC Data Model 개발과 운용에 관하여 주목 할 점은, 이 모델이 특정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편찬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개발되고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유관 분야의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동일한 모델로 기술될 수 있게 하였으며, 그 결과 동일한 체계로 기술된 데이터가 다각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지식정보의 네트워크가 더욱 풍부해지고 여러 분야의 데이터가 상호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인문학연구소는 디지털 환경에서 인문 지식을 축적하는 방안으로, 지식의 정보화에 기반한 데이터를 편찬하고 그 규모를 확장하는 것과 함께, 이러한 지식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편찬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으로서 EKC Data Model을 발전시

키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아왔다고 할 수 있다. 즉 EKC Data Model은 지식의 지속적인 축적과 확장을 가능케 하는 실천적 전략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3. 불교기록문화유산의 지식의 아카이브 구현을 위한 과제

국내의 대표적인 불교기록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인 ABC는 방대한 양의 불교 문헌을 디지털화하여 제공하는 데 있어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문헌에 담긴 불교문화에 대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아카이빙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문헌의 정보화 중심으로 아카이빙이 이루어지면서, 문헌 속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의 정보화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는 '백과사전적 아카이브'라는 구상을 바탕으로 지식의 정보화를 위한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한국 문화 데이터 아카이브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식이 축적되고 소통될 수 있는 EKC Data Model을 설계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이 모델은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이 표현될 수 있는 기술 방법을 제시하고, 그 방법에 따라 지식의 정보망을 구현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지식의 효과적인 전달과 활용을 위해서 지식 정보망을 활용한 시맨틱 데이터의 스토리텔링 사례의 구현 방법을 보였다.

이상의 현황 분석과 선행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불교기록문화유산의 지식 아카이브 구현을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표 II-17】 지식의 아카이브 구현 전략과 본 연구의 구체적 과제

지식의 아카이브 구현 전략	불교기록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분야의 향후 과제	본 연구의 구체적 과제
지식의 축적·소통을 위한 데이터 모델	불교기록문화유산에 관한 지식의 기술 체계 설계	『범해선사유고』의 사례로 시맨틱 데이터 모델 설계
지식의 정보망 구현을 위한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불교기록문화유산에 관한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편찬	『범해선사유고』에 관한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편찬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시맨틱 데이터 스토리텔링	불교기록문화유산의 시맨틱 데이터 스토리텔링	『범해선사유고』의 시맨틱 데이터 스토리텔링
대상 세계에 관한 지식을 탐구하는 큐레이션 기반의 아카이빙		

불교기록문화유산에 관한 지식의 아카이브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는 1)불교기록문화유산에 관한 지식의 축적과 소통을 위한 기술 체계 설계, 2) 이를 바탕으로 지식의 정보망을 구현할 수 있는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편찬, 3) 그리고 지식의 아카이브의 기능적 측면에서 데이터의 활용과 지식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시맨틱 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의 스토리텔링 수행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상 세계에 관한 지식을 탐구하는 큐레이션 기반의 아카이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지식을 탐구하는 것은 단순히 대상 자원이나 세계에 관한 표면적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정보들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이다. 지식의 아카이브를 구현하는 일은 이러한 인문학적 탐구와 노력을 디지털 환경에서 체계화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후술하게 될 전략은 이러한 지식의 아카이브가 단지 구상에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1) 불교기록문화유산에 관한 지식의 기술 체계 설계

불교기록문화유산에 관한 지식의 아카이브를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일은, 불교기록문화유산에 담긴 지식을 디지털 환경에서 표현하기 위한 기술 체계, 즉 데이터 모델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러한 데이터 모델은 기록물에 담겨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기록하고 있는 불교문화, 역사, 사회 등의 면면과 관련된 정보를 의미적인 관계성에 기반하여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 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식의 아카이브 구현을 위하여 불교기록문화유산의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는 일은, 사실상 불교문화에 관한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즉 불교기록문화유산에 관한 지식의 기술 체계 설계의 주안점은 여러 유형의 불교기록문화유산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한국불교문화에 관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KC Data Model이 다양한 성격의 자료들을 한국문화라는 큰 틀 안에 관계적으로 조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듯이, 불교기록문화유산 데이터 모델도 불교문화의 다양한 자원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범해선사유고를 사례로 설계하는 것의 의미

2) 불교기록문화유산의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편찬

불교기록문화유산에 관한 지식의 아카이브 구현을 위한 두 번째 과제는, 불교기록문화유산에 관한 지식의 기술 체계에 따라서 개별 기록물에 관한 지식을 시맨틱 데이터로 기술하는 일이다. 이러한 시맨틱 데이터는 관계성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네트워크 데이터의 형태로 표현된다. 시맨틱 데이터베이스를 편찬하는 일은 불교기록문화유산에 관한 거대한 지식의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교기록문화유산에 관한 지식의 네트워크의 일부라 할 수 있는 범해선사유고에 관한 지식의 네트워크를 구현하고자 한다.

3) 불교기록문화유산 시맨틱 데이터의 스토리텔링

불교기록문화유산에 관한 지식의 아카이브 구현을 위한 세 번째 과제는, 시맨틱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불교문화의 흐름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다.

아카이브의 활용. 확장.

III. 대상 세계에 관한 지식의 탐색과 자원의 수집

1. 『범해선사유고』의 서지 정보 조사

1) 문집의 저자 범해 각안

범해 각안은 조선 후기 불교계의 중흥을 이끌었던 해남 대흥사에서 평생을 주석했던 승려였다.

대흥사가 불교계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청허 휴정의 의발이 대흥사에 전해지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청허 휴정에서 이어진 해동의 선종과 교종의 근본 사원이 되면서, 대흥사는 많은 승려들이 귀의하게 되었고 종풍이 번성하게 되었다.

특히 범해 각안이 생존했던 19세기의 대흥사는 안으로는 편양계를 중심으로 한 법맥을 공고히 하고 선과 교를 아우르는 강학의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밖으로는 해남 주변의 문인들과의 교유를 통해 유학에 관한 지식과 교유의 외연도 넓혀갔다.

초의 의순과 백파 긍선의 선 논쟁, 대둔사지 편찬, 12종사와 강사, 차 문화

범해 각안은 이러한 흐름의 한 가운데에 있었던 승려로서, 그의 저술에는 이러한 당대 사회의 면면들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

2) 문집의 간행 경위

현재 범해 각안의 문집은 1921년 해남 대흥사에서 『범해선사유고』라는 이름으로 발행한 간본이 전해진다. 문집은 상하권의 4권 2책으로 간행되었는데, 상권은 『범해 선사시집(梵海禪師詩集)』 2권과 『범해유집보유(梵海詩集補遺)』를 합침하여 1책으로 구성하였으며, 하권은 『범해선사문집(梵海禪師文集)』 2권을 1책으로 구성하였다.

『범해선사유고』의 편찬 경위에 관한 내용은 문집에 수록된 서문과跋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서문은 상권인 『범해선사시집』의 권두에 「범해시고서(梵海詩稿叙)」라는 이름으로 실려 있으며 1917년 염재거사(念齋居士) 송태회(宋泰會, 1872-1940)가 작성한 것이다.跋문은 하권인 『범해선사문집』의 권말에 「범해선사시집후跋(梵海禪師詩集後跋)」이라는 이름으로 실려 있으며 순천 송광사 승려 금명 보정(錦溟寶鼎, 1861-1930)이 1917년 4월에 작성하였다. 두 서跋문 모두 시집(詩集) 혹은 시고(詩稿)라 지칭하였는데, 시집과 구분하여 문집에 관한 서跋문이 별도로 작성된 것은 아니다.跋문의 내용에는 범해의 제자들로부터 4편 2권으로 되어 있는 초고를 받았다고 했으며²⁶⁾, “옛 편집의 체제를 따라서 책을 만들었다”²⁷⁾고 한 것으로 보아, 『범해

선사유고』는 처음부터 시집과 문집을 합편하여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져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범해선사유고』의 간행 경위

시기	내용	출전
1896년 12월 26일	범해각안 입적	행장
1916년 겨울	금명보정이 두륜산 장춘강원에서 머무는 중 범해각안의 법손 인월, 완월에게 문집 편찬을 의뢰받음	발문
1917년 봄	금명보정이 송태회에게 문집의 서문을 요청함	발문
1917년 봄	금명보정이 주완섭에게 문집의 등사를 명함	발문
1917년 3월	율암찬의가 범해각안 행장을 저술함	행장
1917년 늦봄	송태회가 길상산방에서 문집의 서문을 저술함	서문
1917년 4월 육불일	금명보정이 문집의 발문을 저술함	발문

범해 각안의 문집은 그의 입적 이후 20년이 지난 1916년 겨울에 이르러 간행 작업이 시작되었다. 범해 각안의 법손(法孫)인 인월(印月)과 완월(玩月) 두 승려는 두륜산 장춘강원(長春講院)에 머물고 있던 금명 보정을 찾아가 4편 2권짜리의 시문을 보여주며 문집의 편집을 부탁하였다. 여기서 장춘은 대홍사가 자리 잡은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두륜산 장춘강원은 해남 대홍사의 강원을 말한다. 금명 보정은 범해 각안으로부터 선(禪)과 교(敎)를 전해 받은 제자로²⁸⁾, 금명 보정의 행장에는 그가 1916년 1월 15일부터 이듬해 봄까지 대홍사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다.²⁹⁾ 당시 그는 대홍사에 머물면서 대홍사의 역대 고승들의 진영을 봉안한 보련각(寶蓮閣)에서 범해 각안의 진영에 예(禮)를 올리기도 했다.³⁰⁾

26) 梵海覺岸, 『梵海禪師遺稿』, 「梵海禪師詩集後跋」, “袖四扁二寫而示余曰。此即梵海先祖。禪餘寶唾。而未暇梓印。唯師閱而編之否。”, 범해 각안(저)/김재희(역), 『범해선사시집』, 동국대학교출판부, 2020, 380-381쪽.

27) 梵海覺岸, 『梵海禪師遺稿』, 「梵海禪師詩集後跋」, “即命小闋黎朱完燮。剋日寫了。仍舊扁而成帙之。”, 범해 각안(저)/김재희(역), 『범해선사시집』, 동국대학교출판부, 2020, 380-381쪽.

28) 梵海覺岸, 『梵海禪師遺稿』, 「梵海禪師行狀」, “禪教所傳。指可屈而得也。【敎傳圓應戒定。禪教并傳翠雲慧悟。犀海妙彥錦溟寶鼎栗庵讚儀等云。】”, 범해 각안(저)/김재희(역), 『범해선사문집』, 동국대학교출판부, 2020, 180-184쪽.

29) 錦溟寶鼎, 『茶松文稿』, 「行錄草」, “丙辰一月十五日赴海南郡大興寺。卽十二宗師闡化之地。寺風和融。法衆繁昌。丁巳一月十三日。又赴本山之請。寶所謂青春好還鄉者也。”, ‘茶松文稿卷第二’,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https://kabc.dongguk.edu/content/view?datId=ABC_BJ_H0315_T_002)

30) 梵海覺岸, 『梵海禪師遺稿』, 「梵海禪師詩集後跋」, “丙辰冬。禮禪師真於寶蓮閣裡。”, 범해 각안(저)/김재희(역), 『범해선사시집』, 동국대학교출판부, 2020, 380-381쪽.

1917년 봄 금명 보정은 조계산 송광사로 돌아와 지역의 저명한 문인인 송태회에게 문집의 서문 작성을 부탁하였으며, 자신의 제자인 주완섭(朱完燮)에게는 문집의 원래 편집 체제에 따라서 책을 등사하게 하였다. 1917년 4월 욕불일(浴佛日) 금명 보정은 문집의 발문을 작성하였다. 한편 같은 시기에 범해 각안의 행장도 저술되었다. 행장은 1917년 3월 범해 각안의 제자인 율암 찬의(栗庵讚儀, 1867-1929)가 작성하였으며, 「범해선사문집」의 권말에 수록되어 있다.³¹⁾

문집의 간행은 금명 보정을 중심으로 송광사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1909년 송광사에 근대학교인 보명학교가 설립되었는데³²⁾, 금명 보정은 학교의 교감을 역임하면서 불교와 한문을 가르쳤으며, 송태회는 보명학교의 교사로 재직했다. 주완섭은 1914년 3월 보명학교를 졸업하였으며, 4월 8일 금명 보정으로부터 구족계를 받았고, 송태회에게 유학을 배우기도 했다. 율암 찬의는 범해 각안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고, 송광사 원해(圓海)의 법인을 받고 송광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승려이다.

1917년 금명 보정의 발문 작성 이후 문집 간행에 관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는다. 현재 범해 각안의 문집은 1921년 해남 대흥사에서 『범해선사유고』라는 제목으로 발행한 것이 전해진다.

(추가: 금명 보정은 이후에 백열록을 편찬하는데 여기에 범해선사유고의 여러 시문이 수록되어 있다. 또 범해선사유고에는 없는 시문도 수록되어 있다.)

3) 문집의 구성

『범해선사유고』는 『범해선사시집』(상권)과 『범해선사문집』(하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범해선사시집』에는 292편의 시, 『범해선사문집』에는 74편의 산문이 수록되어 있다.

먼저 『범해선사시집』은 권두에 송태회가 지은 서문이 있으며, 권1에는 102편의 시, 권2에는 74편의 시, 보유편(補遺編)인 『범해유집보유』에는 116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시집은 권1은 칠언율시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권2에는 칠언율시 68편과 장편시 6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유편에는 시체(詩體)에 따라 장을 구분하였는데, 오

31) 동일한 내용의 행장이 『다송문고』 권1에 「梵海禪師行狀【丁巳春】」이라는 편명으로 수록되어 있다. '12.해남 대흥사 동국선원', 불교신문, 2006년 4월 14일. (

32) 대한매일신보(국한문), 1910년 4월 1일, 〈兩교雙進〉. “順天郡松廣寺에서는 普明學교를 設立하야 松光面과 聯結하고 仙巖寺에서 昇仙學교를 設立하야 教師를 延聘하고 生徒를 募集하야 热心教育한다더라”,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http://www.nl.go.kr/newspaper/>)

언절구 19편, 오언율시 19편, 칠언절구 56편, 칠언율시 22편이 수록되어 있다.

『범해선사문집』은 권1에 32편, 권2에 42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으며, 말미에 읊암찬의가 저술한 범해 각안의 행장과 금명 보정이 저술한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권1에는 기(記) 8편, 발(跋) 2편, 설(說) 5편, 변(辨) 3편, 논(論) 1편, 법문(法門) 1편, 명(銘) 6편, 찬(贊) 5편, 축(祝) 1편이 수록되어 있고, 권2에는 상량문(上梁文) 5편, 서(序) 19편, 모연 소(疏) 5편, 서(書) 12편, 예문(禮文) 1편이 수록되어 있다.

『범해선사유고』의 권차와 장별 편명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범해선사유고』의 구성

구분	권차	장	편명
	(서문)		梵海詩稿敍
상권 (시집)	권1 (102)		[시001]次石屋和尚山居詩, [시002]送金道巖, [시003]次趙信庵, [시004]次金湖隱, [시005]挽草衣禪師, [시006]十一庵號, [시007]和金錦史, [시008]送興雲禪伯, [시009]挽孫座首, [시010]-贈俊圓, [시011]次寬禪, [시012]和富昕, [시013]次在演, [시014]贈弼暄, [시015]戒仁學, [시016]送在煥, [시017]次泰演, [시018]送典毅, [시019]次海彥, [시020]答善裕, [시021]賀處耘, [시022]別應玄, [시023]贈永淳, [시024]贈英俊, [시025]答進學, [시026]贈環華, [시027]贈永贊, [시028]和鄭痴隱, [시029]與崔林姜共和, [시030]與崔林姜共次羅云淸潭韻, [시031]到雙溪, [시032]溪寺興感, [시033]遊漱玉溪, [시034]題龍岳師詩軸, [시035]題觀音窟, [시036]院湖觀稅船, [시037]芭蕉花, [시038]送蔡靈巖, [시039]超瘡, [시040]次姜梅塢韻, [시041]挽瑞律母趙氏, [시042]挽安山林, [시043]訓正己, [시044]挽李鶴峯, [시045]挽金護軍, [시046]次七星庵韻, [시047]越瀛海, [시048]姜龍雲求詩, [시049]三姓穴, [시050]次戀宸閣韻, [시051]大靜懷古, [시052]次旌義東軒韻, [시053]次戀北亭金淸陰先生韻, [시054]與戒定開士, [시055]過弓裔城, [시056]次天保樓韻, [시057]次花巖寺韻, [시058]一爐香室, [시059]紫微花, [시060]謹次申白坡先生贈韻, [시061]白坡松坡兩老共上北庵拈韻, [시062]挽仁湖金斯人, [시063]客隱跡, [시064]自嘆聯句, [시065]和黃磻溪, [시066]次金玉山進士, [시067]結制獨坐, [시068]題紙船, [시069]夜渡碧波, [시070]送金構庵, [시071]題雙溪, [시072]次誕報廟板上韻, [시073]次曹溪庵板上韻, [시074]募緣行, [시075]府使白兼山冊室白茶泉許小痴共遊溪寺, [시076]贈奇衍上人, [시077]和李松坡, [시078]降仙臺, [시079]憶東野, [시080]寄廣信, [시081]尾扇, [시082]與善愚, [시083]題隱跡寺, [시084]追挽影山禪伯, [시085]木念珠頌, [시086]陪繡衣沈蘭沼, [시087]送金道巖, [시088]送金玉山, [시089]送金構庵, [시090]送金道巖, [시091]送金玉山, [시092]送金構庵, [시093]送金道巖, [시094]送金玉山, [시095]送金構庵, [시096]送金道巖, [시097]送金玉山, [시098]送金構庵, [시099]送金道巖, [시100]送金玉山, [시101]送金構庵, [시102]送金道巖, [시103]送金玉山, [시104]送金構庵, [시105]送金道巖, [시106]送金玉山, [시107]送金構庵, [시108]送金道巖, [시109]送金玉山, [시110]送金構庵, [시111]送金道巖, [시112]送金玉山, [시113]送金構庵, [시114]送金道巖, [시115]送金玉山, [시116]送金構庵, [시117]送金道巖, [시118]送金玉山, [시119]送金構庵, [시120]送金道巖, [시121]送金玉山, [시122]送金構庵, [시123]送金道巖, [시124]送金玉山, [시125]送金構庵, [시126]送金道巖, [시127]送金玉山, [시128]送金構庵, [시129]送金道巖, [시130]送金玉山, [시131]送金構庵, [시132]送金道巖, [시133]送金玉山, [시134]送金構庵, [시135]送金道巖, [시136]送金玉山, [시137]送金構庵, [시138]送金道巖, [시139]送金玉山, [시140]送金構庵, [시141]送金道巖, [시142]送金玉山, [시143]送金構庵, [시144]送金道巖, [시145]送金玉山, [시146]送金構庵, [시147]送金道巖, [시148]送金玉山, [시149]送金構庵, [시150]送金道巖, [시151]送金玉山, [시152]送金構庵, [시153]送金道巖, [시154]送金玉山, [시155]送金構庵, [시156]送金道巖, [시157]送金玉山, [시158]送金構庵, [시159]送金道巖, [시160]送金玉山, [시161]送金構庵, [시162]送金道巖, [시163]送金玉山, [시164]送金構庵, [시165]送金道巖, [시166]送金玉山, [시167]送金構庵, [시168]送金道巖, [시169]送金玉山, [시170]送金構庵, [시171]送金道巖, [시172]送金玉山, [시173]送金構庵, [시174]送金道巖, [시175]送金玉山, [시176]送金構庵, [시177]送金道巖, [시178]送金玉山, [시179]送金構庵, [시180]送金道巖, [시181]送金玉山, [시182]送金構庵, [시183]送金道巖, [시184]送金玉山, [시185]送金構庵, [시186]送金道巖, [시187]送金玉山, [시188]送金構庵, [시189]送金道巖, [시190]送金玉山, [시191]送金構庵, [시192]送金道巖, [시193]送金玉山, [시194]送金構庵, [시195]送金道巖, [시196]送金玉山, [시197]送金構庵, [시198]送金道巖, [시199]送金玉山, [시200]送金構庵, [시201]送金道巖, [시202]送金玉山, [시203]送金構庵, [시204]送金道巖, [시205]送金玉山, [시206]送金構庵, [시207]送金道巖, [시208]送金玉山, [시209]送金構庵, [시210]送金道巖, [시211]送金玉山, [시212]送金構庵, [시213]送金道巖, [시214]送金玉山, [시215]送金構庵, [시216]送金道巖, [시217]送金玉山, [시218]送金構庵, [시219]送金道巖, [시220]送金玉山, [시221]送金構庵, [시222]送金道巖, [시223]送金玉山, [시224]送金構庵, [시225]送金道巖, [시226]送金玉山, [시227]送金構庵, [시228]送金道巖, [시229]送金玉山, [시230]送金構庵, [시231]送金道巖, [시232]送金玉山, [시233]送金構庵, [시234]送金道巖, [시235]送金玉山, [시236]送金構庵, [시237]送金道巖, [시238]送金玉山, [시239]送金構庵, [시240]送金道巖, [시241]送金玉山, [시242]送金構庵, [시243]送金道巖, [시244]送金玉山, [시245]送金構庵, [시246]送金道巖, [시247]送金玉山, [시248]送金構庵, [시249]送金道巖, [시250]送金玉山, [시251]送金構庵, [시252]送金道巖, [시253]送金玉山, [시254]送金構庵, [시255]送金道巖, [시256]送金玉山, [시257]送金構庵, [시258]送金道巖, [시259]送金玉山, [시260]送金構庵, [시261]送金道巖, [시262]送金玉山, [시263]送金構庵, [시264]送金道巖, [시265]送金玉山, [시266]送金構庵, [시267]送金道巖, [시268]送金玉山, [시269]送金構庵, [시270]送金道巖, [시271]送金玉山, [시272]送金構庵, [시273]送金道巖, [시274]送金玉山, [시275]送金構庵, [시276]送金道巖, [시277]送金玉山, [시278]送金構庵, [시279]送金道巖, [시280]送金玉山, [시281]送金構庵, [시282]送金道巖, [시283]送金玉山, [시284]送金構庵, [시285]送金道巖, [시286]送金玉山, [시287]送金構庵, [시288]送金道巖, [시289]送金玉山, [시290]送金構庵, [시291]送金道巖, [시292]送金玉山, [시293]送金構庵, [시294]送金道巖, [시295]送金玉山, [시296]送金構庵, [시297]送金道巖, [시298]送金玉山, [시299]送金構庵, [시300]送金道巖, [시301]送金玉山, [시302]送金構庵, [시303]送金道巖, [시304]送金玉山, [시305]送金構庵, [시306]送金道巖, [시307]送金玉山, [시308]送金構庵, [시309]送金道巖, [시310]送金玉山, [시311]送金構庵, [시312]送金道巖, [시313]送金玉山, [시314]送金構庵, [시315]送金道巖, [시316]送金玉山, [시317]送金構庵, [시318]送金道巖, [시319]送金玉山, [시320]送金構庵, [시321]送金道巖, [시322]送金玉山, [시323]送金構庵, [시324]送金道巖, [시325]送金玉山, [시326]送金構庵, [시327]送金道巖, [시328]送金玉山, [시329]送金構庵, [시330]送金道巖, [시331]送金玉山, [시332]送金構庵, [시333]送金道巖, [시334]送金玉山, [시335]送金構庵, [시336]送金道巖, [시337]送金玉山, [시338]送金構庵, [시339]送金道巖, [시340]送金玉山, [시341]送金構庵, [시342]送金道巖, [시343]送金玉山, [시344]送金構庵, [시345]送金道巖, [시346]送金玉山, [시347]送金構庵, [시348]送金道巖, [시349]送金玉山, [시350]送金構庵, [시351]送金道巖, [시352]送金玉山, [시353]送金構庵, [시354]送金道巖, [시355]送金玉山, [시356]送金構庵, [시357]送金道巖, [시358]送金玉山, [시359]送金構庵, [시360]送金道巖, [시361]送金玉山, [시362]送金構庵, [시363]送金道巖, [시364]送金玉山, [시365]送金構庵, [시366]送金道巖, [시367]送金玉山, [시368]送金構庵, [시369]送金道巖, [시370]送金玉山, [시371]送金構庵, [시372]送金道巖, [시373]送金玉山, [시374]送金構庵, [시375]送金道巖, [시376]送金玉山, [시377]送金構庵, [시378]送金道巖, [시379]送金玉山, [시380]送金構庵, [시381]送金道巖, [시382]送金玉山, [시383]送金構庵, [시384]送金道巖, [시385]送金玉山, [시386]送金構庵, [시387]送金道巖, [시388]送金玉山, [시389]送金構庵, [시390]送金道巖, [시391]送金玉山, [시392]送金構庵, [시393]送金道巖, [시394]送金玉山, [시395]送金構庵, [시396]送金道巖, [시397]送金玉山, [시398]送金構庵, [시399]送金道巖, [시400]送金玉山, [시401]送金構庵, [시402]送金道巖, [시403]送金玉山, [시404]送金構庵, [시405]送金道巖, [시406]送金玉山, [시407]送金構庵, [시408]送金道巖, [시409]送金玉山, [시410]送金構庵, [시411]送金道巖, [시412]送金玉山, [시413]送金構庵, [시414]送金道巖, [시415]送金玉山, [시416]送金構庵, [시417]送金道巖, [시418]送金玉山, [시419]送金構庵, [시420]送金道巖, [시421]送金玉山, [시422]送金構庵, [시423]送金道巖, [시424]送金玉山, [시425]送金構庵, [시426]送金道巖, [시427]送金玉山, [시428]送金構庵, [시429]送金道巖, [시430]送金玉山, [시431]送金構庵, [시432]送金道巖, [시433]送金玉山, [시434]送金構庵, [시435]送金道巖, [시436]送金玉山, [시437]送金構庵, [시438]送金道巖, [시439]送金玉山, [시440]送金構庵, [시441]送金道巖, [시442]送金玉山, [시443]送金構庵, [시444]送金道巖, [시445]送金玉山, [시446]送金構庵, [시447]送金道巖, [시448]送金玉山, [시449]送金構庵, [시450]送金道巖, [시451]送金玉山, [시452]送金構庵, [시453]送金道巖, [시454]送金玉山, [시455]送金構庵, [시456]送金道巖, [시457]送金玉山, [시458]送金構庵, [시459]送金道巖, [시460]送金玉山, [시461]送金構庵, [시462]送金道巖, [시463]送金玉山, [시464]送金構庵, [시465]送金道巖, [시466]送金玉山, [시467]送金構庵, [시468]送金道巖, [시469]送金玉山, [시470]送金構庵, [시471]送金道巖, [시472]送金玉山, [시473]送金構庵, [시474]送金道巖, [시475]送金玉山, [시476]送金構庵, [시477]送金道巖, [시478]送金玉山, [시479]送金構庵, [시480]送金道巖, [시481]送金玉山, [시482]送金構庵, [시483]送金道巖, [시484]送金玉山, [시485]送金構庵, [시486]送金道巖, [시487]送金玉山, [시488]送金構庵, [시489]送金道巖, [시490]送金玉山, [시491]送金構庵, [시492]送金道巖, [시493]送金玉山, [시494]送金構庵, [시495]送金道巖, [시496]送金玉山, [시497]送金構庵, [시498]送金道巖, [시499]送金玉山, [시500]送金構庵, [시501]送金道巖, [시502]送金玉山, [시503]送金構庵, [시504]送金道巖, [시505]送金玉山, [시506]送金構庵, [시507]送金道巖, [시508]送金玉山, [시509]送金構庵, [시510]送金道巖, [시511]送金玉山, [시512]送金構庵, [시513]送金道巖, [시514]送金玉山, [시515]送金構庵, [시516]送金道巖, [시517]送金玉山, [시518]送金構庵, [시519]送金道巖, [시520]送金玉山, [시521]送金構庵, [시522]送金道巖, [시523]送金玉山, [시524]送金構庵, [시525]送金道巖, [시526]送金玉山, [시527]送金構庵, [시528]送金道巖, [시529]送金玉山, [시530]送金構庵, [시531]送金道巖, [시532]送金玉山, [시533]送金構庵, [시534]送金道巖, [시535]送金玉山, [시536]送金構庵, [시537]送金道巖, [시538]送金玉山, [시539]送金構庵, [시540]送金道巖, [시541]送金玉山, [시542]送金構庵, [시543]送金道巖, [시544]送金玉山, [시545]送金構庵, [시546]送金道巖, [시547]送金玉山, [시548]送金構庵, [시549]送金道巖, [시550]送金玉山, [시551]送金構庵, [시552]送金道巖, [시553]送金玉山, [시554]送金構庵, [시555]送金道巖, [시556]送金玉山, [시557]送金構庵, [시558]送金道巖, [시559]送金玉山, [시560]送金構庵, [시561]送金道巖, [시562]送金玉山, [시563]送金構庵, [시564]送金道巖, [시565]送金玉山, [시566]送金構庵, [시567]送金道巖, [시568]送金玉山, [시569]送金構庵, [시570]送金道巖, [시571]送金玉山, [시572]送金構庵, [시573]送金道巖, [시574]送金玉山, [시575]送金構庵, [시576]送金道巖, [시577]送金玉山, [시578]送金構庵, [시579]送金道巖, [시580]送金玉山, [시581]送金構庵, [시582]送金道巖, [시583]送金玉山, [시584]送金構庵, [시585]送金道巖, [시586]送金玉山, [시587]送金構庵, [시588]送金道巖, [시589]送金玉山, [시590]送金構庵, [시591]送金道巖, [시592]送金玉山, [시593]送金構庵, [시594]送金道巖, [시595]送金玉山, [시596]送金構庵, [시597]送金道巖, [시598]送金玉山, [시599]送金構庵, [시600]送金道巖, [시601]送金玉山, [시602]送金構庵, [시603]送金道巖, [시604]送金玉山, [시605]送金構庵, [시606]送金道巖, [시607]送金玉山, [시608]送金構庵, [시609]送金道巖, [시610]送金玉山, [시611]送金構庵, [시612]送金道巖, [시613]送金玉山, [시614]送金構庵, [시615]送金道巖, [시616]送金玉山, [시617]送金構庵, [시618]送金道巖, [시619]送金玉山, [시620]送金構庵, [시621]送金道巖, [시622]送金玉山, [시623]送金構庵, [시624]送金道巖, [시625]送金玉山, [시626]送金構庵, [시627]送金道巖, [시628]送金玉山, [시629]送金構庵, [시630]送金道巖, [시631]送金玉山, [시632]送金構庵, [시633]送金道巖, [시634]送金玉山, [시635]送金構庵, [시636]送金道巖, [시637]送金玉山, [시638]送金構庵, [시639]送金道巖, [시640]送金玉山, [시641]送金構庵, [시642]送金道巖, [시643]送金玉山, [시644]送金構庵, [시645]送金道巖, [시646]送金玉山, [시647]送金構庵, [시648]送金道巖, [시649]送金玉山, [시650]送金構庵, [시651]送金道巖, [시652]送金玉山, [시653]送金構庵, [시654]送金道巖, [시655]送金玉山, [시656]送金構庵, [시657]送金道巖, [시658]送金玉山, [시659]送金構庵, [시660]送金道巖, [시661]送金玉山, [시662]送金構庵, [시663]送金道巖, [시664]送金玉山, [시665]送金構庵, [시666]送金道巖, [시667]送金玉山, [시668]送金構庵, [시669]送金道巖, [시670]送金玉山, [시671]送金構庵, [시672]送金道巖, [시673]送金玉山, [시674]送金構庵, [시675]送金道巖, [시676]送金玉山, [시677]送金構庵, [시678]送金道巖, [시679]送金玉山, [시680]送金構庵, [시681]送金道巖, [시682]送金玉山, [시683]送金構庵, [시684]送金道巖, [시685]送金玉山, [시686]送金構庵, [시687]送金道巖, [시688]送金玉山, [시689]送金構庵, [시690]送金道巖, [시691]送金玉山, [시692]送金構庵, [시693]送金道巖, [시694]送金玉山, [시695]送金構庵, [시696]送金道巖, [시697]送金玉山, [시698]送金構庵, [시699]送金道巖, [시700]送金玉山, [시701]送金構庵, [시702]送金道巖, [시703]送金玉山, [시704]送金構庵, [시705]送金道巖, [시706]送金玉山, [시707]送金構庵, [시708]送金道巖, [시709]送金玉山, [시710]送金構庵, [시711]送金道巖, [시712]送金玉山, [시713]送金構庵, [시714]送金道巖, [시715]送金玉山, [시716]送金構庵, [시717]送金道巖, [시718]送金玉山, [시719]送金構庵, [시720]送金道巖, [시721]送金玉山, [시722]送金構庵, [시723]送金道巖, [시724]送金玉山, [시725]送金構庵, [시726]送金道巖, [시727]送金玉山, [시728]送金構庵, [시729]送金道巖, [시730]送金玉山, [시731]送金構庵, [시732]送金道巖, [시733]送金玉山, [시734]送金構庵, [시735]送金道巖, [시736]送金玉山, [시737]送金構庵, [시738]送金道巖, [시739]送金玉山, [시740]送金構庵, [시741]送金道巖, [시742]送金玉山, [시743]送金構庵, [시744]送金道巖, [시745]送金玉山, [시746]送金構庵, [시747]送金道巖, [시748]送金玉山, [시749]送金構庵, [시750]送金道巖, [시751]送金玉山, [시752]送金構庵, [시753]送金道巖, [시754]送金玉山, [시755]送金構庵, [시756]送金道巖, [시757]送金玉山, [시758]送金構庵, [시759]送金道巖, [시760]送金玉山, [시761]送金構庵, [시762]送金道巖, [시763]送金玉山, [시764]送金構庵, [시765]送金道巖, [시766]送金玉山, [시767]送金構庵, [시768]送金道巖, [시769]送金玉山, [시770]送金構庵, [시771]送金道巖, [시772]送金玉山, [시773]送金構庵, [시774]送金道巖, [시775]送金玉山, [시776]送金構庵, [시777]送金道巖, [시778]送金玉山, [시779]送金構庵, [시780]送金道巖, [시781]送金玉山, [시782]送金構庵, [시783]送金道巖, [시784]送金玉山, [시785]送金構庵, [시786]送金道巖, [시787]送金玉山, [시788]送金構庵, [시789]送金道巖, [시790]送金玉山, [시791]送金構庵, [시792]送金道巖, [시793]送金玉山, [시794]送金構庵, [시795]送金道巖, [시796]送金玉山, [시797]送金構庵, [시798]送金道巖, [시799]送金玉山, [시800]送金構庵, [시801]送金道巖, [시802]送金玉山, [시803]送金構庵, [시804]送金道巖, [시805]送金玉山, [시806]送金構庵, [시807]送金道巖, [시808]送金玉山, [시809]送金構庵, [시810]送金道巖, [시811]送金玉山, [시812]送金構庵, [시813]送金道巖, [시814]送金玉山, [시815]送金構庵, [시816]送金道巖, [시817]送金玉山, [시818]送金構庵, [시819]送金道巖, [시820]送金玉山, [시821]送金構庵, [시822]送金道巖, [시823]送金玉山, [시824]送金構庵, [시825]送金道巖, [시826]送金玉山, [시827]送金構庵, [시828]送金道巖, [시829]送金玉山, [시830]送金構庵, [시831]送金道巖, [시832]送金玉山, [시833]送金構庵, [시834]送金道巖, [시835]送金玉山, [시836]送金構庵, [시837]送金道巖, [시838]送金玉山, [시839]送金構庵, [시840]送金道巖, [시841]送金玉山, [시842]送金構庵, [시843]送金道巖, [시844]送金玉山, [시845]送金構庵, [시846]送金道巖, [시847]送金玉山, [시848]送金構庵, [시849]送金道巖, [시850]送金玉山, [시851]送金構庵, [시852]送金道巖, [시853]送金玉山, [시854]送金構庵, [시855]送金道巖, [시856]送金玉山, [시857]送金構庵, [시858]送金道巖, [시859]送金玉山, [시860]送金構庵, [시861]送金道巖, [시862]送金玉山, [시863]送金構庵, [시864]送金道巖, [시865]送金玉山, [시866]送金構庵, [시867]送金道巖, [시868]送金玉山, [시869]送金構庵, [시870]送金道巖, [시871]送金玉山, [시872]送金構庵, [시873]送金道巖, [시874]送金玉山, [시875]送金構庵, [시876]送金道巖, [시877]送金玉山, [시878]送金構庵, [시879]送金道巖, [시880]送金玉山, [시881]送金構庵, [시882]送金道巖, [시883]送金玉山, [시884]送金構庵, [시885]送金道巖, [시886]送金玉山, [시887]送金構庵, [시888]送金道巖, [시889]送金玉山, [시890]送金構庵, [시891]送金道巖, [시892]送金玉山, [시893]送金構庵, [시894]送金道巖, [시895]送金玉山, [시896]送金構庵, [시897]送金道巖, [시898]送金玉山, [시899]送金構庵, [시900]送金道巖, [시901]送金玉山, [시902]送金構庵, [시903]送金道巖, [시904]送金玉山, [시905]送金構庵, [시906]送金道巖, [시907]送金玉山, [시908]送金構庵, [시909]送金道巖, [시910]送金玉山, [시911]送金構庵, [시912]送金道巖, [시913]送金玉山, [시914]送金構庵, [시915]送金道巖, [시916]送金玉山, [시917]送金構庵, [시918]送金道巖, [시919]送金玉山, [시920]送金構庵, [시

구분	권차	장	편명
권2 (74)			7]次對月樓韻, [시 088]與梁栢塢共和, [시 089]次觀湖齋韻, [시 090]挽應化講主, [시 091]次栢塢齋韻, [시 092]贈奇雲上人, [시 093]贈圓海講伯, [시 094]贈寶鼎上人, [시 095]端陽, [시 096]送法海長老歸昇州, [시 097]贈清峰長老, [시 098]挽無爲兄, [시 099]九曲, [시 100]九臺, [시 101]贈奇正上人, [시 102]上見性庵謹次李御使敦相韻
			[시 103]木槧子千念佛, [시 104]和漢陽安期仙, [시 105]無說泉, [시 106]贈奉和, [시 107]贈在玄, [시 108]贈謹學, [시 109]與贊敏小師, [시 110]贈東一上人, [시 111]贈翼雲上人, [시 112]次雲圃李詞伯韻, [시 113]居赤蓮庵, [시 114]挽李松坡, [시 115]映山花, [시 116]和曹詞伯韻, [시 117]題快年閣, [시 118]和尹松下, [시 119]瀛洲十景, [시 120]頭輪十景, [시 121]贈曹仁祚, [시 122]贈處鑑上人, [시 123]奉別劉韋溪, [시 124]贈在允上人, [시 125]別應河, [시 126]題梵海堂, [시 127]廉客張裨將金學官共和, [시 128]法翰上人, [시 129]讚儀上人, [시 130]說法華經, [시 131]讚維摩經, [시 132]訪北庵, [시 133]贈天祐, [시 134]次謹煥軸韻, [시 135]次謹浩軸韻, [시 136]次尹海臯韻, [시 137]次崔石痴韻, [시 138]和水相李公容觀韻, [시 139]唱和水相圭泰南庵拈韻, [시 140]奉和水相韻, [시 141]次題雲潭長老潭韻, [시 142]贈洪波上人, [시 143]次崔石痴, [시 144]贈錫幸上人, [시 145]唱和閔公, [시 146]遺敬元, [시 147]遺仁和, [시 148]送仁正驅烏沙彌, [시 149]與順和行脚, [시 150]次金晚翠贈韻, [시 151]謹次朴蘆河贈韻, [시 152]寄千雅士, [시 153]挽曹萬戶, [시 154]贈晦光長老, [시 155]挽月如禪伯, [시 156]挽青霞長老, [시 157]別林南臯田松村, [시 158]快年閣庭映山紅, [시 159]謹次曹視察使遊山韻, [시 160]贈朴梅溪, [시 161]和趙杏綻尹白隱月夜韻, [시 162]和崔裕齋金小雲金米舫, [시 163]思行英, [시 164]次題延淳軸, [시 165]次泰愚上人韻, [시 166]贈志運上人, [시 167]和金松南霖雨韻, [시 168]送綺紋師, [시 169]再居古庵, [시 170]逢朴處士
		고풍장편 (6)	[시 171]三衣歌, [시 172]得瓜興感, [시 173]貫碑浮屠, [시 174]人物歌, [시 175]山水歌, [시 176]茶歌
범해 유집 보유 (116)	오언절구 (19)		[시 177]立玩虎祖師碑, [시 178]興感, [시 179]講席, [시 180]院湖大風, [시 181]丙寅怨, [시 182]濟州大靜郡桃源里途中, [시 183]南原關王廟, [시 184]廣寒樓, [시 185]秋日獨坐, [시 186]憶銀海寺白興庵武治上人, [시 187]宿莞島院洞, [시 188]珍島郡鳥島, [시 189]玉島, [시 190]石南島, [시 191]秋牧丹, [시 192]蘿草, [시 193]黃橘, [시 194]閱仙巖寺大覺國師集, [시 195]述懷回文
	오언율시 (19)		[시 196]贈許萬澤, [시 197]枕溪樓, [시 198]松廣寺臨鏡堂, [시 199]草衣茶, [시 200]學箴十韻, [시 201]南臺秋觀, [시 202]送下台島尹

구분	권차	장	편명
칠언절구 (56)	칠언율사 (22)		成文, [시 203]贈順成上人歸釋王寺, [시 204]暮歸, [시 205]建除體, [시 206]八音體, [시 207]映山紅, [시 208]牡丹花, [시 209]玉梅花, [시 210]夜鳥鳴, [시 211]挽日庵, [시 212]再入寶運閣, [시 213]題眞篋, [시 214]甫吉島書巖
			[시 215]讀史紀, [시 216]過首露王陵, [시 217]通度寺慈藏窟金蛙, [시 218]七夕, [시 219]漁父, [시 220]頭輪峰, [시 221]題風, [시 222]井魚, [시 223]嘲金汝鍾, [시 224]太平花, [시 225]鳳仙花, [시 226]錦囊花, [시 227]清虛集, [시 228]諫臣論, [시 229]見家語失弓, [시 230]家鷄, [시 231]山雉, [시 232]拄杖子, [시 233]別桐裏寺弼演上人, [시 234]挽日庵雜咏, [시 235]和金乃烈, [시 236]秋分, [시 237]和金雲翁先生, [시 238]雪中行, [시 239]南彌勒雜詠, [시 240]江東沙亭, [시 241]花塢雜咏, [시 242]和朴愚谷, [시 243]宿洪海店, [시 244]贈尚州枕山李處士, [시 245]入濟州, [시 246]浴涯月鎮明泉, [시 247]大靜山房窟寺, [시 248]金剛山摩訶衍, [시 249]京畿德寺庸庵和尚, [시 250]白蓮社萬景樓, [시 251]共申白坡先生登北臺, [시 252]宿金島, [시 253]處暑旱雨, [시 254]示金龍, [시 255]題草衣長老畫十八羅漢圖, [시 256]題章教二經合部, [시 257]題四十二經科評, [시 258]題遺教經科評, [시 259]題警策文科評, [시 260]三經合部科記回向, [시 261]題許小痴恠石圖, [시 262]挽錦月和尚, [시 263]挽南坡和尚, [시 264]和張藍史, [시 265]贈在允沙彌四威儀頌, [시 266]足映山紅生地黃落句, [시 267]過慶尚鎮海, [시 268]河東七佛菴, [시 269]恩津觀燭, [시 270]綾州運舟洞
			[시 271]頭輪山月歌, [시 272]珍島峯火, [시 273]萱草, [시 274]送道岬寺大雲上人, [시 275]長興寶林寺, [시 276]頭輪山碑殿, [시 277]送珍島金龍殷, [시 278]謹次挽日庵艸衣師韻, [시 279]拱北臺, [시 280]鎮南臺, [시 281]海南倅李東樓冊室丁維桑登北庵共和, [시 282]挽鐵船和尚, [시 283]美黃寺上岫菴, [시 284]成道菴, [시 285]晋州廳石樓, [시 286]渡濟州放船, [시 287]濟州觀德亭, [시 288]稷山弘慶寺, [시 289]全州甄萱城, [시 290]同福勿染亭, [시 291]南固寺萬景臺, [시 292]康津白蓮社
하권 (문집)	권1 (32)		[문001]雌雄鐘記, [문002]隱跡庵山神閣創建記, [문003]花供養記, [문004]清海觀音庵山神閣創建記, [문005]沃州雙溪寺重脩記, [문006]老人星記, [문007]大菴寺志畧記, [문008]千佛造成畧記, [문009]受菩薩戒牒跋, [문010]四十二章經評科跋, [문011]茶藥說, [문012]鵲巢水田說, [문013]逐蛇峙說, [문014]美黃靈虛化行說, [문015]順天朱黔突大同色說, [문016]能見難思辨, [문017]阿育王塔辨, [문018]曲直辨, [문019]五種決疑論, [문020]大乘戒法門, [문021]茶具銘, [문022]行藏銘, [문023]竹籠銘, [문024]木鐸銘, [문025]茶具銘, [문026]行藏銘, [문027]竹籠銘, [문028]木鐸銘, [문029]茶具銘, [문030]行藏銘, [문031]竹籠銘, [문032]木鐸銘, [문033]茶具銘, [문034]行藏銘, [문035]竹籠銘, [문036]木鐸銘, [문037]茶具銘, [문038]行藏銘, [문039]竹籠銘, [문040]木鐸銘, [문041]茶具銘, [문042]行藏銘, [문043]竹籠銘, [문044]木鐸銘, [문045]茶具銘, [문046]行藏銘, [문047]竹籠銘, [문048]木鐸銘, [문049]茶具銘, [문050]行藏銘, [문051]竹籠銘, [문052]木鐸銘, [문053]茶具銘, [문054]行藏銘, [문055]竹籠銘, [문056]木鐸銘, [문057]茶具銘, [문058]行藏銘, [문059]竹籠銘, [문060]木鐸銘, [문061]茶具銘, [문062]行藏銘, [문063]竹籠銘, [문064]木鐸銘, [문065]茶具銘, [문066]行藏銘, [문067]竹籠銘, [문068]木鐸銘, [문069]茶具銘, [문070]行藏銘, [문071]竹籠銘, [문072]木鐸銘, [문073]茶具銘, [문074]行藏銘, [문075]竹籠銘, [문076]木鐸銘, [문077]茶具銘, [문078]行藏銘, [문079]竹籠銘, [문080]木鐸銘, [문081]茶具銘, [문082]行藏銘, [문083]竹籠銘, [문084]木鐸銘, [문085]茶具銘, [문086]行藏銘, [문087]竹籠銘, [문088]木鐸銘, [문089]茶具銘, [문090]行藏銘, [문091]竹籠銘, [문092]木鐸銘, [문093]茶具銘, [문094]行藏銘, [문095]竹籠銘, [문096]木鐸銘, [문097]茶具銘, [문098]行藏銘, [문099]竹籠銘, [문100]木鐸銘, [문101]茶具銘, [문102]行藏銘, [문103]竹籠銘, [문104]木鐸銘, [문105]茶具銘, [문106]行藏銘, [문107]竹籠銘, [문108]木鐸銘, [문109]茶具銘, [문110]行藏銘, [문111]竹籠銘, [문112]木鐸銘, [문113]茶具銘, [문114]行藏銘, [문115]竹籠銘, [문116]木鐸銘, [문117]茶具銘, [문118]行藏銘, [문119]竹籠銘, [문120]木鐸銘, [문121]茶具銘, [문122]行藏銘, [문123]竹籠銘, [문124]木鐸銘, [문125]茶具銘, [문126]行藏銘, [문127]竹籠銘, [문128]木鐸銘, [문129]茶具銘, [문130]行藏銘, [문131]竹籠銘, [문132]木鐸銘, [문133]茶具銘, [문134]行藏銘, [문135]竹籠銘, [문136]木鐸銘, [문137]茶具銘, [문138]行藏銘, [문139]竹籠銘, [문140]木鐸銘, [문141]茶具銘, [문142]行藏銘, [문143]竹籠銘, [문144]木鐸銘, [문145]茶具銘, [문146]行藏銘, [문147]竹籠銘, [문148]木鐸銘, [문149]茶具銘, [문150]行藏銘, [문151]竹籠銘, [문152]木鐸銘, [문153]茶具銘, [문154]行藏銘, [문155]竹籠銘, [문156]木鐸銘, [문157]茶具銘, [문158]行藏銘, [문159]竹籠銘, [문160]木鐸銘, [문161]茶具銘, [문162]行藏銘, [문163]竹籠銘, [문164]木鐸銘, [문165]茶具銘, [문166]行藏銘, [문167]竹籠銘, [문168]木鐸銘, [문169]茶具銘, [문170]行藏銘, [문171]竹籠銘, [문172]木鐸銘, [문173]茶具銘, [문174]行藏銘, [문175]竹籠銘, [문176]木鐸銘, [문177]茶具銘, [문178]行藏銘, [문179]竹籠銘, [문180]木鐸銘, [문181]茶具銘, [문182]行藏銘, [문183]竹籠銘, [문184]木鐸銘, [문185]茶具銘, [문186]行藏銘, [문187]竹籠銘, [문188]木鐸銘, [문189]茶具銘, [문190]行藏銘, [문191]竹籠銘, [문192]木鐸銘, [문193]茶具銘, [문194]行藏銘, [문195]竹籠銘, [문196]木鐸銘, [문197]茶具銘, [문198]行藏銘, [문199]竹籠銘, [문200]木鐸銘, [문201]茶具銘, [문202]行藏銘, [문203]竹籠銘, [문204]木鐸銘, [문205]茶具銘, [문206]行藏銘, [문207]竹籠銘, [문208]木鐸銘, [문209]茶具銘, [문210]行藏銘, [문211]竹籠銘, [문212]木鐸銘, [문213]茶具銘, [문214]行藏銘, [문215]竹籠銘, [문216]木鐸銘, [문217]茶具銘, [문218]行藏銘, [문219]竹籠銘, [문220]木鐸銘, [문221]茶具銘, [문222]行藏銘, [문223]竹籠銘, [문224]木鐸銘, [문225]茶具銘, [문226]行藏銘, [문227]竹籠銘, [문228]木鐸銘, [문229]茶具銘, [문230]行藏銘, [문231]竹籠銘, [문232]木鐸銘, [문233]茶具銘, [문234]行藏銘, [문235]竹籠銘, [문236]木鐸銘, [문237]茶具銘, [문238]行藏銘, [문239]竹籠銘, [문240]木鐸銘, [문241]茶具銘, [문242]行藏銘, [문243]竹籠銘, [문244]木鐸銘, [문245]茶具銘, [문246]行藏銘, [문247]竹籠銘, [문248]木鐸銘, [문249]茶具銘, [문250]行藏銘, [문251]竹籠銘, [문252]木鐸銘, [문253]茶具銘, [문254]行藏銘, [문255]竹籠銘, [문256]木鐸銘, [문257]茶具銘, [문258]行藏銘, [문259]竹籠銘, [문260]木鐸銘, [문261]茶具銘, [문262]行藏銘, [문263]竹籠銘, [문264]木鐸銘, [문265]茶具銘, [문266]行藏銘, [문267]竹籠銘, [문268]木鐸銘, [문269]茶具銘, [문270]行藏銘, [문271]竹籠銘, [문272]木鐸銘, [문273]茶具銘, [문274]行藏銘, [문275]竹籠銘, [문276]木鐸銘, [문277]茶具銘, [문278]行藏銘, [문279]竹籠銘, [문280]木鐸銘, [문281]茶具銘, [문282]行藏銘, [문283]竹籠銘, [문284]木鐸銘, [문285]茶具銘, [문286]行藏銘, [문287]竹籠銘, [문288]木鐸銘, [문289]茶具銘, [문290]行藏銘, [문291]竹籠銘, [문292]木鐸銘, [문293]茶具銘, [문294]行藏銘, [문295]竹籠銘, [문296]木鐸銘, [문297]茶具銘, [문298]행복의 힘, [문299]행복의 힘, [문300]행복의 힘, [문301]행복의 힘, [문302]행복의 힘, [문303]행복의 힘, [문304]행복의 힘, [문305]행복의 힘, [문306]행복의 힘, [문307]행복의 힘, [문308]행복의 힘, [문309]행복의 힘, [문310]행복의 힘, [문311]행복의 힘, [문312]행복의 힘, [문313]행복의 힘, [문314]행복의 힘, [문315]행복의 힘, [문316]행복의 힘, [문317]행복의 힘, [문318]행복의 힘, [문319]행복의 힘, [문320]행복의 힘, [문321]행복의 힘, [문322]행복의 힘, [문323]행복의 힘, [문324]행복의 힘, [문325]행복의 힘, [문326]행복의 힘, [문327]행복의 힘, [문328]행복의 힘, [문329]행복의 힘, [문330]행복의 힘, [문331]행복의 힘, [문332]행복의 힘, [문333]행복의 힘, [문334]행복의 힘, [문335]행복의 힘, [문336]행복의 힘, [문337]행복의 힘, [문338]행복의 힘, [문339]행복의 힘, [문340]행복의 힘, [문341]행복의 힘, [문342]행복의 힘, [문343]행복의 힘, [문344]행복의 힘, [문345]행복의 힘, [문346]행복의 힘, [문347]행복의 힘, [문348]행복의 힘, [문349]행복의 힘, [문350]행복의 힘, [문351]행복의 힘, [문352]행복의 힘, [문353]행복의 힘, [문354]행복의 힘, [문355]행복의 힘, [문356]행복의 힘, [문357]행복의 힘, [문358]행복의 힘, [문359]행복의 힘, [문360]행복의 힘, [문361]행복의 힘, [문362]행복의 힘, [문363]행복의 힘, [문364]행복의 힘, [문365]행복의 힘, [문366]행복의 힘, [문367]행복의 힘, [문368]행복의 힘, [문369]행복의 힘, [문370]행복의 힘, [문371]행복의 힘, [문372]행복의 힘, [문373]행복의 힘, [문374]행복의 힘, [문375]행복의 힘, [문376]행복의 힘, [문377]행복의 힘, [문378]행복의 힘, [문379]행복의 힘, [문380]행복의 힘, [문381]행복의 힘, [문382]행복의 힘, [문383]행복의 힘, [문384]행복의 힘, [문385]행복의 힘, [문386]행복의 힘, [문387]행복의 힘, [문388]행복의 힘, [문389]행복의 힘, [문390]행복의 힘, [문391]행복의 힘, [문392]행복의 힘, [문393]행복의 힘, [문394]행복의 힘, [문395]행복의 힘, [문396]행복의 힘, [문397]행복의 힘, [문398]행복의 힘, [문399]행복의 힘, [문400]행복의 힘, [문401]행복의 힘, [문402]행복의 힘, [문403]행복의 힘, [문404]행복의 힘, [문405]행복의 힘, [문406]행복의 힘, [문407]행복의 힘, [문408]행복의 힘, [문409]행복의 힘, [문410]행복의 힘, [문411]행복의 힘, [문412]행복의 힘, [문413]행복의 힘, [문414]행복의 힘, [문415]행복의 힘, [문416]행복의 힘, [문417]행복의 힘, [문418]행복의 힘, [문419]행복의 힘, [문420]행복의 힘, [문421]행복의 힘, [문422]행복의 힘, [문423]행복의 힘, [문424]행복의 힘, [문425]행복의 힘, [문426]행복의 힘, [문427]행복의 힘, [문428]행복의 힘, [문429]행복의 힘, [문430]행복의 힘, [문431]행복의 힘, [문432]행복의 힘, [문433]행복의 힘, [문434]행복의 힘, [문435]행복의 힘, [문436]행복의 힘, [문437]행복의 힘, [문438]행복의 힘, [문439]행복의 힘, [문440]행복의 힘, [문441]행복의 힘, [문442]행복의 힘, [문443]행복의 힘, [문444]행복의 힘, [문445]행복의 힘, [문446]행복의 힘, [문447]행복의 힘, [문448]행복의 힘, [문449]행복의 힘, [문450]행복의 힘, [문451]행복의 힘, [문452]행복의 힘, [문453]행복의 힘, [문454]행복의 힘, [문455]행복의 힘, [문456]행복의 힘, [문457]행복의 힘, [문458]행복의 힘, [문459]행복의 힘, [문460]행복의 힘, [문461]행복의 힘, [문462]행복의 힘, [문463]행복의 힘, [문464]행복의 힘, [문465]행복의 힘, [문466]행복의 힘, [문467]행복의 힘, [문468]행복의 힘, [문469]행복의 힘, [문470]행복의 힘, [문471]행복의 힘, [문472]행복의 힘, [문473]행복의 힘, [문474]행복의 힘, [문475]행복의 힘, [문476]행복의 힘, [문477]행복의 힘, [문478]행복의 힘, [문479]행복의 힘, [문480]행복의 힘, [문481]행복의 힘, [문482]행복의 힘, [문483]행복의 힘, [문484]행복의 힘, [문485]행복의 힘, [문486]행복의 힘, [문487]행복의 힘, [문488]행복의 힘, [문489]행복의 힘, [문490]행복의 힘, [문491]행복의 힘, [문492]행복의 힘, [문493]행복의 힘, [문494]행복의 힘, [문495]행복의 힘, [문496]행복의 힘, [문497]행복의 힘, [문498]행복의 힘, [문499]행복의 힘, [문500]행복의 힘, [문501]행복의 힘, [문502]행복의 힘, [문503]행복의 힘, [문504]행복의 힘, [문505]행복의 힘, [문506]행복의 힘, [문507]행복의 힘, [문508]행복의 힘, [문509]행복의 힘, [문510]행복의 힘, [문511]행복의 힘, [문512]행복의 힘, [문513]행복의 힘, [문514]행복의 힘, [문515]행복의 힘, [문516]행복의 힘, [문517]행복의 힘, [문518]행복의 힘, [문519]행복의 힘, [문520]행복의 힘, [문521]행복의 힘, [문522]행복의 힘, [문523]행복의 힘, [문524]행복의 힘, [문525]행복의 힘, [문526]행복의 힘, [문527]행복의 힘, [문528]행복의 힘, [문529]행복의 힘, [문530]행복의 힘, [문531]행복의 힘, [문532]행복의 힘, [문533]행복의 힘, [문534]행복의 힘, [문535]행복의 힘, [문536]행복의 힘, [문537]행복의 힘, [문538]행복의 힘, [문539]행복의 힘, [문540]행복의 힘, [문541]행복의 힘, [문542]행복의 힘, [문543]행복의 힘, [문544]행복의 힘, [문545]행복의 힘, [문546]행복의 힘, [문547]행복의 힘, [문548]행복의 힘, [문549]행복의 힘, [문550]행복의 힘, [문551]행복의 힘, [문552]행복의 힘, [문553]행복의 힘, [문554]행복의 힘, [문555]행복의 힘, [문556]행복의 힘, [문557]행복의 힘, [문558]행복의 힘, [문559]행복의 힘, [문560]행복의 힘, [문561]행복의 힘, [문562]행복의 힘, [문563]행복의 힘, [문564]행복의 힘, [문565]행복의 힘, [문566]행복의 힘, [문567]행복의 힘, [문568]행복의 힘, [문569]행복의 힘, [문570]행복의 힘, [문571]행복의 힘, [문572]행복의 힘, [문573]행복의 힘, [문574]행복의 힘, [문575]행복의 힘, [문576]행복의 힘, [문577]행복의 힘, [문578]행복의 힘, [문579]행복의 힘, [문580]행복의 힘, [문581]행복의 힘, [문582]행복의 힘, [문583]행복의 힘, [문584]행복의 힘, [문585]행복의 힘, [문586]행복의 힘, [문587]행복의 힘, [문588]행복의 힘, [문589]행복의 힘, [문590]행복의 힘, [문591]행복의 힘, [문592]행복의 힘, [문593]행복의 힘, [문594]행복의 힘, [문595]행복의 힘, [문596]행복의 힘, [문597]행복의 힘, [문598]행복의 힘, [문599]행복의 힘, [문600]행복의 힘, [문601]행복의 힘, [문602]행복의 힘, [문603]행복의 힘, [문604]행복의 힘, [문605]행복의 힘, [문606]행복의 힘, [문607]행복의 힘, [문608]행복의 힘, [문609]행복의 힘, [문610]행복의 힘, [문611]행복의 힘, [문612]행복의 힘, [문613]행복의 힘, [문614]행복의 힘, [문615]행복의 힘, [문616]행복의 힘, [문617]행복의 힘, [문618]행복의 힘, [문619]행복의 힘, [문620]행복의 힘, [문621]행복의 힘, [문622]행복의 힘, [문623]행복의 힘, [문624]행복의 힘, [문625]행복의 힘, [문626]행복의 힘, [문627]행복의 힘, [문628]행복의 힘, [문629]행복의 힘, [문630]행복의 힘, [문631]행복의 힘, [문632]행복의 힘, [문633]행복의 힘, [문634]행복의 힘, [문635]행복의 힘, [문636]행복의 힘, [문637]행복의 힘, [문638]행복의 힘, [문639]행복의 힘, [문640]행복의 힘, [문641]행복의 힘, [문642]행복의 힘, [문643]행복의 힘, [문644]행복의 힘, [문645]행복의 힘, [문646]행복의 힘, [문647]행복의 힘, [문648]행복의 힘, [문649]행복의 힘, [문650]행복의 힘, [문651]행복의 힘, [문652]행복의 힘, [문653]행복의 힘, [문654]행복의 힘, [문655]행복의 힘, [문656]행복의 힘, [문657]행복의 힘, [문658]행복의 힘, [문659]행복의 힘, [문660]행복의 힘, [문661]행복의 힘, [문662]행복의 힘, [문663]행복의 힘, [문664]행복의 힘, [문665]행복의 힘, [문666]행복의 힘, [문667]행복의 힘, [문668]행복의 힘, [문669]행복의 힘, [문670]행복의 힘, [문671]행복의 힘, [문672]행복의 힘, [문673]행복의 힘, [문674]행복의 힘, [문675]행복의 힘, [문676]행복의 힘, [문677]행복의 힘, [문678]행복의 힘, [문679]행복의 힘, [문680]행복의 힘, [문681]행복의 힘, [문682]행복의 힘, [문683]행복의 힘, [문684]행복의 힘, [문685]행복의 힘, [문686]행복의 힘, [문687]행복의 힘, [문688]행복의 힘, [문689]행복의 힘, [문690]행복의 힘, [문691]행복의 힘, [문692]행복의 힘, [문693]행복의 힘, [문694]행복의 힘, [문695]행복의 힘, [문696]행복의 힘, [문697]행복의 힘, [문698]행복의 힘, [문699]행복의 힘, [문700]행복의 힘, [문701]행복의 힘, [문702]행복의 힘, [문703]행복의 힘, [문704]행복의 힘, [문705]행복의 힘, [문706]행복의 힘, [문707]행복의 힘, [문708]행복의 힘, [문709]행복의 힘, [문710]행복의 힘, [문711]행복의 힘, [문712]행복의 힘, [문713]행복의 힘, [문714]행복의 힘, [문715]행복의 힘, [문716]행복의 힘, [문717]행복의 힘, [문718]행복의 힘, [문719]행복의 힘, [문720]행복의 힘, [문721]행복의 힘, [문722]행복의 힘, [문723]행복의 힘, [문724]행복의 힘, [문725]행복의 힘, [문726]행복의 힘, [문727]행복의 힘, [문728]행복의 힘, [문729]행복의 힘, [문730]행복의 힘, [문731]행복의 힘, [문732]행복의 힘, [문733]행복의 힘, [문734]행복의 힘, [문735]행복의 힘, [문736]행복의 힘, [문737]행복의 힘, [문738]행복의 힘, [문739]행복의 힘, [문740]행복의 힘, [문741]행복의 힘, [문742]행복의 힘, [문743]행복의 힘, [문744]행복의 힘, [문745]행복의 힘, [문746]행복의 힘, [문747]행복의 힘, [문748]행복의 힘, [문749]행복의 힘, [문750]행복의 힘, [문751]행복의 힘, [문752]행복의 힘, [문753]행복의 힘, [문754]행복의 힘, [문755]행복의 힘, [문756]행복의 힘, [문757]행복의 힘, [문758]행복의 힘, [문759]행복의 힘, [문760]행복의 힘, [문761]행복의 힘, [문762]행복의 힘, [문763]행복의 힘, [문764]행복의 힘, [문765]행복의 힘, [문766]행복의 힘, [문767]행복의 힘, [문768]행복의 힘, [문769]행복의 힘, [문77

구분	권차	장	편명
			5]柱杖銘, [문026]念珠銘, [문027]影山知識贊, [문028]白坡律師贊, [문029]龍雲大師贊, [문030]無爲眞身贊, [문031]自贊, [문032]丙寅表忠祠祝
권2 (42)			[문033]聞香閣上樑文, [문034]頭輪山眞佛庵法堂上梁文, [문035]頭輪山新建靈山殿上梁文, [문036]頭輪山十王殿上梁文, [문037]頭輪山上院庵新建七星殿上梁文, [문038]禪門謾語序, [문039]頭輪堂詩集序, [문040]普濟會中學禊案序, [문041]僧族譜序, [문042]諸書名數序, [문043]徐氏同族契案序, [문044]仁基喪布契案序, [문045]東詩漫選序, [문046]通鑑私記序, [문047]受菩薩戒契案序, [문048]古眞佛四孟佛糧案序, [문049]眞佛庵志序, [문050]潤字契案序, [문051]自說慧字契案序, [문052]靈山殿剏建施主案序, [문053]寂光殿燈燭契案序, [문054]佛祖源流序, [문055]康津高聲庵中鐘施主案序, [문056]長城白羊山清流洞中鐘施主案序, [문057]大芚寺無量會募緣疏, [문058]西山大師影閣茶禮募緣疏, [문059]務安法泉寺袈裟及千燈募緣疏, [문060]礪山彌勒寺重修募緣疏, [문061]無量會重修募緣疏, [문062]寄一虛居士書, [문063]答朴蘆河書, [문064]上青陽倅, [문065]上長淵府使, [문066]上丹陽丁使君, [문067]上申承旨書, [문068]上申承旨書, [문069]上趙判書, [문070]寄鐵鵠師書, [문071]慰渾虛師書, [문072]答許先達書, [문073]上申參判書, 祭影閣茶禮文
	(행장)		梵海禪師行狀
	(후跋)		梵海禪師詩集後跋

2. 『범해선사유고』 수록 시문의 내용 조사

『범해선사유고』에 수록된 366편의 시문의 내용을 조사하였다. 시문에 언급된 기록을 통해서 재구성할 수 있는 사실적 정보와 맥락에 중점을 두고, 『범해선사유고』의 내용을 크게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 승려의 행적
- 사찰의 변천과 불사
- 유불의 교유
- 승려의 유람

1) 승려의 행적

『범해선사유고』에는 범해 각안이 도반 승려에게 주거나 그들을 기리기 위해 저술한 여러 시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범해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던 승려들과 그들의 행적의 단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366편의 시문 중에서 승려를 중심 소재로 삼은 시문은 81편인데, 이러한 시문으로는 증시, 차운시, 화답시, 송별시, 애도시, 훈계시 등의 시와 보살계첩의 발문, 설(說), 찬(贊), 편지[書] 등이 있다. 시문에서 확인되는 승려는 79명이며, 이 중에서 구체적으로 신상이 확인되는 승려는 13명이다.

『범해선사유고』 출현 승려

구분	승려	특징	동사 열전	관련 시문
확인 가능	초의 의순	草衣意恂, 1786-1865	입전	시005, 시171
	하의 정지	荷衣正持, 1779-1852	입전	시171
	호의 시오	縞衣始悟, 1778-1868	입전	시171
	용암 전우	庸庵典愚, 미상-미상	·	시249
	한명 대운	漢明大雲, 1830-1868	입전	시274, 문008
	철선 혜즙	鐵船惠楫, 1791-1858	입전	시282
	영허 의현	靈虛義玄, 1816-1874	입전	문017
	영산 경순	影山敬淳, 미상-1883	입전	시084, 문027
	백파 긍선	白坡亘璇, 1767-1852	입전	문028
	용운 처익	龍雲處益, 1813-1888	입전	문029
	무위 안인	無爲安忍, 1816-1886	입전	문030
	철요 사문	鐵鷗師文, 미상-미상	입전	문070
	흔허 상능	渾虛尙能, 1826-1898	입전	문071
추정 가능	청하	추정 승려: 청하 미윤		시156
	응화	추정 승려: 응화 유한		시090
	남파	추정 승려: 남파 장율		시263
	금월	추정 승려: 금월 의관		시262
	원해	추정 승려: 원해 문주		시093
	계정	추정 승려: 원응 계정		시054
	용악	추정 승려: 용악 지환		시034
	법해	추정 승려: 법해 봉주		시096
	보정	추정 승려: 금명 보정		시094
미확인이나 단서 있음	부흔		·	시012
	해언		·	시019
	월여		·	시155
	재윤		·	시124, 시265
	홍운		·	시008
	회광		·	시154
	홍파		·	시142
	필연		·	시233
	태연		·	시017

구분	승려	특징	동사 열전	관련 시문
미확인	찬의		·	시 129
	전의		·	시 018
	재환		·	시 016
	일허		·	문 062
	인학		·	시 015
	순화		·	시 149
	순성		·	시 203
	선유		·	시 020
	석행		·	시 144
	봉화		·	시 106
	무흡		·	시 186
	행영		·	시 163
	필원		·	시 014
	태우		·	시 165
	청봉		·	시 097
	천우		·	시 133
	처운		·	시 021
	처감		·	시 122
	찬민		·	시 109
	진학		·	시 025
	지운		·	시 166
	준원		·	시 010
	정기		·	시 043
	재현		·	시 107
	재연		·	시 013
	인화		·	시 147
	인정		·	시 148
	익운		·	시 111
	응현		·	시 022
	응하		·	시 125
	영찬		·	시 027
	영준		·	시 024
	영순		·	시 023
	연순		·	시 164
	선우		·	시 082
	법한		·	시 128
	동일		·	시 110
	기정		·	시 101
	기운		·	시 092
	기연		·	시 075
	기문		·	시 168
	근환		·	시 134
	근호		·	시 135
	근학		·	시 108
	광신		·	시 080
	관		·	시 011

구분	승려	특징	동사 열전	관련 시문
	경화		.	시026
	경원		.	시146

승려별로 시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행적
 범해 각안이 주석했던 대흥사 승려들: 대흥사의 사찰문서에서 확인 가능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승려가 대부분인데, 그중에서도 시문의 내용을 단서로 하여 여러 사찰문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면 인물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2) 사찰의 변천과 불사

『범해선사유고』에는 범해 각안이 주석했던 대흥사를 비롯하여 해남과 주변 지역 사찰의 당대 모습과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시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시문으로는 사찰과 암자를 제재로 한 차운시, 제영시, 상량문, 기(記), 설(說) 등이 있으며, 전체 366편의 시문 중에서 55편의 시문이 이에 해당한다. 【표Ⅲ-N】은 『범해선사유고』에 수록된 시문 중에서 사찰이나 암자, 그리고 사찰의 부속 전각을 주요 제재로 하는 시문을 선별하여 사찰과 사찰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범해선사유고』 출현 주요 사찰 및 관련 시문

지역	사찰(암자) 및 전각		관련 시문
해남	대흥사	(전체)	문007
		천불전	문010
		표충사	문032, 문058, 문074
		영산전	문035, 문052
		시왕전	문036
		적광전	문056
		승탑원(부도전)	시173, 시276
		침계루	시197
		보련각	시212
		일로향실	시058
		범해당	시126
	대흥사의	(전체)	문057, 문061
			시006

지역	사찰(암자) 및 전각		관련 시문
산내 암자	적련암 만일암 남미륵암 북미륵암 진불암 상원암 용마암 쾌년각	적련암 만일암 남미륵암 북미륵암 진불암 상원암 용마암 쾌년각	시113 시211, 시234, 시278, 시120 시239, 문014 시132, 문033, 시120 문034, 문048, 문049 문037, 문040, 시120 시117, 시158
		(전체)	시063, 시083, 문003
		산신각	문002
	미황사	상수암	시283
	성도암	시284	
	칠성암	시046	
진도	쌍계사		시031, 시032, 시033, 시071, 문005
완도	관음암	관음굴	시035
		산신각	문004
장흥	보림사		시275
곡성	태안사		문016
강진	백련사	(전체)	문016
		만경루	시250
	고성암		문055
장성	백양사 청류암		문056
무안	법천사		문059
익산	미륵사		문060

(1) 대흥사

『범해선사유고』에는 범해 각안이 주석했던 대흥사에 관한 시문이 단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문은 범해의 활동 시기인 19세기 중후반의 대흥사의 경관이나 대흥사에서 행해진 여러 불사 등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대흥사에 관한 대표적인 사적기(事蹟記)로는 1810년대³³⁾ 완호 윤

33) 『대둔사지』의 간행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록이 전해지지 않으나, 선행 연구에 따르면 1814년부터 1818년 이전에 찬술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대둔사지』의 본문에 나타난 가장 늦은 연대는 1813년 연담시권(蓮潭詩卷)과 연담대사비명(蓮潭大師碑銘)의 찬술 시기로, 따라서 『대둔사지』는 이 이후에 편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둔사지』 편찬에 참여한 정약용이 1818년 강진을 떠난 시점을 고려하면, 이 이전에 편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대둔사지』의 편찬 시기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저를 참고할 수 있다. 오경후, 『寺誌와 僧傳으로 본 조선후기 불교사학사』, 문현, 2018, 119-122쪽.

우(玩虎尹佑), 아암 혜장(兒菴惠藏), 수룡 색성(袖龍躋性), 초의 의순(草衣意洵), 기어 자홍(騎魚慈弘), 호의 시오(縞衣始悟) 등 대흥사 승려들이 편찬한 『대둔사지』(大菴寺誌) 34)가 전해지는데, 『범해선사유고』에 수록된 대흥사 관련 시문들은 『대둔사지』 편찬 이후에 대흥사의 현황과 변화의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특히 대흥사는 범해의 입적 3년 후인 1899년 10월 14일 화재가 발생하여 북원(北院) 일대가 모두 전소되는 화마를 겪게 되었으며, 지금의 대흥사는 1900년 육봉 법한(六峯法翰)에 의해 새로 중창된 건물들이 전해져 내려온다. 35) 따라서 범해의 기록은 19세기 중후반 대흥사 승려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당대 대흥사의 모습을 추정해볼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① 천불전

1811년 2월 24일 대흥사의 남원(南院)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가허루(駕虛樓), 극락전(極樂殿), 대장전(大藏殿), 약사전(藥師殿), 지장전(地藏殿), 용화당(龍華堂), 적조당(寂照堂), 팔해당(八解堂), 영자각(影子閣)이 모두 소실되었다. 이듬해 완호 윤우와 제성(濟醒)의 주도로 중창 불사가 진행되었으며, 1813년 5월에는 극락전, 용화전(龍華殿), 지장전(地藏殿)을 중수하였다. 36) 『범해선사유고』에는 이러한 중창 불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천불상 조성에 관한 기록이 전해진다. 「천불조성약기(千佛造成畧記)」 37)에는 1817년부터 시작된 천불상 조성의 경과와 운반 과정에서의 표류 사건, 그리고 대흥사 천불전의 천불상 봉안 과정이 기술되어 있다. 이밖에 천불상 조성과 관련된 여러 유형의 자료가 전해진다.

34) 『대둔사지』 편찬에 참여한 승려와 역할은 책의 서두에 기록되어 전한다.

감정(鑒定) : 완호 윤우(玩虎尹佑)

편집(編輯) : 수룡 색성(袖龍躋性), 초의 의순(草衣意洵)

유수(留授) : 아암 혜장(兒菴惠藏)

교정(校正) : 기어 자홍(騎魚慈弘), 호의 시오(縞衣始悟)

35) 1899년 대흥사 화재로 북원 일대가 전소되자, 1900년 육봉 법한은 대화주(大化主)가 되고, 전라도관찰사 윤웅렬(尹雄烈)과 해남군수 이용우(李容愚)는 대시주(大施主)가 되어 사찰을 중건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대웅전 앞 침계루에 걸린 현판으로 취운 혜오(慧雲慧悟)가 쓴 〈대웅전중건기(大雄殿重建記)〉(1907년), 대웅전 기단에 새겨진 〈대웅전축석중수기(大雄殿築石重修)〉(1904년), 『각사찰화재위래문록(各寺刹火災慰來問錄)』 등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36) 玩虎尹佑 外, 『大菴寺志』, 「逮至嘉慶辛未之春」. “辛未二月廿四日火起, 駕虛樓下極樂殿大藏殿藥師殿地藏殿龍華堂寂照堂八解堂影子閣悉爲灰燼, 惟普賢殿清風寮精進堂, 幸而免焉。厥明年玩虎大師尹佑維那濟醒, 同心倡議, 以謀重構, 隱峰斗芸都監璽絢, 協力董工。厥明年癸酉五月, 極樂殿龍華殿地藏殿得以上梁。”, 동국대학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사업단 편, 『역주 대둔사지』, 동국대학교출판부, 2021, 114-115쪽

대흥사 천불전의 천불상 조성 관련 자료 현황

자료 이미지	자료명 / 시기 / 소장처	온라인 아카이빙 현황
	『범해선사유고』 수록 「천불조성약기」	ABC > 원자료 이미지, 원문 및 번역문 텍스트 확인
	『동사열전(東師列傳)』 수록 「완호강사전(玩虎講師傳)」	ABC > 원자료 이미지, 원문 및 번역문 텍스트 확인
	『일본표해록(日本漂海錄)』 / 1821년 / 송광사성보박물관 소장	ABC > 원자료 이미지, 원문 및 번역문 텍스트 확인
	〈조선표객도(朝鮮漂客圖)〉 / 1838년 / 개인 소장	아카이빙 자원 없음
	『매옥서궤(梅屋書軸)』 수록 〈다산이 호의에게 보낸 편지〉 / 1818년 3월 9일(발신일) /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아카이빙 자원 없음
	『매옥서궤(梅屋書軸)』 수록 〈다산이 완호에게 보낸 편지〉 / 1818년 8월 11일(발신일) /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아카이빙 자원 없음
	『천불조성록(千佛造成錄)』 / 1817년 / 용흥사 소장	ABC > 원자료 이미지, 원문 및 번역문 텍스트 확인
	대흥사 천불전 천불상(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 / 1813년 / 대흥사 소장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

「완호강사전(玩虎講師傳)」은 천불상 조성 불사를 이끈 완호 윤우의 전기로, 천불상 조성 과정 중 그가 맡았던 역할을 포함해 구체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 특

히 이 전기는 「천불조성약기」^[문010]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화재의 원인이나 불상을 실은 배에 탑승한 인물 등의 세부 사항까지 담고 있다.

『일본표해록(日本漂海錄)』은 천불상 조성에 참여한 화승(畫僧) 풍계 현정(楓溪賢正)이 일본으로 표류한 경험을 기록한 것으로, 구체적인 표류 과정과 일본에서 겪은 일화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조선표객도(朝鮮漂客圖)〉는 일본인 화가 우키다 잇케이(浮田一蕙)가 1818년 1월 나가사키 대마저(對馬邸)에서 대흥사 승려들과의 만남을 기록한 그림이다. 이 그림에는 풍계와 그 일행으로 보이는 승려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으며, 잇케이와 대흥사 승려들 사이에 오간 필담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³⁷⁾

한편 정약용이 쓴 두 통의 편지는 표류한 배를 기다리던 대흥사 승려들의 심정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1818년 3월 호의에게 보낸 편지에는, 완호가 바닷가에 머물면서 배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1818년 8월 완호에게 보낸 편지는 표류선이 무사히 도착한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정약용은 이 편지에서 배의 무사 도착을 축하하며, 일본에서 돌아온 불상의 등에 ‘일(日)’자를 표시해 흥날 혼동되지 않도록 하라는 조언이 담겨 있다.³⁸⁾ 실제로, 천불전에 봉안된 일부 불상에서 ‘일’자가 새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천불조성록(千佛造成錄)』은 천불상 조성에 참여한 시주자들의 명단을 기록한 문헌이다. 이 문헌은 총 1,006불의 명칭과 함께, 각 불상에 시주한 승려들과 재가자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이 시주한 이유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전국 54개 사찰의 680명의 승려와 676명의 재가자들이 천불상 조성 불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³⁹⁾ 이 명단에는 풍계 현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사찰의 승려가 기록되어 있어서, 대흥사가 주변 사찰과 긴밀하게 협력했음을 보여주는 단서를 제공한다.

이상의 자료들은 천불상 조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당대 불교계의 불사의 구체적인 면모를 파악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37) 〈조선표객도〉에 기록된 제기(題記), 필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논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민, 『다산의 재발견』, 휴머니스트, 2011, 315-321쪽.

38) 『매옥서궤』에 수록된 정약용의 두 통의 편지의 원문 사진과 전문은 다음의 논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민, 『다산의 재발견』, 휴머니스트, 2011, 233-242쪽.; 위의 책, 321-327쪽.

39) 이종수, 「해남 대흥사의 천불 조성과 그 시주자들」, 『강좌미술사』 43호,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4, 108-111쪽.

② 영산전

1866년 대흥사 영산전(靈山殿)이 창건되자, 범해는 전각의 상량문인 「두륜산신건 영산전상량문(頭輪山新建靈山殿上梁文)」^[문035]을 저술하였으며, 창건 이후 시주안(施主案)이 편찬될 때도 서문 「영산전창건시주안서(靈山殿牘建施主案序)」^[문052]을 작성하는 등 불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두 기록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영산전은 광명전(光明殿)의 우측과 보련각(寶蓮閣)의 좌측 사이에서 북쪽을 향하여 건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⁴⁰⁾ 원래 영산당(靈山堂)이 있어서 삼신(三身)을 상징하는 불탑을 봉안하고, 행랑에는 오관(五觀)의 승인(僧人)을 안치하였는데, 이는 해남의 선비 김광우(金匡祐)의 시주로 조성되었다고 한다.⁴¹⁾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영산전창건시주안서」^[문052]에는 “1863년 입춘날 불일(佛日)을 꿈꾸고, 1864년 3월 개금(改金)을 하였으며, 1865년 늦여름 보련각에서 금선(金仙)에 예배하고, 1866년 7월 상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⁴²⁾ 또한 “금탑(金塔)의 장엄은 초의(草衣) 선사의 찬어(贊語)에 적혀 있다”⁴³⁾라고 언급하였는데, 『초의시고(艸依詩藁)』에 이와 관련한 기록으로 보이는 「지용불탑중수고금소(地蹠佛塔重修故金疏)」가 수록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개금한 불탑이 땅에서 솟아난 불탑, 즉 다보여래의 보탑(寶塔)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불탑을 중수할 수 있도록 금을 시주한 인물로 김광우를 언급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면 영산전 창건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불탑의 개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김광우라는 인물은 영산전 창건의 주요한 기여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흥사에는 영산전이 남아 있지 않으나, 그 좌우에 있던 대광명전(광명전)과 보련각은 여전히 현존해 있다. 현재 대광명전 일원은 표충사 뒤편에 있는데, 원래는 천불전 뒤편에 자리했다고 한다. 보련각 또한 기록에서 묘사된 바와 같이 대광명전 일원에 속해 있었으나, 2009년 현재의 표충사 일원으로 이전되었다.

40) 梵海覺岸, 『梵海禪師遺稿』, 「頭輪山新建靈山殿上梁文」, “左光明。右寶蓮。佛祖之廟宇輪奐。背南極。面北闕。君臣之位次分明。”, 범해 각안(저)/김재희(역), 『범해선사문집』, 동국대학교출판부, 2020, 103-106쪽.

41) 梵海覺岸, 『梵海禪師遺稿』, 「靈山殿牘建施主案序」, “有靈山堂。堂之床。安三身之佛塔。堂之序。置五觀之僧人。此乃海南秀士金匡祐。爲報父母劬勞之恩。爲己身安閑。”, 범해 각안(저)/김재희(역), 『범해선사문집』, 동국대학교출판부, 2020, 144-145쪽.

42) 梵海覺岸, 『梵海禪師遺稿』, 「靈山殿牘建施主案序」, “因緣際會。感應道交。夢佛日於癸亥之入春。改金衣於甲子之三月。乙丑遯夏。禮金仙於寶蓮。丙寅否秋。掛銀棟於正殿。”, 범해 각안(저)/김재희(역), 『범해선사문집』, 동국대학교출판부, 2020, 144-145쪽.

43) 梵海覺岸, 『梵海禪師遺稿』, 「靈山殿牘建施主案序」, “金塔莊嚴。備載於草衣師之贊語。”, 범해 각안(저)/김재희(역), 『범해선사문집』, 동국대학교출판부, 2020, 144-145쪽.

③ 시왕전

『대둔사지』에 따르면, 시왕전(十王殿)은 북원 영역에 자리한 전각으로, 공민(公敏)이 중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⁴⁴⁾ 『범해선사유고』에는 1872년 시왕전의 중건 당시 범해가 지은 상량문 「두륜산시왕전상량문(頭輪山十王殿上梁文)」^[문036]이 수록되어 있다. 상량문에 따르면 범해, 장률(仗律), 심여(心如) 등의 승려가 화주(化主)가 되어 시왕전 중건을 위해 모연을 하였으며⁴⁵⁾, 1872년 1월 30일에 일을 시작하여 2월 28일에 준공하였다.⁴⁶⁾ 또 이 상량문에는 중건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 옛 상량문의 내용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옛 상량문에 따르면 시왕전은 1700년 3월에 문신(文信), 시찬(時贊), 성호(省浩)가 중수하고, 1735년 5월 운수(雲水), 법명(法明), 지택(智澤)이 세 번째 중건하였다고 한다.⁴⁷⁾

현재 대흥사에는 시왕전이 남아 있지 않다.

④ 산제당(산신각)

『대둔사지약기(大菴寺志略記)』^[문007]에 기록된 “정해년(1887년) 봄, 복을 비는 산제당을 신축하고 해마다 한 번 축원을 올렸다”⁴⁸⁾는 내용은, 이 시기 대흥사에 산신각의 기능을 하는 전각이 건립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조선 후기 불교가 민간의 산신신앙을 수용하여 사찰 내에 산신신앙을 위한 전각을 조성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⁴⁹⁾

비슷한 시기에 해남의 은적암과 완도의 관음암에서도 각각 1872년과 1877년에 산신각이 건립되었다. 범해는 이 두 산신각의 창건기인 「은적암산신각창건기(隱跡庵山神閣創建記)」^[문002]와 「정해관음암산신각창건기(淸海觀音庵山神閣創建記)」^[문004]를 저

44) 玩虎尹佑 外, 『大菴寺志』, 「寺有南北二院」. “寺有南北二院, 殿宇房寮, 極其宏傑。(중략) 十王殿【僧公敏重修】”, 동국대학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사업단 편, 『역주 대둔사지』, 동국대학교출판부, 2021, 34-35쪽.

45) 梵海覺岸, 『梵海禪師遺稿』, 「頭輪山十王殿上梁文」. “今日覺岸仗律心如等。周求邑村。補合而定日。同事而協力。”, 범해 각안(저)/김재희(역), 『범해선사문집』, 동국대학교출판부, 2020, 107-110쪽.

46) 梵海覺岸, 『梵海禪師遺稿』, 「頭輪山十王殿上梁文」. “於是正月三十日董役。二月廿八日竣功。”, 범해 각안(저)/김재희(역), 『범해선사문집』, 동국대학교출판부, 2020, 107-110쪽.

47) 梵海覺岸, 『梵海禪師遺稿』, 「頭輪山十王殿上梁文」. “其舊上梁文曰。康熙卅九年庚辰三月。文信時贊省浩重修。雍正十三年乙卯五月。雲水法明智澤三建。”, 범해 각안(저)/김재희(역), 『범해선사문집』, 동국대학교출판부, 2020, 107-110쪽.

48) 梵海覺岸, 『梵海禪師遺稿』, 「大菴寺志畧記」. “丁亥春。新建祝釐山祭堂。歲一爲祝。”, 범해 각안(저)/김재희(역), 『범해선사문집』, 동국대학교출판부, 2020, 38-43쪽.

49) 이상 조선후기 산신신앙의 불교계의 수용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김용태, 『조선 불교사상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1, 383-394쪽.

술하였으며, 두 기문 모두 『범해선사유고』에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당시 불교계가 어떻게 산신신앙을 불교 체계 내에 포용하고, 산신각과 같은 전각을 통해 신앙적 기능을 확대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현재 대흥사의 산신각은 북원 영역의 대웅보전 좌측에 자리하고 있다. 산신각 건물은 응진당과 하나로 연결된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산신각의 편액은 위당(威堂) 신관호(申觀浩, 1810-1884년)의 글씨로 알려져 있다.

⑤ 침계루

침계루(枕溪樓)는 대흥사를 가로지르는 금당천의 북쪽에 위치한 2층의 누각 건물로, 승려뿐만 아니라 여러 문인들에게 시적인 영감을 제공한 장소로 알려졌다. 범해는 「침계루(枕溪樓)」^[시19]라는 시를 통해, 과거의 화려함을 잊어버린 현재의 침계루를 묘사하였다.⁵⁰⁾ 또한 「대둔사지약기」^[문007]에서는 침계루의 처마에 수많은 시와 제영(題咏)이 걸려있다고 묘사하였다.⁵¹⁾ 이러한 내용들은 침계루가 단순한 사찰의 누각이 아니라, 대흥사에 모인 문인들과 승려들이 문학적 영감을 공유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대둔사지약기』에 언급된 시문의 저자	『대둔사지』 수록 여부	개인 문집 수록 현황
백호(白湖) 임제(林悌)(1549-1587)	0	임백호집
옥봉(玉峯) 백광훈(白光勳)(1537-1582)	0	옥봉집
청음(淸陰) 김상현(金尙憲)(1570-1652)	0	삼연집
이천(梨川) 이홍주(李弘胄)(1562-1638)		
천연(天然) 이석보(李奭輔)(영조대)	0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1587-1671): 해남 거주지	0	고산유고
송호(松湖) 백진남(白振南)(1564-1618): 백광훈의 아들	0	
낙서(駱西) 윤덕희(尹德熙)(1685-1776): 윤두서의 아들	0	
열수(冽水) 정약용(丁若鏞)(1762-1836): 강진 유배지		
문암(門巖) 민철호(閔哲鎬)(1783-1859)		
유산(酉山) 정학연(丁學淵): 정약용의 아들		
백파(白坡) 신헌구(申獻求)(1823-1902): 해남 유배지		추당잡고
청전(靑田) 이학래(李學來)(1824-1883): 정약용의 강진 제자		

50) 梵海覺岸, 『梵海禪師遺稿』, 「枕溪樓」. “壓鎮大雄殿。光華不古時。”, 범해 각안(저)/김재희(역), 『범해선사시집』, 동국대학교출판부, 2020, 281쪽.

51) 梵海覺岸, 『梵海禪師遺稿』, 「大菴寺志畧記」. “有枕溪樓騷人之題咏。連楣壓棟。乃白湖林悌。石川林億齡。玉峯白光勳。淸陰金尙憲。梨川李弘胄。天然李奭輔。孤山尹善道。松湖白振南。駱西尹德熙。冽水丁若鏞。門巖閔哲鎬。酉山丁學淵。白坡申獻求。靑田李鶴來詩也。”, 범해 각안(저)/김재희(역), 『범해선사문집』, 동국대학교출판부, 2020, 38-43쪽.

현재 침계루에는 여러 현판이 걸려있으며, 대흥사성보박물관에도 침계루에 걸렸었던 현판이 소장되어 있다. 이런 현판으로는 시액(詩額)을 비롯하여, 대흥사의 사적과 내력을 알 수 있는 현판, 불사의 시주 내역을 적은 현판 등이 있다. 다음은 2005년에 수행된 대흥사의 사찰 문화재 조사 사업의 내용을 토대로 침계루와 관련된 현판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⁵²⁾

대흥사 침계루의 현판⁵³⁾

조사 번호	현판 이미지	현판	제작 시기	위치
512		침계루 편액	조선후기(1705-1777)	침계루
513		원종대가람 편액	조선후기	침계루
535		대웅전중창상량문 현판	1901년	침계루
536		대웅전중건기 현판	1907년	침계루
539		증조성천불기 현판	1823년	침계루
540		천불봉향각시종기 현판	1823년	침계루
542		증건감동 현판	1907년	침계루
543		나한전급사리탑축장연 의록 현판	1917년	침계루
544		각처시주 현판	1901년	침계루

52) 문화재청과 대한불교조계종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찰소장 동산문화재 일제조사 사업'(2002-2011년)은 전국의 사찰에 소장된 문화재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한국의 사찰문화재』 보고서와 자료집으로 발간하였다. 대흥사가 위치한 전라남도의 조사 사업은 2005년에 진행되었으며, 조사 결과는 보고서 『한국의 사찰문화재 : 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전라남도Ⅲ』(2006년), 자료집 『한국의 사찰문화재 : 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광주광역시/전라남도 I·II·III 자료집』으로 발간하였다.

조사 번호	현판 이미지	현판	제작 시기	위치
548		가사시주 현판	근대	침계루
550		장등현답시주 현판	1906년 추정	침계루
551		홍고시주 현판	1931년	침계루
552		근승옥봉선조운 시판	조선말-근대	침계루
553		근제침계루판상 시판	조선말-근대	침계루
554		근차 시판	1917년 추정	침계루
555		차침계루운 시판	1905년 추정	침계루
556		제침계루 시판	조선후기	성보박물관
557		근차옥봉선조운 시판	조선말-근대	성보박물관
558		차침계루운 시판	조선말-근대	성보박물관
559		근차 시판	조선말-근대	성보박물관
560		근차판상운 시판	조선말-근대	성보박물관
561		근차침계루운 시판	조선말-근대	성보박물관
562		차침계루운 시판	조선말-근대	성보박물관

53) 이하의 표는 다음의 보고서와 자료집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하여 작성한 것이다. 문화재

조사 번호	현판 이미지	현판	제작 시기	위치
563		차침계루운 시판	조선후기	성보박물관
564		근차침계루운 시판	조선말-근대	성보박물관
565		망침계루 시판	조선말-근대	성보박물관
566		상침계루차판상운 시판	근대	수장고
567		근차삼연선생운현판	조선후기	성보박물관
568		일도장춘만수청제 시판	1823년	침계루
569		대흥사 시판	조선말-근대	침계루
570		독상계루입만청 시판	근대	침계루
571		고루부재벽산동 시판	조선말-근대	침계루
572		차대흥사침계루운 시판	1939년	침계루
573		차대흥사침계루운 시판	1939년	침계루

⑥ 보련각

1888년 봄, 범해는 19년 만에 보련각(寶蓮閣)을 방문한 감회를 담아 「재입보련각(再入寶蓮閣)」^[사212]이라는 시를 남겼다. 보련각은 1852년 대흥사 조사들의 영정을 봉안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앞서 언급했던 「두륜산신건영산전상량문」^[문035] 에서도, 새로

청·(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 : 전국사찰문화재 일제조사 전라남도 Ⅲ』, 2006년, 323-332쪽.; 문화재청·(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 : 전국사찰문화재 일제조사 광주광역시/전라남도 Ⅰ·Ⅱ·Ⅲ 자료집』, 2006년, 410-415쪽.

창건한 영산전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좌측에 광명(光明)이고 우측에 보련(寶蓮)이니 불조(佛祖)의 묘우(廟宇)가 윤환(輪奐)하다”⁵⁴⁾고 하였는데, 여기서 불조는 각각 비로자나불을 봉안한 불전인 광명전, 대흥사의 조사(祖師)들을 모신 조사전인 보련각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겠다.⁵⁵⁾ 『범해선사유고』 말미에 수록된 「범해선사시집발」에는 금명 보정(錦溟寶鼎)이 1916년 겨울에 보련각에서 범해의 진영을 보았다고 회고하고 있어서⁵⁶⁾, 범해의 입적 이후에 보련각에 범해의 영정이 봉안되었던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후 보련각은 1920년 한 차례 중건되었다.⁵⁷⁾ 당시 대흥사에는 보련각 외에 심적암(深寂庵)의 서쪽에도 영각이 있어서, 보련각은 편양 언기(鞭羊彥機) 문중, 심적암의 영각은 소요 태능(逍遙太能) 문중이 각각 제사를 개별적으로 모시면서 양문중이 경쟁하여 폐단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1920년에 양문중이 영각을 합병하기로 결의하고, 당시 주지인 경허당(鏡虛堂) 대선사의 허락을 받아 영각을 합병하여, 청허 휴정의 영정을 중심으로 하는 보련각을 중건한 것이다.⁵⁸⁾ 이후 보련각은 1944년 응송당(應松堂) 주지 시절에 한 차례 더 중건되었다.

54) 梵海覺岸, 『梵海禪師遺稿』, 「頭輪山新建靈山殿上梁文」, “左光明。右寶蓮。佛祖之廟宇輪奐。” , 범해 각안(저)/김재희(역), 『범해선사문집』, 동국대학교출판부, 2020, 103-106쪽.

55) 한편 「靈山殿剏建施主案序」에는 “보련각에서 금선(金仙)을 예배했다(禮金仙於寶蓮)”고 언급하고 있어서, 보련각에 불상이 봉안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송문고』에 수록된 「행해당중건화문(行解堂重建化文)」의 내용을 살펴보면, “행해당은 금선대각존의 감전이 될 뿐만 아니라 세 분의 왕사의 진영이 있는 충사(今是堂者。不但爲金仙大覺尊之紺殿。亦乃三大王師影眞之忠祠也。)”라고 하였다. 행해당은 송광사에 있었던 전각으로, 지공, 나옹, 무학대사의 삼화상(三和尚)의 진영을 봉안한 곳이었다. 행해당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 5월 화재로 소실되었으며, 삼화상 진영 또한 현존하지 않는다.(이상 송광사 행해당의 삼화상진영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이용윤, 「송광사 僧寶 전통 형성과 高僧真影의 상징성」, 『남도문화연구』 제49집, 국립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23, 7-46쪽.)

56) 梵海覺岸, 『梵海禪師遺稿』, 「頭輪山新建靈山殿上梁文」, “丙辰冬。禮禪師真於寶蓮閣裡。” , 범해 각안(저)/김재희(역), 『범해선사문집』, 동국대학교출판부, 2020, 103-106쪽.

57) 이하의 보련각의 중건과 관련된 내용은 〈보련각중건상량문(寶蓮閣重建上樑文)〉에서 확인한 것이다. 〈보련각중건상량문〉은 1944년 보련각 중건시에 경룡 종환(璟龍鍾煥)이 작성한 상량문으로, 1920년의 중건과 1944년의 중건 내용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또한 상량문 말미에 1852년 창건시에 작성된 초의 의순의 상량문을 함께 동봉하여 보존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상량문의 전문은 현재 대흥사 홈페이지의 역사자료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흥사 보련각 중건 상량문’, 대흥사. (<http://www.daeheungsa.co.kr/home/sub2/sub3.asp?bseq=1&cat=-1&sk=&sv=&yy=all&page=1&mode=view&aseq=310>)

58) 경룡 종환, 〈보련각중건상량문〉, “蓋距今百年以前 於本寺有深寂寶蓮兩影閣 一則逍遙門之影閣也在於深寂庵之西隅 二則鞭羊門之影閣也在於光明殿之東隅 以享祀于各門中先師兩門競爭世降生弊也 由是至于大正九年庚申 兩門中青年全般總意 以兩門影閣併合發意 陳情于時住持鏡虛堂大禪師特蒙允許 當年影閣併合 又影幘以清虛祖師中心 廢舊改新奉安于寶蓮閣”

대광명전 일원에 있었던 보련각은 2006년 대광명전 일원이 원래의 천불전 뒤편에서 현재의 표충사 뒤편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한 차례 그 위치가 변경되었고⁵⁹⁾, 2008년에는 현재의 표충사 일원으로 이전하였다.

현재 보련각에는 대흥사에서 배출된 고승들의 진영 5기가 소장되어 있다. 이 진영들은 다른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독상과는 달리, 여러 인물들이 함께 그려진 군상(群像) 형태로 제작된 것이 특징적이다. 각 진여의 인물들 어깨 위에는 방형의 구획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 구획 안에 해당 인물의 이름이 적혀 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보련각 소장 조사진영⁶⁰⁾

조사진영	승려
 조사진영(24위), 근대, 118.7×193.0cm	1열: 응운선사, 설월선사, 화봉선사, 초우선사, 만해선사, 벽운선사, 봉명선사, 완해선사 2열: 보응선사, 완월선사, 자응선사, 원담선사, 완성선사, 금담선사, 육봉선사, 경호선사 3열: 금룡선사, 제하선사, 선월선사, 환월선사, 우봉선사, 백하선사, 응명선사, 제운선사
 조사진영(24위), 근대, 127.3×201.0cm	1열: 상운선사, 월화선사, 금성선사, 월암선사, 보제선사, 영담선사, 만회선사, 응화대선사 2열: 능암선사, 환허선사, 설송선사, 복암선사, 서용선사, 화월선사, 영월선사, 동화선사 3열: 연주선사, 취운선사, 능허선사, 화산선사, 침허선사, 벽담선사, 팔광선사, 석주선사
 조사진영(24위), 근대, 125.3×201.2cm	1열: 영담선사, 금월선사, 천계선사, 풍암선사, 석담선사, 완파선사, 신월선사, 영호선사 2열: 원응대선사, 보운선사, 영월선사, 동산선사, 금파선사, 운계선사, 초운선사, 용허선사 3열: 완봉선사, 완담선사, 호은선사, 완주선사, 해은선사, 대연선사, 응허선사, 성봉선사

59) '12.해남 대흥사 동국선원', 불교신문, 2006년 4월 14일. (<https://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72732>)

60) 이하의 표는 다음의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문화재청·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 : 2021 한국의 고승 진영 정밀 학술조사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_1, 경상남도』, 문화재청, 2022, 208-215쪽.

조사진영	승려
 조사진영(24위), 근대, 125.5×201.0cm	1열: 정암대선사, 완호대선사, 인담대선사, 호의대선사, 환봉대선사, 성목대선사, 영허대선사, 치암대선사 2열: 포운대선사, 침교대선사, 철선대선사, 영서대선사, 만휴대선사, 청해대선사, 무위대선사, <u>범해대선사</u> 3열: 침송대선사, 만파대선사, 서암대선사, 자항대선사, 수성대선사, 예암대선사, 해월대선사, 덕암대선사
 조사진영(24위), 근대, 126.0×201.4cm	1열: 부용대선사, 초의대선사, 하의대선사, 은암대선사, 연파대선사, 태암대선사, 명진대선사, 의암대선사 2열: 병주대선사, 신월대선사, 수월대선사, 학봉대선사, 경월대선사, 용곡대선사, 덕운대선사, 화담대선사 3열: 수암대선사, 견향대선사, 응암대선사, 추담대선사, 화운대선사, 월여대선사, 금허대선사, 운파대선사

⑦ 일로향실

범해는 일로향실(一爐香室)에 앉아서 느낀 마음의 평온함을 「일로향실(一爐香室)」^[시058]이라는 시로 표현하였다. 일로향실은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가 일지암에 머물고 있던 초의 의순에게 편액의 글씨를 써서 보낸 것으로, 현재는 천불전 뒤쪽에 있는 요사에 걸려있다. 『범해선사유고』에 수록된 「오종결의론(五種決疑論)」^[문019]은 사찰의 벽과 편액에 쓰인 글귀의 연원에 대해서 밝힌 글로, 이 글에서 일로향실은 송나라 야보 도천(治父道川)의 계송⁶¹⁾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⁶²⁾ 범해는 1894년 『동사열전』 집필 당시 일로향실에 머물렀으며⁶³⁾, 범해의 스승인 호의 시오도 1843년 일로향실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다.⁶⁴⁾

⑧ 범해당

범해는 자신이 머물렀던 요사인 범해당(梵海堂)을 소재로 한 시 「제범해당(題梵海

61) 梵海覺岸, 『梵海禪師遺稿』, 「五種決疑論」, “獨坐一爐香。金文誦兩行。可憐車馬客。門外任他忙。”, 범해 각안(저)/김재희(역), 『범해선사문집』, 동국대학교출판부, 2020, 64-67쪽.

62) 이 글에서 인용된 야보 도천의 계송(위의 각주 59번)은 금강경에 대하여 5가(家)의 해설을 모아 놓은 주석서들에서 확인된다. 『금강반야바라밀경오가해설의(金剛經五家解)』의 제1 「법회인유분(法會因由分)」에 야보의 계송을 싣고 득통 기화(得通己和)가 그 뜻을 해설하였다.

63) 梵海覺岸, 『東師列傳』, 「自敍傳」, “光緒二十年甲午。年七十五。常居頭輪山一爐香室。”, 범해 각안(저)/김두재(역), 『동사열전』, 동국대학교출판부, 2015, 25-40쪽.

64) 梵海覺岸, 『東師列傳』, 「縞衣大士傳」, “癸卯。住一爐香室。戊申。住挽日庵。辛亥。住十六殿。癸丑。移南庵。甲寅。居真佛。戊午與草衣。建法師玩虎碑。”, 범해 각안(저)/김두재(역), 『동사열전』, 2015, 362-367쪽.

堂)」^[시126]을 남겼다. 『대둔사지』에 따르면, 대흥사는 각 요사에 방장실을 마련하여 강사(講師)들이 머물며 경전과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는데, 이는 다른 사찰과 차별화된 대흥사만의 독특한 제도였다.⁶⁵⁾ 또한 10년마다 표충사에서 제사를 지내는 날에 모든 스님들이 모여 강사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강사들은 침계루에서 공식적으로 당호를 부여받았다.⁶⁶⁾ 따라서 범해가 머물렀던 범해당도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범해에게 부여된 당호일 가능성이 크다. 범해당은 범해가 학문과 수행에 몰두하며 생활했던 장소로, 자신의 일상을 시로 남기며 이러한 생활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범해는 이 요사에서 자신의 수행과 학문에 몰두하며 머물렀던 생활을 시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⑨ 승탑원

「관비부도(貫碑浮屠)」^[시173]는 대흥사의 승탑원에 탑비와 부도가 안치된 승려들의 이름으로 지은 시이다. 「두륜산비전(頭輪山碑殿)」^[시276] 또한 승탑원을 제재로 한 시이다. 또한 「대둔사지약기」^[문007]에서도 반복적으로 승탑원의 탑비와 부도를 언급하고 있다.

대흥사 승려로서 범해의 정체성과 역사성의 인식이 드러나는 대목

⑩ 표충사

「대둔사지약기」^[문007]에 언급된 표충사 제향의 변화

1871년에 관청에서 지급해오던 복호와 보솔이 환수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에 2월과 8월의 중정일에 행해진 제향이 한식과 중구일에 다례만 행하는 것으로 변경

⑪ 대흥사의 무량회

대흥사에서 개최된 무량회 관련 저술

65) 玩虎尹佑 外, 『大芚寺志』, 「大芚諸寮」. “南方諸刹, 雖房寮宏豁, 山菴之外, 皆無方丈之室故, 講師不得留住。惟大芚諸寮, 各有丈室, 常時必令頭陀長老之持經修課者居之, 或有講師名譽赫奕者, 必延入此室, 使學者侍居此寮, 此所謂大寺之講會也。”, 동국대학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사업단 편, 『역주 대둔사지』, 동국대학교출판부, 2021, 75-77쪽.

66) 玩虎尹佑 外, 『大芚寺志』, 「大芚諸寮」. “今若以芚寺講會, 作爲階級。每十年一次, 表忠祠祭享之日, 諸師圈點, 議定一人。然後乃自芚寺, 上狀邀來, 乃於枕溪樓上, 錫其堂號, 仍於一寮, 聚衆設講。而挾書者, 必滿百人然後, 許之以大師之名, 載之於傳燈之綱。”, 동국대학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사업단 편, 『역주 대둔사지』, 동국대학교출판부, 2021, 75-77쪽.

(2) 두륜산 산내 암자

『범해선사유고』에는 대흥사뿐만 아니라 대흥사가 위치한 두륜산의 산내 암자에 관한 시문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암자에 거처하며 느낀 개인적 감회와 주변 경관을 묘사한 시가 수록되어 있으며, 암자에서 행해진 불사와 암자와 관련된 사찰계와 관련된 기록도 존재한다. 이러한 시문은 범해의 행적을 파악하거나 당대 암자의 경관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먼저 「십일암호(十一庵號)」^[1006]는 산내의 11곳의 암자의 이름을 활용하여 지은 시로, 당대의 암자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시에서 언급된 암자는 심진암(尋眞庵), 청신암(淸神庵), 신월암(新月庵), 명적암(明寂庵), 심적암(深寂庵), 적련암(赤蓮庵), 도선암(導船庵), 진불암(眞佛庵), 남미륵암(南彌勒庵), 만일암(挽日庵), 북미륵암(北彌勒庵)이다.⁶⁷⁾ 다음은 이러한 암자 중에서도 여러 개의 시문을 남긴 암자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본 것이다.

① 만일암

만일암(挽日庵)은 두륜산 가련봉에 위치한 암자로, 산내 여러 암자 중에서도 참선을 주로 수행하는 장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범해선사유고』에는 두륜산의 열 가지 절경을 노래한 시 「두륜십경(頭輪十景)」^{[120]o}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 「만일선원(挽日禪院)」은 만일암의 선원(禪院)을 소재로 한 시로, 이 시에서 만일암은 승려들이 머물며 수행하는 장소로 묘사되었다. 또한 「범해선사행장」에서도 범해가 개당(開堂)한 이후, 만일암은 선(禪)을 설하는 별궁(別宮)이 되었다고 기록되었다.⁶⁸⁾

범해가 만일암에 머무르며 저술한 시는 「만일암(挽日庵)」^[211], 「만일암잡영(挽日庵雜咏)」^{[234]o} 있으며, 이는 범해가 암자에서 머물며 느낀 감정과 주변의 경관을 시로 표현한 작품들이다. 『동사열전』에는 범해 외에도 만일암에서 머물며 수행했던 여

67) 『범해선사시집』은 “行到東岡新月親” 시구를 동강암과 신월암으로 구분하고, “赤蓮爛漫導船輪” 시구는 “적련암은 꽃 피어 수레와 배 이끄네”라고 번역하였다.(범해 각안(저)/김재희(역), 『범해선사시집』, 동국대학교출판부, 2020, 44쪽.) 그러나 『대둔사지』를 비롯하여 대흥사와 관련된 여타 기록에서 동강암이란 암자 이름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行到東岡新月親” 시구는 “동쪽 언덕의 신월암에 이르니 달이 친숙하게 맞이하네”로 해석하고, “赤蓮爛漫導船輪” 시구는 적련암과 도선암으로 구분하였다. 도선암은 『대둔사지』에서 “도솔봉 아래에 있으며, 암자 아래에 배 모양의 바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기록되어 있다.(玩虎尹佑 外, 『大芚寺志』, 「至若精修諸菴」. “導船菴, 在兜率峰下。菴下有石如船形故名。”, 동국대학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사업단 편, 『역주 대둔사지』, 동국대학교출판부, 2021, 119-120쪽.)

68) 梵海覺岸, 『梵海禪師遺稿』, 「梵海禪師行狀」. “二十七佩縞衣父之法印。豎拂開堂。眞佛上院。爲菩提之法場。北庵挽日。爲說禪之別宮。”, 범해 각안(저)/김재희(역), 『범해선사시집』, 동국대학교출판부, 2020, 180-18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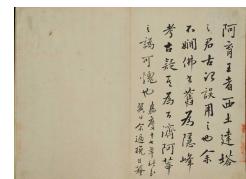
러 승려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어, 이 암자가 당시의 중요한 수행처였음을 알 수 있다.

대흥사 만일암과 관련된 승려의 행적

승려	행적 유형	시기	출전
용암 혜언	주석		동사열전-용암선백전
설암 의성	주석		동사열전-설암선사전
호의 시오	주석	1848년	동사열전-호의대사전
대은 낭오	입적지	1841년 윤3월 25일	동사열전-대은선백전
만휴 자흔	만일암 법회		동사열전-만휴선백전
문암 영유	주석		동사열전-문암강백전
금월 의관	안거지		동사열전-금월선사전
보문 묘환	주석		동사열전-보문선사전
연주 극현	주석	1894년	동사열전-연주강백전
수성 근현	안거지		동사열전-수성선사전
월화 인학	안거지		동사열전-월화강사전
법해 봉주	수계지		동사열전-법해강백전

한편 만일암과 관련해서는 만일암의 연혁을 기록한 사적기인 『만일암지(挽日庵志)』가 전해져 내려온다. 『만일암지』는 은봉 두운(隱峰斗云)이 저술하고, 은봉의 요청으로 정약용이 친필로 작성하여 1809년 간행한 것이다. 『만일암지』는 「만일암제명(挽日庵題名)」과 「만일암실적(挽日庵實蹟)」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만일암제명」에는 만일암의 창건과 중건에 관여한 승려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고, 「만일암실적」은 백제 승려 정관 존자(淨觀尊者)의 창건에서부터 1809년 은봉의 주도로 이루어진 중건에 이르기까지, 만일암의 내력과 이에 대한 은봉의 상고(詳考)가 함께 기록되어 있다. 정약용은 당시 은봉의 기록을 신뢰하고 그대로 글을 써주었지만,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기록에 오류가 있음을 밝혔다. 첫 번째는 “만일암은 426년 백제의 승려 정관 존자가 창건하고 508년 선행 대덕(善行大德)이 중건했다”는 기록에 대해서, 여러 문헌과 금석문 등을 검토하였을 때 백제에 불사가 시작된 것은 634년 이후이기 때문에 「만일암실적」의 내용은 잘못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정약용은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제만일암지(題挽日庵志)』를 저술하여 일의 전말을 기록하였다. 두 번째는 은봉은 만일암에 있는 칠층석탑에 대하여, “만일암고기(挽日庵古記)에는 아육왕(阿育王)에 의해 건립된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으나, 백제에는 아육왕이 없으니 이는 백제의 아신왕(阿莘王)을 잘못 표기한 것이며, 이 탑은 아신왕과 관련된 탑”이라고 밝혀 놓았다. 그러나 정약용은 아육왕은 서역에서 탑을 세운 왕이므로 이와 같은 고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정약용은 1812년 추분 다음날 만일암을

방문하고 가는 길에, 『만일암지』의 말미에 이러한 고증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밝힌 「부기(附記)」를 작성하였다.

1809년(가경 14년)	1812년(가경 17년)	1813년(가경 18년)
은봉 두운, 자암 전평(慈庵典平)이 만일암 중건함	추분 다음날, 정약용이 만일암을 방문함	가을, 정약용이 〈대흥사사적비명〉을 보면서 만일암 연대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
아암 혜장이 상량문을 지음: 『아암유집』 「두륜산 만일암 중건상량문(頭輪山 挽日庵重建上樑文)」	정약용이 『만일암지』에 「부기」를 작성함: 아육왕탑 고증 정정함	정약용이 『제만일암지』를 저술함: 만일암의 연대 정정함
은봉 두운이 『만일암지』를 편찬함. 정약용이 씀.		

범해는 여기에서 나아가 「阿育王塔辨」^[문014]을 저술하여, '아육왕탑'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자 하였다. 범해는 아육왕이 살육을 행한 후 죄를 씻기 위해 비구 야사(耶舍)의 조언에 따라 8만 4천개의 사리탑을 세웠다는 『아육왕경(阿育王經)』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아육왕탑은 아육왕 자신의 진신탑이 아닌, 아육왕이 세운 8만 4천개의 탑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아육왕탑은 만일암의 뜰에 있는 불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남미륵암 앞 진남대(鎮南臺)의 오른쪽에 있는 탑의 형상처럼 쌓여진 돌이 아육왕탑임을 설명하였다.

현재 만일암은 터만 남아 있으며, 칠층석탑 역시 소실되었고 오층석탑만이 전해진다.

② 남미륵암

남미륵암(南彌勒庵)은 두륜봉 아래에 위치한 암자이다. 범해는 1857년 남미륵암에 머물면서 「남미륵암잡영(南彌勒雜詠)」^[시239]이란 시를 저술하였다. 이 시는 3수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초여름과 가을밤의 암자의 경관을 묘사하였다. 그중에서도 두 번째의 시에서는 남미륵암에 있는 마애불을 묘사하였다. 이 마애불은 현재도 남미륵암에 남아 있다.

또한 『동사열전』에서는 남미륵암과 관련된 승려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대흥사 남미륵암과 관련된 승려의 행적

승려	행적 유형	시기	출전
설암 의성	주석		동사열전-설암선사전
문암 영유	주석		동사열전-문암강백전
혜봉 이순	입적지		동사열전-혜봉선사전
월화 인학	안거지(하안거)		동사열전-월화강사전
범해 각안	주석	1857년	백열록-백족화상론

③ 북미륵암

북미륵암(北彌勒庵)은 만일암의 북쪽에 있는 암자로, 『범해선사유고』에는 주로 북암(北庵)으로 등장한다. 『대둔사지』에는 창건일은 자세히 알 수 없고, 1754년 온곡영탁(溫谷永鐸)이 중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⁶⁹⁾ 범해는 「두륜십경」^[시120]의 「북암명구(北庵名區)」와 「방북암(訪北庵)」^[시132]에서 북미륵암의 수려한 경관을 묘사하였다. 「북암명구」에는 북미륵암에 현전하는 마애여래좌상과 두 기의 삼층석탑이 묘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절경으로 인하여, 북미륵암은 범해가 문인들과 함께 동행하여 풍광을 감상하며 시운을 주고받는 교류의 장소로 활용되었다. 「백파송파야노공상북암염운(白坡松坡兩老共上北庵拈韻)」^[시106], 「해남줄이동루책실정유상등북암공화(海南倅李東樓冊室丁維桑登北庵共和)」^[시281]은 모두 북미륵암에 문인들과 동행하여 그들과 주고받은 시이다.

「오종결의론」에서 범해는 북미륵암 노전(爐殿)의 편액이 문향각(聞香閣)인 이유에 대해서 회당 조심(晦堂祖心, 1025-1100년)과 황정견(黃庭堅, 1045-1105년)의 고사를 들어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향각상량문(聞香閣上樑文)」^[문033]은 북미륵암의 문향각에 관한 상량문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상량문에 따르면, '노전인 문향각'을 중수하기 위하여 경문(敬文) 상인이 화주가 되어 불사를 위한 모연을 했으며, 중수 과정에서 문향각의 이전의 상량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그 내력을 기록한다고 하였다. 두 기록 모두 문향각을 노전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④ 진불암

진불암(眞佛庵)은 두륜봉 아래에 있는 암자로, 고진불암(古眞佛庵)과 신진불암(新

69) 玩虎尹佑 外, 『大菴寺志』, 「至若精修諸菴」. “北菴者, 北彌勒也。剏修年月未詳。【乾隆甲戌
溫谷永鐸重修】”, 동국대학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사업단 편, 『역주 대둔사지』, 동국
대학교출판부, 2021, 117-121쪽.

眞佛庵)의 두 원(院)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진불암보다 먼저 세워진 고진불암은 응진당(應真堂)과 봉로당(奉鑪堂)이 있었으며, 후에 세워진 신진불암은 대웅전과 요사가 있었다.⁷⁰⁾

범해는 1865년 진불암의 법당인 대웅전을 중건할 때, 「두륜산진불암법당상량문(頭輪山眞佛庵法堂上梁文)」^[문034]을 저술하였다. 상량문에는 그간 법당의 중창 이력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번의 중창은 진불암에 주석하고 있던 무위 안인(無爲安忍)과 벽해 채홍(碧海采泓), 춘파 유찬(春坡宥粲)의 주도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진불암의 중창 이력

시기	이력
1710년	중건
1750년	민상(敏祥)이 중건하고 지눌(智訥)이 개금(改金) 화주가 됨
1777년	벽파 쟈관과 취암 유명이 중건함
1865년	무위 안인, 벽해 채홍, 춘파 유찬이 화주가 되어 중건함

또한 범해는 진불암의 사적기인 『진불암지(眞佛庵志)』를 편찬하고 그 서문인 「진불암지서(眞佛庵志序)」^[문049]를 저술하였다. 서문에는 무위 안인의 권유로 진불암지를 편찬하였으며, 이는 대흥사 본사의 『죽미기(竹迷記)』와 『대둔사지(大菴寺志)』, 만일암의 『만일암지(挽日庵志)』에 이어서 편찬된 사적기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두 권의 『진불암지』를 간행하고, 두 권이 각각 누구에 의해 소장되었는지를 설명하였다. 한 부는 무위가 미방 김익로에게 청하여 써서 진불암에 소장하고, 다른 한 부는 범해가 소장하였는데, 상주의 선비 침산 이동환(李東煥)이 범해에게 청하여 책을 필사하고 직접 소장하였다고 한다.

현재 ABC에는 용흥사에서 수집한 발행년 미상의 『진불암지』(미상)와 1892년 발행된 『해남대둔사고진불암지(海南大菴寺古眞佛庵志)』의 원자료 이미지가 제공되고 있다. 이중 『진불암지』(미상)에는 위의 「두륜산진불암법당상량문」^[문034]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해남대둔사고진불암지』에는 권말에 “광저18년(1892년) 임진 8일 OO, 범해각안 O輯, 육파기운 증교, 원응계정 필O”이 적혀 있다.

「고진불사맹불량안서(古眞佛四孟佛糧案序)」^[문048]는 고진불암에서 1월, 4월, 7월, 10월의 사맹월(四孟月)을 위해 행해진 공양에 대하여, 그 내역을 기록한 불량안의

70) “庵有新古二院 基局幽闥殿宇宏桀 其在上層者曰 應真堂兼奉鑪堂 卽古眞佛 其在下層者曰 大雄殿兼寮舍 卽新眞佛”, 『진불암지』

서문을 작성한 것이다. 서문에 따르면, 자례(子禮) 승려가 범해에게 청을 올렸고, 범해는 이에 응하여 서문을 직접 작성하였다고 한다.

대흥사 진불암과 관련된 승려의 행적

승려	행적 유형	시기	출전
응화 유한	안거지		동사열전-낭암강사전
백련 도연	입적지	1807년 4월 3일	동사열전-백련선사전
한명 대운	수학처		동사열전-설우대사전
범해 각안	주석		동사열전-설우대사전
무위 안인	주석		범해선사유고-두륜산진불암법당상량문
벽해 채홍	주석		범해선사유고-두륜산진불암법당상량문
춘파 유찬	주석		범해선사유고-두륜산진불암법당상량문
춘파 유찬	주석		범해선사유고-고진불사맹불량안서
호의 시오	주석	1854년	동사열전-호의대사전

⑤ 상원암

상원암은 두륜봉 아래에 있는 암자로, 범해는 「두륜십경」^[사120]의 「상원진경(上院眞境)」에서 상원암을 불경 읽는 소리로 떠들썩한 곳이라고 묘사하였다.⁷¹⁾ 「범해선사행장」에서도 범해의 개당 이후, 상원암과 진불암은 보리의 법 도량이 되었다고 묘사되었다. 이로 보아, 상원암은 경전의 연구와 수행이 활발히 이루어진 공간이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보제회중학계안서(普濟會中學禊案序)」^[문040]는 상원암에서 결성된 학계(學禊)의 계안의 서문을 작성한 것이다. 이 학계는 승려 보공(普公)이 법당을 세우고 칠구지(七具胝)가 경방을 개시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보제회중(普濟會中)은 보공(普公)과 함께 수학하는 동문이거나 문인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계의 구성원들은 인당 10문(文)의 계금을 모았다. 모임의 구성원인 흰(暄) 상인이 범해와의 인연으로 계안의 서문을 요청하여 범해가 작성하였다.

범해는 또한 그가 직접 학계를 구성하기도 했다. 초의 의순의 문집인 『일지암문집』에는 「범해회중학계서(梵海會中學契序)」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범해의 동문이나 문인들로 구성된 학계가 조직되어 운영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보제회중학계안서」^[문040]에 등장하는 칠구지는 1856년 간행된 『대둔사상원중수기(大菴寺上院重修記)』에서도 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수기는 1856년 칠구지가 작성한 것으로, 1847년 칠구지가 상원암에 주석하게 된 이후 암자에서 행해

71) “境絕巖層萬疊屏。花樓咲話說經聲。”

진 3차례의 불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먼저 1850년 2월 8일부터 같은 해 6월 22일까지 진행된 중수로, 당시 불사에 참여한 인물과 승려, 그들이 보시한 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어서 같은 해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화승 해운을 불러 진행한 개금(改金)과 개채(改彩)의 내용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1852년 서울의 이희수(李喜修)가 시주하여 누각의 채색을 마무리하게 된 내용이다. 따라서 칠구지가 처음 상원암에 주석하게 된 시점이 1847년이라고 했을 때, 「보제회중학계안서」^[문040]는 그 이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범해는 상원암의 칠성전을 창건할 때 「두륜산상원암신건칠성전상량문(頭輪山上院庵新建七星殿上梁文)」^[문037]을 저술하였다. 상량문의 내용에 따르면, 서울 출신의 조봉근(趙鵬根)이라는 인물이 주도하여 상원암에 칠성전을 건립하게 되었고, 이 불사에 승려 교율(教律)이 화주를, 관준(寬俊)이 감독을 맡았다. 19세기 이후 전국 각지의 사찰에는 산신각과 마찬가지로 칠성전이 세워졌는데, 이는 민간신앙으로 자리 잡은 도교의 칠성신앙이 불교와 융합되면서 사찰 내에 독자적인 신앙 공간으로 형성된 결과라 할 수 있다.^[72]

대흥사 상원암과 관련된 승려의 행적

승려	행적 유형	시기	출전
응화 유한	안거지		동사열전-낭암강사전
철선 혜즙	입적지	1858년	동사열전-철선강사전
호의 시오	주석	1799년 봄	동사열전-호의대사전
백련 도연	주석		동사열전-호의대사전
완호 윤우	주석	1799년 정월 보름 이후	동사열전-완호강사전

⑥ 용마암 쾌년각

『동사열전』 「초의선사전」에는 초의 의순이 말년에 은신하여 살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일지암을 지었다고 전한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의 토굴을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용마암이고, 다시 몸을 마칠 움막을 세운 곳이 쾌년각^[73]이라고 하였다. 초의는 쾌년각에서 1865년 입적하였다. 『범해선사유고』에는 여러 시에서 쾌년각이 언급된다. 「제쾌년각(題快年閣)」^[시117]은 쾌년각을 제재로 한 시이며, 「쾌년각정영산홍(快年閣庭映山紅)」^[시158]은 쾌년각의 영산홍을 제재로 한 시이다. 또 「영산화(映山花)」^[시115]에서는 쾌년각에 피어난 영산홍을 옮겨다 진불암에 심었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화

72) 조선시대 칠성신앙의 전개와 불교화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김용태, 『조선 불교사상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1, 394-305쪽.

73) “不可匿者。名聲也。猶可露者。巴尾也。始構隱身之巢。一枝庵也。後結容膝之窟龍馬庵也。復立終身之幕。快年閣也。”, 『동사열전』 제4권

윤송하(和尹松下)」^[시118]는 윤송하에게 화답하는 시로, 쾌년각에서 하룻밤을 지새며 가슴속의 다하지 못한 정을 얘기한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3) 해남, 진도, 완도의 사찰

① 해남 : 은적암

『대둔사지』에는 대흥사에 예속된 인근 산중의 암자들이 세시마다 대흥사에 찾아와 예의를 갖추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해남의 금강산에 위치한 은적암도 이러한 사찰 중 하나였다. 범해는 「제은적사(題隱跡寺)」^[시1083]에서 은적사의 경관과 그 속에서 느낀 감상을 표현하였다. 「객은적(客隱跡)」^[시1063]은 두 수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수에서 범해는 자신의 나그네 생활을 물 위에 떠다니는 마름풀에 비유하면서, “일 년을 탐라(제주)의 나그네가 되었고, 반년은 기달(금강산)의 길손이 되었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1873년의 제주 유람과 1875년의 금강산 유람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첨찰산에서의 세 번의 여름 결제”는 범해가 진도 첨찰산 쌍계사에서 수행했던 세 번의 하안거를, “약사전에서 두 번의 봄을 보낸 것”은 은적암 약사전에서 보낸 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은적암산신각창건기(隱跡庵山神閣創建記)」^[문002]와 「화공양기(花供養記)」^[문003]는 범해가 은적암의 불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은적암산신각창건기」^[문002]는 은적암의 산신각 창건을 기록한 기문으로, 1872년 해남의 선비 김태희(金台禧)가 은적암 약사전의 주지 월여(月如)에게 기부하여 산신각을 건립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화공양기」^[문003]는 1877년 작성된 기문으로, 해남의 선비 이보일(李輔逸)과 김명순(金明淳)이 은적암에 꽃을 공양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이 두 기문은 모두 은적암의 연혁을 정리한 사적기인 『은적사사적(隱跡寺事蹟)』에 수록되어 있다. 『은적사사적』은 1882년 범해가 직접 편찬하고, 1883년에 원응 계정이 필사해 간행한 것이다. 『은적사사적』에 수록된 「은적암산신각창건기(隱跡庵山神閣創建記)」는 기문의 저술 연대를 1872년 4월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범해가 쓴 창건기 외에도 1877년에 백파 신현구가 저술한 또 다른 산신각 창건기도 확인된다. 특히 이 기문에서는 당시 은적암의 주지로 언급된 “월여”가 “월여상인 범운”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월여 범운(月如梵云)은 대흥사의 다비계(茶毗契) 조직을 기록한 『다비계안(茶毗契案)』에서도 확인되는 인물이다. 대흥사와 은적암이 불사와 사찰 운영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은적사사적』에 수록된 여러 기록과 시문의 저자 및 승려들은 『범해선사유고』에 등장하는 인물과 상당히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범해와 관련된 인물들이

은적사와 대흥사의 불사에 깊이 관여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해남 : 성도암
- ③ 해남 : 미황사 상수암
- ④ 진도 : 쌍계사
- ⑤ 완도 : 관음암

(4) 전라도 일대의 사찰

- ① 태안사

- ② 백련사

- ③ 백양사 청류암

- ④ 고성암

- ⑤ 보림사

- ⑥ 법천사

- ⑦ 미륵사

3) 유불의 교유

『범해선사유고』에는 인물과의 교유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여러 시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시문으로는 차운시, 화답시, 증시(贈詩), 송별시, 애도시, 편지[書] 등이 있으며, 전체 366편의 시문 중에서 86편의 시문이 이에 해당한다. 시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총 73명인데, 이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인물로는 신현구(申獻求, 1823-1902), 이희풍(李喜豐, 1813-1886), 박모(朴模, 1828-1900), 허련(許鍊, 1809-1892), 정대림(丁大林, 1807-1895), 백낙륜(白樂倫, 1709-미상), 심상학(沈相學, 1845-?), 이돈상(李敦相, 1815-?), 이용관(李容觀), 이규태(李圭泰, 1841-1895), 김각, 이동환(李東煥, 1827-?), 이남집, 정학무, 이병원(李炳元)을 들 수 있다. 식별이 어려운 인물들의 경우 시의 내용이나 시제(詩題)에 병기된 인물의 관직이나 호칭 등을 통해 인물의 신분이나 특징을 유추해볼 수 있다. 다음은 범해 각안이 교유한 인물들을 정리한 것이다.

『범해선사유고』 출현 인물

구분	인물	특징	관련 시문
식별	신현구(申獻求)	1875-1880년 해남 거주	시060, 시061, 시251,

구분	인물	특징	관련 시문
미 식별	이희풍(李喜豐)	해남 거주	문067, 문068
	박모(朴模)	해남 문인	시061, 시077, 시114
	허련(許鍊)	진도 거주	시151, 문063
	정대림(丁大林)	정약용의 손자, 청양부사	시075, 시261
	백낙운(白樂倫)	진도 군수: 1879년 6월 부임	문064, 문066
	심상학(沈相學)	어사	시075
	이돈상(李敦相)		시086
	이용관(李容觀)		시102
	이규태(李圭泰)		시138
	김각		시139
	이동환(李東煥)		시237
	이남집		시244
	정학무		시281
	이병원(李炳元)		시281
	김금사		문012
	임취정		시007
	양백오		시029, 시030
	윤백은		시088
	김익로		시161
	조신암		시162
	강매오		시003
	강용운		시040
	강제호		시048
	김구암		시029, 시030
	김내열		시070
	김도암		시235
	김만취		시002
	김사인		시150
	김소운		시062
	김송남		시162
	김여종		시167
	김옥산		시223
	김용		시066
	김용은		시254
	김호군		시277
	김호은		시045
	민공		시004
	박매계		시160
	박우곡		시242
	박처사		시170
	백다천		시075
	수상		시140
	손좌수		시009
	신참판		문073
	안기선		시104

구분	인물	특징	관련 시문
	안산림		시042
	유위계		시123
	윤성문		시202
	윤송하		시118
	윤해고		시136
	이사백		시112
	이학봉		시044
	임남고		시157
	전송촌		시157
	장남사		시264
	장비장		시127
	김학관		시127
	장연부사		문065
	정치은		시028
	조만호		시153
	조사백		시116
	조시찰사		시159
	조인조		시121
	조판서		문069
	조행탄		시161
	채제암		시038
	최매은		시029, 시030
	최석치		시137, 시143
	최유재		시162
	허만택		시196
	허선달		문072
	황반계		시065

범해 각인이 교유한 인물들에서 보이는 주요한 특징은 범해가 주석했던 대흥사 주변 지역의 관리나 문인들과 주로 교유했다는 점이다. 김도암, 허만택은 완도에 거주하고 있었던 인물이며, 김용은은 진도에 살았던 인물이다.

이들과의 교유의 무대는 범해가 주석했던 대흥사를 비롯하여 대흥사 주변의 암자 등 사찰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인물과의 교유의 단서는 다른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백파, 송파, 은적사지, 진불암지, 승려들의 명, 찬, 기 등

시문들은 이와 같은 유불의 종교적 이념을 넘어선 우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담아내고 있다. 그중에서도 한유와 태전의 의별, 호계삼소 등의 고사는 그러한 우의를 드러내는 관용적 표현이었다.

4) 승려의 유람

(1) 1844년 유람 : 경상남도, 전라도 일대

(2) 1873년 유람 : 제주 일대

구분	유람 경로 및 사건		
해남 출항 ~	해남 이현에서 출발하여 소완도 비자동 앞바다까지 이동(해로)		
제주 입항	소완도 비자동 앞바다에서 제주 조천포 선창까지 이동(해로)		
제주목	강순 집에서의 유숙		
	안산 임달삼 방문		
	제주읍성 내부	칠성동 나중경 가숙에서 장방 방문	
		제주목관아	이복희 제주목사 방문하여 망월루에서 차담
		방문	김기홍 제주판관 방문
			관덕정 방문*
	삼성혈 관람		
	애월진 명천에서 목욕*		
	귀덕 지남**		
	명월의 연신각 방문**		
대정현	차구 지남		
	대정 이명백 집에서의 유숙		
	대정현성 내부	장덕오 대정현감 방문	
		추사 유배지 방문	
	모슬진 방문		
	가파도 방문(해로)		
	산방굴사 터 방문		
	감산 서청 방문		
	창천 양오일 집에서의 유숙		
	상예에서 오수좌 방문		
정의현	법환의 서불과지 암각 관람		
	서구진 지남		
	정방폭포 관람		
	수산진 방문		
	정의 정옥구 집 방문		
	정의현성 내부	이병한 정의현감 방문	
		정의현성 동헌 방문*	
	형산 일출봉 지남		
제주목	별방진 지남		
	봉개 지남		
	연북정 방문		
	화북진 방문		
제주 출항	제주 ~ 육지 이동(해로)		

자서전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 자서전 기록과 다른 경로(**)

(3) 1875년 유람: 한양, 함경도, 충청도, 전라도 일대

IV. 지식의 아카이브 구현을 위한 데이터 모델 설계

1. 시맨틱 모델링

이 장에서는 3장에서 수행한 『범해선사유고』에 관한 지식의 탐색과 자원 수집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맨틱 모델링(Semantic Modeling)의 과정을 진행하고자 한다. 시맨틱 모델링이란 정보화의 대상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드러내기 위해 그 구성 요소 사이의 의미론적 맥락(Semantic Context)을 정의하는 일을 말한다.⁷⁴⁾

『범해선사유고』에 관한 지식과 자원의 세계가 어떠한 성격의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개별 시문에 관한 지식요소를 발굴하고, 지식요소 간의 의미 관계를 정의하였다.

먼저 지식요소 발굴은 시문에서 중점적으로 묘사하거나 서술하는 중심 소재를 비롯하여, 시문의 저술 배경이나 역사적 상황 등과 같은 시문의 맥락을 구성하는 인물, 장소, 문헌, 사물, 사건, 개념 등의 정보 요소들을 탐색하고 식별하는 과정을 말한다. 지식요소는 지식의 아카이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정보 요소라는 점에서 지식 요소라 하였다.

향후에 이어질 시문에 관한 지식을 데이터로 표현하기 위한 기초단계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시문의 내용 해설을 텍스트의 형태로 기술하는 것을 디지털 환경에서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식요소 발굴은 단순히 텍스트 내의 어휘를 기계적으로 수집하고 분류하는 과정이 아니며, 오히려 텍스트가 담아내지 못한 맥락을 탐색하고 그 맥락이 데이터로 기술될 수 있도록 관련된 사항들을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구조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지식요소는 또한 시문의 맥락을 다양한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유용하다.

이와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지식요소를 구분하고, 각 지식요소별로 의미 관계를 정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74) 김현, '디지털 큐레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와 기술', 2024년 한국학대학원 「인문정보 학입문」 강의 자료, 4쪽. ([https://dh.aks.ac.kr/~tutor/Documents/PDF/2024/김현-2024-디지털큐레이션\(02\).pdf](https://dh.aks.ac.kr/~tutor/Documents/PDF/2024/김현-2024-디지털큐레이션(02).pdf))

1) 기록물 정보

(1) 시문집

- 승려문집, 문인문집 등 시문집에 수록된 개별 시문을 별도의 기록물(Record)로 구분하고, 문집과 기록물에 관한 기본적인 서지 정보를 데이터로 표현
 - 시문집-[isCollectionOf]-승려·인물
 - 시문집-[hasVersion]-시문집 판본
 - 시문집-[publisher]-발행처
 - 시문집-[hasWriter]-저자
 - 시문집-[hasPart]-문집 수록 시문
 - 문집 수록 시문-[hasWriter]-저자
 - 문집 수록 시문-[isShownAt]-웹자원(원문열람 아카이브: ABC, 고전종합DB)
- 시문의 주요 묘사, 서술 대상에 관한 정보
 - 승려·인물·사찰·장소·문헌·사물·사건·개념-[isAbout]-시문
- 시문의 수발신자, 증여와 관련된 정보
 - 문(편지)-[hasSender]-승려·인물
 - 문(편지)-[hasRecipient]-승려·인물
 - 문(편지)-[hasCarrier]-승려·인물
 - 시-[isWrittenFor]-승려·인물
- 시문 간의 관계
 - 차운시-[rhymeWith]-원운
 - 화답시-[isReplyTo]-원운
- 시문이 기록된 대상
 - 시문-[isWrittenOn]-사찰·장소·문헌·사물

(2) 사찰 문서

- 사적기(예: 대둔사지): 내용에 따라 항목을 구분하여 별도의 기록물로 구분
 - 사적기-[hasPart]-사적기의 세부 항목
 - 사적기의 세부 항목-[mentions]-승려·인물·사찰·장소·문헌·사물·사건·개념

- 사적기의 세부 항목-[isAbout]-승려·인물·사찰·장소·문헌·사물·사건·개념
- 목록류(예: 천불조성록, 원장선생안, 위토원입록): 문헌을 구성하는 서발문, 개별 좌목 등을 각각 별도의 기록물로 구분
 - 문헌-[hasPart]-서발문
 - 문헌-[hasPart]-개별 좌목

(5) 고승전

- 고승전(예: 동사열전, 조당집, 송고승전 등)에 수록된 개별 고승의 전기를 별도의 기록물로 구분하고, 해당 기록물(전기)과 승려와의 관계 정보를 데이터로 표현
 - 고승전-[hasPart]-개별 고승의 전기
 - 개별 고승의 전기-[isAbout]-승려

(6) 공안집

- 공안집(예: 선문염송)에 수록된 개별 공안을 별도의 기록물로 구분
 - 공안집-[hasPart]-개별 공안

(7) 금석문

- 탑비와 탑비에 새겨진 금석문을 각각 사물과 기록물로 구분하고, 금석문을 중심으로 제작자 정보를 데이터로 표현
 - 탑비-[hasInscription]-금석문
 - 금석문-[hasWriter]-지은이(찬자)
 - 금석문-[hasCalligrapher]-글씨 쓴 이(서자)
 - 금석문-[hasTitleCalligrapher]-전액의 글씨 쓴 이(전액 서자)
 - 금석문-[hasInscriber]-글씨 새긴 이(각자)
 - 문집 수록 비문-[sameAs]-금석문

(8) 그림

- 불화와 진영은 사물로 구분
- 문헌에 수록된 변상도의 경우 개별 기록물로 구성
 - 문헌-[hasPart]-문헌 수록 변상도
 - 변상도-[depicts]-승려·인물·사찰·장소·개념

(9) 지리지와 고지도

- 지리지의 편찬 체계와 내용에 따라 항목을 구분하여 개별 기록물로 구성
 - 지리지-[hasPart]-개별 항목
 - 지리지-[hasPart]-지리지 수록 고지도

(10) 불교문헌목록

- 기록물이 대장경에 수록된 경전이거나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된 문헌일 경우 포함 관계를 표현
 - 불교문헌목록-[contains]-기록물

(11) 아카이브 소장 정보

- 디지털 아카이브의 원문열람: 기록물-[isShownAt]-웹자원

2) 승려 정보

(1) 사승 관계

- 승려의 법맥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승 관계의 유형을 구분
 - 은사(양육사): isBeneficentMasterOf@시기 (hasBeneficentDisciple)
 - 계사(수계사): isPreceptorOf@시기
 - 보살계: isBodhisattvaPreceptorOf@시기
 - 법사(전법사): isDharmaMasterOf@시기 (hasDharmaDisciple)
 - 선법: isSeonMasterOf@시기
 - 일반적인 수학의 관계: isTeacherOf@시기 (hasStudent)

(2) 사찰과의 관계

- 승려와 사찰의 관계
 - 출가지: 승려-[enteredMonasticLifeAt@시기]-사찰
 - 수계지: 승려-[ordinationPlace@시기]-사찰
 - 주석처: 승려-[staysAt@시기]-사찰
 - 강학처: 승려-[studyPlace@시기]-사찰
 - 안거지: 승려-[retreatPlace@시기]@안거유형]-사찰
 - 입적지: 승려-[deathPlace@시기]-사찰

(3) 호칭과 관직

- 호칭을 개념 정보로 구분하여 승려의 호칭 정보 기술
 - 승려-[hasTitle]-호칭
- 승려가 역임했던 관직(직역)을 개념 정보로 구분하여 승려의 관직 정보 기술
 - 승려-[servesAs]-관직

(4) 추정 사례

- 문집에 등장하는 승려 중에는 구체적인 법명이나 법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례가 많음. 그러나 문집의 내용을 단서로 하고, 사찰의 여러 고문헌이나 고승전류 등의 기록물의 내용을 검토하면 인물을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추정의 내용과 근거 자료들을 기록물 정보의 표현 방법에 따라 시맨틱 데이터로 표현하고, 문집 등장 승려와 추정 승려의 관계를 기술함
 - 승려-[isAssumedAs]-추정 승려

(5) 웹 자원

- 온라인 사전: 승려·인물·사찰·장소·개념-[isShownAt]-웹자원

3) 인물정보

(1) 친족 관계

- 부부: 남편-[hasWife]-아내
- 아들: 아버지·어머니-[hasSon]-아들
- 딸: 아버지·어머니-[hasDaughter]-딸
- 양자: 아버지-[hasAdoptedSon]-아들
- 손자: 할아버지-[hasGrandSon]-손자
- 형제: 형-[hasBrother]-동생
- 조카: 삼촌-[hasNephew]-조카
- 후손: 조상-[hasDescendant]-후손

(2) 사제 관계

- 스승-[hasDisciple]-제자

(3) 관직 정보

- 인물-[servesAs]-관직

4) 단체정보

(1) 구성원

- 단체-[hasMember]-승려·인물

5) 사찰 정보

(1) 사찰의 연혁

- 문집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사찰이나 승려의 행적과 관련된 사찰을 중심으로, 사찰의 연혁과 관련된 내용을 데이터로 표현함
 - 창건 관련 인물: 사찰-[hasFounder@시기]-승려
 - 중창 관련 인물: 사찰-[hasRenovator@시기]-승려
 - 전신(前身): 전신 사찰-[isPredecessorOf]-계승 사찰
 - 사지(寺址): 사지-[isSiteOf]-사찰

(2) 사찰의 공간적 구성

- 산사(山寺)로서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찰이 위치한 산의 정보를 표현
 - 사찰-[isLocatedIn]-산
- 사찰과 사찰에 부속된 암자의 관계 정보
 - 사찰-[hasHermitage]-사찰 부속 암자
- 사찰을 구성하는 전각이나 세부 공간에 관한 정보를 표현하여 해당 전각이 어떤 사찰의 전각인지, 사찰의 또 다른 전각은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함
 - 사찰-[hasPart]-부속 전각 및 공간
- 전각의 종류에 관한 정보를 표현하여 유형별로 여러 사찰의 전각을 살펴볼 수 있게 함
 - 전각-[type]-전각 유형

(3) 사찰 설화

- 사찰과 관련된 설화를 개념으로 구분하여 사찰과의 관계 정보 기술
 - 설화-[isAbout]-사찰

6) 장소 정보

(1) 장소 간의 관계

- 장소 간의 상하위 포함 관계
 - 장소-[hasPart]-장소
- 장소 간의 상대적 위치
 - 장소-[isNorthOf]-장소
 - 장소-[isSouthOf]-장소
 - 장소-[isNearTo]-장소
- 장소의 이름은 속성 정보로 기술하되, 특별히 이름과 관련해서 관계성이 발생할 경우 이름 정보를 시맨틱 데이터로 표현
 - 장소-[hasOtherName]-장소

(2) 장소와 인물 간의 관계

- 인물의 거주지: 인물-[livesIn]-장소
- 장소의 배향 인물: 장소-[enshrines]-인물
- 장소의 설립·창건 인물: 장소-[hasFounder]-인물
- 장소의 중창 인물: 장소-[hasRenovator]-인물

7) 사건 정보

(1) 법회

- 법회(예: 대둔사무량회, 미황사만일회)를 사건 정보로 구성하여, 법회의 주관자, 참여자, 개최 장소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로 표현하고, 해당 사건(법회)의 출전이 되는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표현함
 - 법회-[hasAdministrator]-승려
 - 법회-[hasParticipant]-승려
 - 법회-[isHeldAt]-개최 장소
 - 법회-[hasSource]-출전 기록
 - 법회-[hasPart]-개별 법회

(2) 시주

- 시주를 사건 정보로 구성하여, 시주자, 시주 물품, 시주 대상, 시주자의 소속 사찰, 시주자의 관직 정보를 데이터로 표현하고, 해당 시주 사건의 출전이 되는 기

록물에 관한 정보를 표현함

- 시주 사건-[hasDonor@시기]-시주자(승려, 인물)
- 시주 사건-[donation@규모]-시주 물품
- 시주 사건-[donatedFor]-시주 대상
- 시주 사건-[donorAffiliation]-시주자의 소속 사찰
- 시주 사건-[donorPosition]-시주자의 관직
- 시주-[hasSource]-출전 기록

(3) 임명(부임)

- 임명을 사건 정보로 구성하여, 임명자, 임명 관직, 임명자의 소속 사찰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로 표현하고, 해당 사건의 출전이 되는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표현함
 - 임명 사건-[hasAppointee@시기]-임명자(피임자)
 - 임명 사건-[appointeePosition]-임명 관직
 - 임명 사건-[appointeeAffiliation]-임명자의 소속 사찰
 - 임명 사건-[hasSource]-출전 기록

(4) 유람

- 유람을 사건 정보로 구성하여, 유람을 구성하는 세부 여정들을 각각 하위 사건으로 구성하고, 유람의 출발지, 방문지, 도착지, 유람에 참여한 승려 및 인물, 유람지에서의 방문객, 해당 사건의 출전이 되는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로 표현
 - 유람 사건-[departure]-출발지
 - 유람 사건-[visitPlace@순서]-방문지
 - 유람 사건-[destination]-도착지
 - 유람 사건-[hasParticipant]-유람을 주도하거나 참여한 승려, 인물
 - 유람 사건-[visitWith]-유람지에서의 방문객
 - 유람 사건-[hasPart]-하위의 유람 사건
 - 유람 사건-[isPreviousTo]-다음의 유람 사건
 - 출전 기록-[mentions]-유람 사건

(5) 시간 정보를 활용한 사건의 재구성

- 문집에서 확인되는 시간 정보를 활용하여 개별 사건으로 재구성하고, 해당 사건의 출전이 되는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표현함

- 사건-[hasParticipant]-관련 인물
- 사건-[happenedAt]-발생 장소
- 출전 기록-[mentions]-사건

8) 사물 정보

(1) 탑비와 부도

- 탑비-[isSteleOf]-승려·인물·사찰·장소
- 부도-[isStupaOf]-승려
- 탑비·부도-[isLocatedIn]-사찰

(2) 유물 - 불상, 불탑 등

- 유물의 위치: 유물-[isLocatedIn]-사찰·장소
- 유물의 제작: 유물-[creationPlace]-사찰·장소
- 출토유물, 복장유물: 유물·기록물-[provenance]-사찰·장소·유물

(3) 현판

- 현판-[isLocatedIn]-사찰·장소
- 기록물-[sameAs]-현판

(4) 동식물

- 기록물-[isAbout]-동식물

(5) 자연현상

- 기록물-[isAbout]-자연현상

(6) 문화유산 정보

- 사찰·장소·기록물·사물-[isDesignatedAs]-문화유산
- 문화유산-[isShownAt]-웹자원(국가유산청 문화유산 정보 제공)

(7) 아카이브 소장 정보

- 디지털 아카이브의 소장품 확인: 사물-[isShownAt]-웹자원

9) 개념 정보

(1) 불교 고사

- 기록물-[mentions]-고사
- 고사-[isSourcedFrom]-출전

(2) 불교 용어

- 기록물-[mentions]-불교용어
- 기록물-[isAbout]-불교용어

2. 불교문화 지식정보의 시맨틱 데이터 편찬 모델 설계

이 장에서는 이상의 시맨틱 모델링의 내용을 토대로 『범해선사유고』의 지식의 아카이브를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고자 한다.

1) 온톨로지 개요

온톨로지는 정보화의 대상이 되는 세계를 전자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한 데이터 기술 체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범해선사유고』에 담긴 한국 불교문화의 의미적 맥락을 시맨틱 데이터로 표현하기 위한 온톨로지를 설계하고자 한다.

이 온톨로지는 ‘EBC(Encyvyes of Buddhist Culture, 불교문화의 백과사전적 아카이브)’로 명명하고자 한다. 이는 EKC Data Model이 개념적으로 근거하고 있는 백과사전적 아카이브(Encyves)의 구상을 불교기록문화유산에 관한 지식의 아카이브 구상에도 적용한 것이다. 백과사전적 아카이브는 단순한 데이터 나열에 그치지 않고, 지식과 그것이 근거하는 다양한 자원들이 의미론적인 맥락에서 상호 연결된 지식의 아카이브를 목표로 한다. 불교기록문화유산에 관한 지식의 정보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불교문화에 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의 아카이브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교문화의 백과사전적 아카이브라는 의미의 EBC라고 명명하였다.

데이터 모델은 OWL의 온톨로지 기술 체계를 기반으로 하되, 기존의 온톨로지 기술 체계가 담아내지 못하는 링크 데이터 기술의 영역을 보완하였다.

- OWL의 링크 데이터 기술 제약 보완하기 위해서 링크에 속성 기술

2) 클래스(Class) 설계

【표IV-】 불교문화 지식정보의 시맨틱 데이터 편찬 모델 - 클래스 목록

Section	Class	Description	
불교문화 문맥 정보	Record	Name	ebc:Record
		URI	http://dh.aks.ac.kr/ontology/ebc#Record
		Comment	기록물
	Monk	Name	ebc:Monk
		URI	http://dh.aks.ac.kr/ontology/ebc#Monk
		Comment	승려
	Person	Name	ebc:Person
		URI	http://dh.aks.ac.kr/ontology/ebc#Person
		Comment	인물
	Group	Name	ebc:Group
		URI	http://dh.aks.ac.kr/ontology/ebc#Group
		Comment	단체
	Temple	Name	ebc:Templ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Temple
		Comment	사찰
	Place	Name	ebc:Plac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Place
		Comment	장소
	Event	Name	ebc:Event
		URI	http://dh.aks.ac.kr/ontology/ebc#Event
		Comment	사건
	Object	Name	ebc:Object
		URI	http://dh.aks.ac.kr/ontology/ebc#Object
		Comment	사물
	Concept	Name	ebc:Concept
		URI	http://dh.aks.ac.kr/ontology/ebc#Concept
		Comment	개념
	Heritage	Name	ebc:Heritag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Heritage
		Comment	문화유산
불교문화	WebResource	Name	ebc:WebResource

Section	Class	Description	
자원 연계 정보	BuddhistCollection	URI	http://dh.aks.ac.kr/ontology/ebc#WebResource
		Comment	웹자원
		Name	ebc:BuddhistDocumentCatalog
	Story	URI	http://dh.aks.ac.kr/ontology/ebc#BuddhistCollection
		Comment	불교문헌목록
	Story	Name	ebc:Story
		URI	http://dh.aks.ac.kr/ontology/ebc#Story
		Comment	스토리

3) 속성(Attribute) 설계

(1) Record 클래스

Attribute	Description		
id	URI	http://dh.aks.ac.kr/ontology/ebc#id	
	Comment	식별자	
	Example		
	Domain	Any	Range xsd:string
category	URI	http://dh.aks.ac.kr/ontology/ebc#category	
	Comment	구분	
	Example		
	Domain	Any	Range xsd:string
korNam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korName	
	Comment	국문명	
	Example		
	Domain	Record	Range xsd:string
hanjaNam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hanjaName	
	Comment	한자표기	
	Example		
	Domain	Record	Range xsd:string
otherNam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otherName	
	Comment	이칭	
	Example		
	Domain	Record	Range xsd:string
genr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genre	
	Comment	장르	
	Example		
	Domain	Record	Range xsd:string
nation	URI	http://dh.aks.ac.kr/ontology/ebc#nation	
	Comment	국가	
	Example		
	Domain	Record	Range xsd:string

creationDat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creationDate		
	Comment	제작일		
	Example			
	Domain	Record	Range	xsd:string
extractionNot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extractionNote		
	Comment	출전정보		
	Example			
	Domain	Record	Range	xsd:string

(2) Monk 클래스

Attribute	Description		
id	URI	http://dh.aks.ac.kr/ontology/ebc#id	
	Comment	식별자	
	Example		
	Domain	Any	Range xsd:string
category	URI	http://dh.aks.ac.kr/ontology/ebc#category	
	Comment	구분	
	Example		
	Domain	Monk	Range xsd:string
korNam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korName	
	Comment	국문명	
	Example		
	Domain	Monk	Range xsd:string
hanjaNam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hanjaName	
	Comment	한자표기	
	Example		
	Domain	Monk	Range xsd:string
birthDat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birthDate	
	Comment	생년	
	Example		
	Domain	Monk	Range xsd:string
deathDat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deathDate	
	Comment	몰년	
	Example		
	Domain	Monk	Range xsd:string
gender	URI	http://dh.aks.ac.kr/ontology/ebc#genre	
	Comment	성별	
	Example		
	Domain	Monk	Range xsd:string
nation	URI	http://dh.aks.ac.kr/ontology/ebc#nation	
	Comment	국가	
	Example		
	Domain	Monk	Range xsd:string
beopho	URI	http://dh.aks.ac.kr/ontology/ebc#beopho	
	Comment	법호	
	Example		

	Domain	Monk	Range	xsd:string
beopmyeong	URI	http://dh.aks.ac.kr/ontology/ebc#bopmyeong		
	Comment			
	Example			
	Domain	Monk	Range	xsd:string
dangho	URI	http://dh.aks.ac.kr/ontology/ebc#dangho		
	Comment	당호		
	Example			
	Domain	Monk	Range	xsd:string
ja	URI	http://dh.aks.ac.kr/ontology/ebc#ja		
	Comment	자		
	Example			
	Domain	Monk	Range	xsd:string
sokmyeong	URI	http://dh.aks.ac.kr/ontology/ebc#sokmyeong		
	Comment	속명		
	Example			
	Domain	Monk	Range	xsd:string
otherNam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otherName		
	Comment	이칭		
	Example			
	Domain	Monk	Range	xsd:string
clan	URI	http://dh.aks.ac.kr/ontology/ebc#clan		
	Comment	본관		
	Example			
	Domain	Monk	Range	xsd:string
homeland	URI	http://dh.aks.ac.kr/ontology/ebc#homeland		
	Comment	출신지역		
	Example			
	Domain	Monk	Range	xsd:string

(3) Person 클래스

Attribute	Description		
id	URI	http://dh.aks.ac.kr/ontology/ebc#id	
	Comment	식별자	
	Example		
	Domain	Any	Range xsd:string
category	URI	http://dh.aks.ac.kr/ontology/ebc#category	
	Comment	구분	
	Example		
	Domain	Person	Range xsd:string
korNam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korName	
	Comment	국문명	
	Example		
	Domain	Person	Range xsd:string
hanjaNam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hanjaName	
	Comment	한자표기	

	Example			
	Domain	Person	Range	xsd:string
birthDat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birthDate		
	Comment	생년		
	Example			
deathDate	Domain	Person	Range	xsd:string
	URI	http://dh.aks.ac.kr/ontology/ebc#deathDate		
	Comment	몰년		
gender	Example			
	Domain	Person	Range	xsd:string
	URI	http://dh.aks.ac.kr/ontology/ebc#gender		
nation	Comment	성별		
	Example			
	Domain	Person	Range	xsd:string
nation	URI	http://dh.aks.ac.kr/ontology/ebc#nation		
	Comment	국가		
	Example			
ho	Domain	Person	Range	xsd:string
	URI	http://dh.aks.ac.kr/ontology/ebc#ho		
	Comment	호		
ja	Example			
	Domain	Person	Range	xsd:string
	URI	http://dh.aks.ac.kr/ontology/ebc#ja		
ja	Comment	자		
	Example			
	Domain	Person	Range	xsd:string
otherNam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otherName		
	Comment	이름		
	Example			
clan	Domain	Person	Range	xsd:string
	URI	http://dh.aks.ac.kr/ontology/ebc#clan		
	Comment	본관		
homeland	Example			
	Domain	Person	Range	xsd:string
	URI	http://dh.aks.ac.kr/ontology/ebc#homeland		
homeland	Comment	출신지역		
	Example			
	Domain	Person	Range	xsd:string

(4) Group 클래스

Attribute	Description		
id	URI	http://dh.aks.ac.kr/ontology/ebc#id	
	Comment	식별자	
	Example		
	Domain	Any	Range xsd:string
category	URI	http://dh.aks.ac.kr/ontology/ebc#category	

	Comment	구분		
	Example			
	Domain	Group	Range	xsd:string
korNam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korName		
	Comment	국문명		
	Example			
	Domain	Group	Range	xsd:string
hanjaNam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hanjaName		
	Comment	한자표기		
	Example			
	Domain	Group	Range	xsd:string
otherNam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otherName		
	Comment	이칭		
	Example			
	Domain	Group	Range	xsd:string
startDat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startDate		
	Comment	시작일		
	Example			
	Domain	Group	Range	xsd:string
endDat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endDate		
	Comment	종료일		
	Example			
	Domain	Group	Range	xsd:string

(5) Temple 클래스

Attribute	Description		
id	URI	http://dh.aks.ac.kr/ontology/ebc#id	
	Comment	식별자	
	Example		
	Domain	Any	Range xsd:string
category	URI	http://dh.aks.ac.kr/ontology/ebc#category	
	Comment	구분	
	Example		
	Domain	Temple	Range xsd:string
korNam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korName	
	Comment	국문명	
	Example		
	Domain	Temple	Range xsd:string
hanjaNam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hanjaName	
	Comment	한자표기	
	Example		
	Domain	Temple	Range xsd:string
otherNam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otherName	
	Comment	이칭	
	Example		
	Domain	Temple	Range xsd:string

region	URI	http://dh.aks.ac.kr/ontology/ebc#region		
	Comment	지역		
	Example			
	Domain	Temple	Range	xsd:string
existenceStatus	URI	http://dh.aks.ac.kr/ontology/ebc#existence		
	Comment	존재상태		
	Example			
	Domain	Temple	Range	xsd:string

(6) Place 클래스

Attribute	Description		
id	URI	http://dh.aks.ac.kr/ontology/ebc#id	
	Comment	식별자	
	Example		
	Domain	Any	Range xsd:string
category	URI	http://dh.aks.ac.kr/ontology/ebc#category	
	Comment	구분	
	Example	자연지명 행정지명 건조물	
	Domain	Place	Range xsd:string
korNam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korName	
	Comment	국문명	
	Example		
	Domain	Place	Range xsd:string
hanjaNam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hanjaName	
	Comment	한자표기	
	Example		
	Domain	Place	Range xsd:string
otherNam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otherName	
	Comment	이칭	
	Example		
	Domain	Place	Range xsd:string
region	URI	http://dh.aks.ac.kr/ontology/ebc#region	
	Comment	지역	
	Example		
	Domain	Place	Range xsd:string
existenceStatus	URI	http://dh.aks.ac.kr/ontology/ebc#existenceStatus	
	Comment	존재상태	
	Example		
	Domain	Place	Range xsd:string

(7) Event 클래스

Attribute	Description		
id	URI	http://dh.aks.ac.kr/ontology/ebc#id	
	Comment	식별자	

	Example			
	Domain	Any	Range	xsd:string
category	URI	http://dh.aks.ac.kr/ontology/ebc#category		
	Comment	구분		
	Example			
	Domain	Event	Range	xsd:string
nam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label		
	Comment	명칭		
	Example			
	Domain	Event	Range	xsd:string
startDat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startDate		
	Comment	시작일		
	Example			
	Domain	Event	Range	xsd:string
endDat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endDate		
	Comment	종료일		
	Example			
	Domain	Event	Range	xsd:string
duration	URI	http://dh.aks.ac.kr/ontology/ebc#duration		
	Comment	기간		
	Example			
	Domain	Event	Range	xsd:string
notBefor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notBefore		
	Comment	최소 발생 시점		
	Example			
	Domain	Event	Range	xsd:string
notAfter	URI	http://dh.aks.ac.kr/ontology/ebc#notAfter		
	Comment	최대 발생 시점		
	Example			
	Domain	Event	Range	xsd:string

(8) Object 클래스

Attribute	Description		
id	URI	http://dh.aks.ac.kr/ontology/ebc#id	
	Comment	식별자	
	Example		
	Domain	Any	Range xsd:string
category	URI	http://dh.aks.ac.kr/ontology/ebc#category	
	Comment	구분	
	Example		
	Domain	Object	Range xsd:string
korNam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korName	
	Comment	국문명	
	Example		
	Domain	Object	Range xsd:string
hanjaNam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hanjaName	

	Comment	한자표기		
	Example			
	Domain	Object	Range	xsd:string
otherNam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otherName		
	Comment	이칭		
	Example			
	Domain	Object	Range	xsd:string
creationDat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creationDate		
	Comment	제작일		
	Example			
	Domain	Object	Range	xsd:string
existenceStatus	URI	http://dh.aks.ac.kr/ontology/ebc#existenceStatus		
	Comment	존재상태		
	Example			
	Domain	Object	Range	xsd:string

(9) Concept 클래스

Attribute	Description		
id	URI	http://dh.aks.ac.kr/ontology/ebc#id	
	Comment	식별자	
	Example		
	Domain	Any	Range xsd:string
category	URI	http://dh.aks.ac.kr/ontology/ebc#category	
	Comment	구분	
	Example		
	Domain	Concept	Range xsd:string
korNam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korName	
	Comment	국문명	
	Example		
	Domain	Concept	Range xsd:string
hanjaNam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hanjaName	
	Comment	한자표기	
	Example		
	Domain	Concept	Range xsd:string
otherNam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otherName	
	Comment	이칭	
	Example		
	Domain	Concept	Range xsd:string
description	URI	http://dh.aks.ac.kr/ontology/ebc#description	
	Comment	설명	
	Example		
	Domain	Concept	Range xsd:string

(10) Heritage 클래스

Attribute	Description		
id	URI	http://dh.aks.ac.kr/ontology/ebc#id	
	Comment	식별자	
	Example		
	Domain	Any	Range xsd:string
category	URI	http://dh.aks.ac.kr/ontology/ebc#category	
	Comment	구분	
	Example		
	Domain	Heritage	Range xsd:string
korNam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korName	
	Comment	국문명	
	Example		
	Domain	Heritage	Range xsd:string
hanjaNam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hanjaName	
	Comment	한자표기	
	Example		
	Domain	Heritage	Range xsd:string

(11) WebResource 클래스

Attribute	Description		
id	URI	http://dh.aks.ac.kr/ontology/ebc#id	
	Comment	식별자	
	Example		
	Domain	Any	Range xsd:string
category	URI	http://dh.aks.ac.kr/ontology/ebc#category	
	Comment	구분	
	Example		
	Domain	WebResource	Range xsd:string
nam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label	
	Comment	명칭	
	Example		
	Domain	WebResource	Range xsd:string
siteNam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siteName	
	Comment	사이트명	
	Example		
	Domain	WebResource	Range xsd:string
provider	URI	http://dh.aks.ac.kr/ontology/ebc#provider	
	Comment	제공	
	Example		
	Domain	WebResource	Range xsd:string
url	URI	http://dh.aks.ac.kr/ontology/ebc#url	
	Comment	URL	
	Example		
	Domain	WebResource	Range xsd:string

(12) BuddhistCollection 클래스

Attribute	Description		
id	URI	http://dh.aks.ac.kr/ontology/ebc#id	
	Comment	식별자	
	Example		
	Domain	Any	Range xsd:string
category	URI	http://dh.aks.ac.kr/ontology/ebc#category	
	Comment	구분	
	Example	경전 총서	
	Domain	BuddhistDocumentCatalog	Range xsd:string
korNam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korName	
	Comment	국문명	
	Example		
	Domain	BuddhistDocumentCatalog	Range xsd:string
hanjaNam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hanjaName	
	Comment	한자표기	
	Example		
	Domain	BuddhistDocumentCatalog	Range xsd:string
otherNam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otherName	
	Comment	이칭	
	Example		
	Domain	BuddhistDocumentCatalog	Range xsd:string
indexNumber	URI	http://dh.aks.ac.kr/ontology/ebc#indexNo	
	Comment	문헌 번호	
	Example		
	Domain	BuddhistDocumentCatalog	Range xsd:string

(13) Story 클래스

Attribute	Description		
id	URI	http://dh.aks.ac.kr/ontology/ebc#id	
	Comment	식별자	
	Example		
	Domain	Any	Range xsd:string
category	URI	http://dh.aks.ac.kr/ontology/ebc#category	
	Comment	구분	
	Example	Topic Episode	
	Domain	Story	Range xsd:string
nam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name	
	Comment	국문명	

	Example			
	Domain	Story	Range	xsd:string
description	URI	http://dh.aks.ac.kr/ontology/ebc#description		
	Comment	설명		
	Example			
	Domain	Story	Range	xsd:string

4) 관계어(Relation) 설계

relation	label	domain	range
isAbout	A는 B에 관한 것이다	Record, Object	Any
depicts	A는 B를 묘사하다	Record, Object	Any
mentions	A는 B를 언급한다	Record	Any
hasWife	A의 부인은 B이다	Person	Person
hasSon	A의 아들은 B이다	Person	Person, Monk
hasAdoptedSon	A의 양자는 B이다	Person	Person
hasGrandSon	A의 손자는 B이다	Person	Person
hasDaughter	A의 딸은 B이다	Person	Person
hasBrother	A의 형제는 B이다	Person	Person
hasNephew	A의 조카는 B이다	Person	Person
hasDescendant	A의 후손은 B이다	Person	Person
hasInscription	A의 금석문은 B이다	Object	Record
hasCalligrapher	A의 서자(書者)는 B이다	Record	Person, Monk
hasTitleCalligrapher	A의 전액의 서자는 B이다	Record	Person, Monk
hasInscriber	A의 각자(刻者)는 B이다	Record	Person, Monk
hasWriter	A의 저자는 B이다	Record	Person, Monk
hasEditor	A의 편집자는 B이다	Record	Person, Monk
hasScribe	A의 필사자는 B이다	Record	Person, Monk
hasCreator	A의 제작자는 B이다	Record, Object	Person, Monk
hasSender	A의 발신자는 B이다	Record	Person, Monk
hasRecipient	A의 수신자는 B이다	Record	Person, Monk
hasCarrier	A의 전달자는 B이다	Record	Person, Monk
issuer	A의 발급자는 B이다	Record	Person, Monk
recipient	A의 수취자는 B이다	Record	Person, Monk

relation	label	domain	range
isBeneficentMasterOf	A는 B의 은사이다	Monk	Monk
isDharmaMasterOf	A는 B의 법사이다	Monk	Monk
isBodhisattvaPreceptorOf	A는 B의 보살계사이다	Monk	Monk
isPreceptorOf	A는 B의 계사이다	Monk	Monk
isSeonMasterOf	A는 B의 선스승이다	Monk	Monk
hasDharmaHeir	A의 법맥을 이어받은 후손은 B이다	Monk	Monk
hasSuccessor	A의 계승자는 B이다	Monk	Monk
hasDisciple	A의 제자는 B이다	Monk	Monk
isTeacherOf	A는 B의 선생님이다	Person, Monk	Person, Monk
isAssumedAs	A는 B로 추정된다	Monk	Monk
staysAt	A는 B에 주석했다	Monk	Temple
ordinationPlace	A의 수계지는 B이다	Monk	Temple
pravrajyaPlace	A의 출가지는 B이다	Monk	Temple
retreatPlace	A의 안거지는 B이다	Monk	Temple
deathPlace	A의 사망지(입적지)는 B이다	Person, Monk	Place, Temple
studyPlace	A의 강학처는 B이다	Monk	Temple
hasBranchTemple	A의 말사는 B이다	Temple	Temple
hasHermitage	A의 암자는 B이다	Temple	Temple
hasFounder	A의 설립자는 B이다	Place, Temple	Person, Monk
hasRenovator	A의 중건자는 B이다	Place, Temple	Person, Monk
isPredecessorOf	A는 B의 전신이다	Place, Temple	Place, Temple
hasOtherName	A의 다른 이름은 B이다	Place, Temple	Place, Temple
isNamedAfter	A는 B를 따라 이름지었다	Place, Temple	Concept
isNear	A는 B에 가까이 있다	Place, Temple	Place, Temple
isNorthOf	A는 B의 북쪽에 있다	Place, Temple	Place, Temple
isSouthOf	A는 B의 남쪽에 있다	Place, Temple	Place, Temple
isSiteOf	A는 B의 터이다	Place, Temple	Place, Temple
isLocatedIn	A는 B에 위치한다	Place, Temple, Object	Place, Temple
isCollectionOf	A는 B의 시문집이다	Record	Person, Monk

relation	label	domain	range
isCommentaryOf	A는 B의 주석서이다	Record	Record
hasVersion	A의 판본은 B이다	Record	Record
hasSource	A의 출처는 B이다	Record, Concept	Record
isReplyTo	A는 B의 화답시이다	Record	Record
isWrittenFor	A는 B를 위해 지어졌다	Record	Person, Monk
rhymeWith	A는 B이 차운시이다	Record	Record
hasContributor	A의 기여자는 B이다	Record, Object, Temple, Event	Person, Monk
hasMember	A의 구성원은 B이다	Group	Person, Monk
isSteleOf	A는 B의 비이다	Object	Place, Temple, Person, Monk
isStupaOf	A는 B의 승탑이다	Object	Monk
enshrines	A는 B를 제향한다	Place, Temple	Person, Monk
creationPlace	A의 제작장소는 B이다	Record, Object	Place, Temple
provenance	A의 출토지는 B이다	Object	Place, Temple
currentLocation	A의 현위치는 B이다	Record, Object	Place, Temple
livesIn	A는 B에 거주한다	Person, Monk	Place
hasDonor	시주사건 A에서 시주자는 B이다	Event	Place, Person
donorAffiliation	시주사건 A에서 시주자의 소속은 B이다	Event	Place, Temple
donorPosition	시주사건 A에서 시주자의 관직은 B이다	Event	Concept
donation	시주사건 A에서 시주물은 B이다	Event	Object
hasAppointee	임명사건 A에서 피임명자는 B이다	Event	Person, Monk
appointeeAffiliation	임명사건 A에서 임명자의 소속은 B이다	Event	Temple
appointeePosition	임명사건 A에서 임명자의 관직은 B이다	Event	Concept
hasAdministrator	사건 A의 주관자는 B이다	Event	Person, Monk

relation	label	domain	range
isHeldFor	A는 B를 위해 개최되다	Event	Person, Monk
isHeldAt	A는 B에서 개최되었다	Event	Place, Temple
happendAt	A는 B에서 일어나다	Event	Place, Temple
hasParticipant	A의 참석자는 B이다	Event	Person, Monk
visitPlace	유람 A의 방문지는 B이다	Event	Place, Temple
visitWith	유람 A의 동행자는 B이다	Event	Person, Monk
departure	유람 A의 출발지는 B이다	Event	Place, Temple
destination	유람 A의 도착지는 B이다	Event	Place, Temple
isPreviousTo	A의 다음 순서는 B이다	Event	Event
servesAs	A는 관직 B를 역임했다	Person, Monk	Concept
isPostOf	A는 B의 관직이다	Concept	Place, Temple
hasTitle	A의 호칭은 B이다	Person, Monk	Concept
isDesignatedAs	A의 문화유산 정보는 B이다	Any	Heritage
sameAs	A는 B와 동일하다	Record, Object	Record
hasType	A의 유형은 B이다	Any	Concept
hasPart	A는 부분 B가 있다	Any	Any
includes	A는 B를 포함한다	Concept, BuddhistCollection	Any
isRelatedTo	A는 B와 관련있다	Any	Any
isShownAt	A는 웹자원 B에 보인다	Any	WebResource
contains	A는 B에 수록되어 있다	BuddhistCollection	Record
hasContextualElement	A의 문맥요소는 B이다	Story	Story

3. 시맨틱 데이터의 스토리텔링을 위한 모델

EKC Data Model은 스토리 데이터를, 스토리 노드와 스토리를 구성하는 지식의 정보망 상의 노드를 선별하여 연계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으며, 특정 스토리에 관한 노드를 통해 스토리의 관계망이 만들어지게 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이 노드를 중심으로 하는 스토리 데이터의 구성 방식이라고 한다면, 본 연구에서는 링크를 중심으로 하는 스토리 데이터의 구성 방식을 함께 포함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시맨틱 데이터의 본질적인 특성은 의미론적 맥락을 지식 요소 간의 관계, 즉 링크를 통해 기술하는 데 있으며, 링크를 통해 데이터의 연결성 및 맥락이 더욱 명확히 전달될 수 있다. 노드를 중심으로 한 구성 방식은 개별 정보의 중요성에 중점을 두지만, 링크를 중심으로 구성된 스토리 데이터는 정보들 간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춰, 스토리가 좀 더 유기적이고 명료하게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V. 『범해선사유고』의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1.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환경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구축:

- 시맨틱 데이터의 링크 데이터 보완
- 스토리 데이터의 이중적 구성

2. Factual Data 편찬 내용

(네트워크의 유형/패턴별로 보일 수 있도록 목차 구성 예정)

3. Factual Data를 활용한 Story Data 편찬 내용

- 1) 대홍사 승탑원의 승려들
- 2) 범해 각안이 수락산 덕사에 유숙한 인연
- 3) 범해 각안의 제주 유람
- 4) 정약용 가문과 대홍사 승려들의 대를 이어 온 교유
- 5) 범해선사유고를 통해 읽는 불가의 옛 이야기

절의 세부 구성:

- (1) 스토리의 개요 (스토리의 전체적인 내용, 에피소드 목록 제시)
- (2) 시맨틱 스토리 데이터 (에피소드별 네트워크 그래프와 함께 데이터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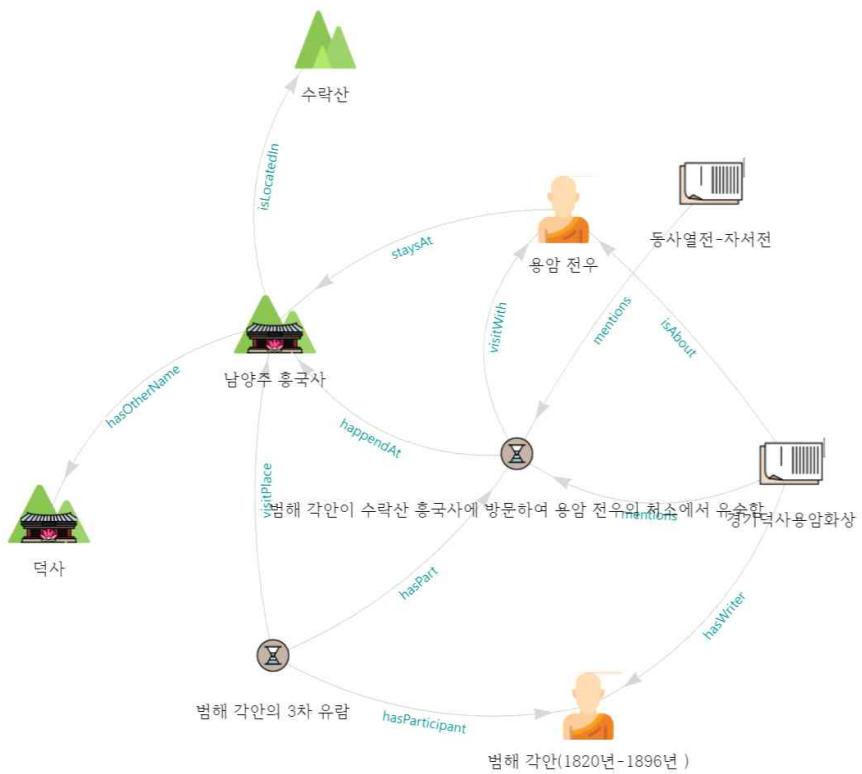
○ 범해 각안이 수락산 덕사에 유숙한 인연

『범해선사유고』에는 범해 각안이 수락산 덕사(德寺, 지금의 남양주 흥국사)의 용암 전우(庸庵典愚)를 방문하고 나서 지은 시가 한 편 수록되어 있다. 『동사열전』의 「자서전」에는 구체적으로 1875년 범해가 금강산을 유람하러 가는 길에 용암 화상의 산방(山房)에서 이틀을 머물렀다는 내용이 등장하기도 한다. 용암은 대흥사 12종사 중 한 명인 함월 해원(涵月海源, 1691-1770년)의 문손이다. 범해 각안과 용암 전우의 관계를 쫓아가면 함월 해원의 문손들이 대흥사와 맺고 있었던 구체적인 관계의 면모를 확인해볼 수 있다.

*에피소드 목록:

1	Episode-범해 각안이 유람에서 용암 전우를 만남
2	Episode-범해 각안이 유람에서 영허 선영을 만남
3	Episode-범해 각안과 철요 사문과의 인연
4	Episode-함월 해원 문손들의 법맥
5	Episode-뇌묵 등린의 표충사원장 역임
6	Episode-함월 해원 탑비의 대흥사 이건
7	Episode-성암 덕함과 인봉 덕준의 천불전 불상 시주
8	Episode-문담 원장과 용암 전우의 표충사 위토
9	Episode-문담 원장과 용암 전우의 헌답 명문

1 Episode-범해 각안이 유람에서 용암 전우를 만남



-범해선사유고>경기도 덕사의 용암 화상 → 용암 전우

경기도 덕사(德寺)의 용암 화상(庸庵和尚)

수락산 속의 흥국사로 / 水落山中興國寺

용암을 참배하려 남에서 왔다네 / 爲參庸老自南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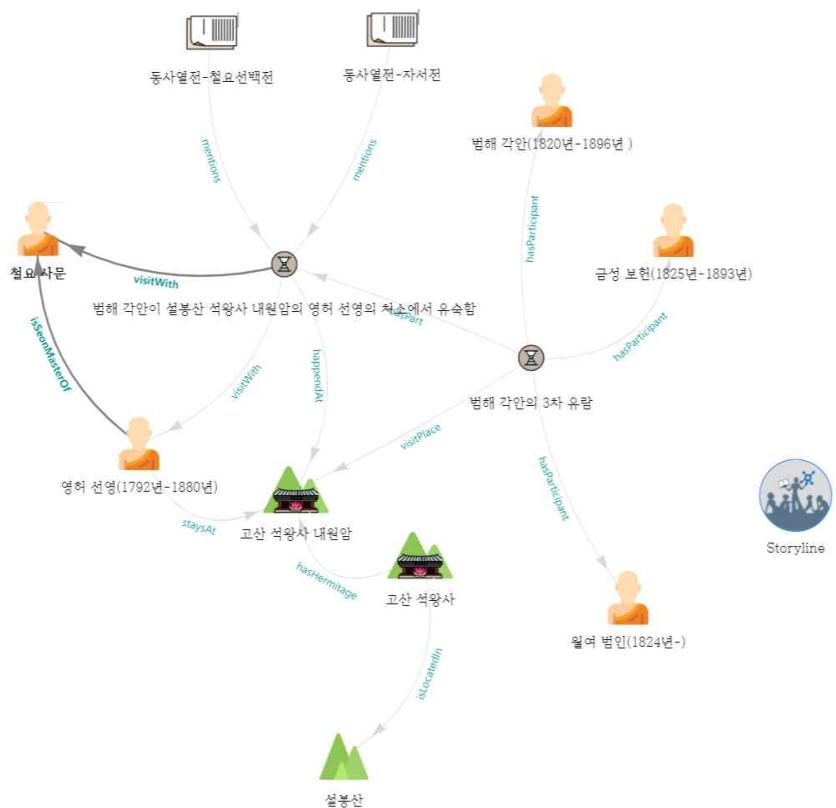
자비의 향기 장실에 가득하여 / 慈悲滿室熏餘地

천 리 길 나그네 두 눈이 뜨이네 / 千里行人兩眼開

-동사열전>자서전 → 용암 전우

이튿날 남산에 올라가 장안長安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수락산 덕사德寺에 이르러 용암庸庵 스님의 산방山房에서 이틀 밤을 잤다.

2 Episode-범해 각안이 유람에서 영허 선영을 만남



-동사열전>자서전 → 영허 선영

설봉산 석왕사釋王寺 내원암內院庵에 있는 영허 선영映虛善影 선사의 처소에서 지팡이를 멈추고 나흘 밤을 잤다.

-동사열전>철요선백전

신미년(고종 8, 1871) 봄에 김 만호가 이진梨鎮 만호가 되어 부임하였다. 그가 부임할 때 스님은 그와 함께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스님은 그 문적文蹟(임금의 교지)을 가지고 나(梵海)를 찾아와서 숙식을 함께하며 이진으로 가서 진장鎮長을 만나곤 하였다. 그러다가 김 만호가 서울로 올라갈 때 스님도 곧바로 떠나갔다. 그 뒤 5년이 지난 을해년(고종 12, 1875) 봄에 내가 석왕사로 가서 내원암의 영허映虛 노덕老德이 계신 곳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조실로 있던 철요 스님을 만났다. 두 사람은 서로 2천 리 밖에 떨어져 살고 있다가 여기에서 다시 만났으니 참으로 희유한 일이다.



범해선사유고>철요 스님에게 부치는 편지 → 철요 사문

철요(鐵鶴) 스님에게 부치는 편지

여러 해 동안 길이 막혀 잊힌 듯하였는데 두 스님께서 문득 오시니 비록 편지는 없어도 마주 앉아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후로 여러 날 동안 스님의 생활이 때때로 무량한 수복을 누리시며 물이 동쪽으로 흘러들 듯 부처님께 귀의하고 정례하시는지요. 저는 흰머리만 가득하고 눈은 어지러워 책을 치우고 망연히 앉아만 있으며 지팡이 꽂아 놓고 걷기도 게을러져서 화광삼매火光三昧(다비)의 날만 기다릴 뿐입니다. 그대는 엄연한 천축 옛 난야의 주인으로 문담文潭 화상의 자취를 이어, 스승이 돌아가신 때에 진영을 봉안하고 향을 살라 삼남의 법계를 빛내니, 참으로 착한 일입니다. 비록 신물信物이 있다 하더라도 홍모鴻毛와 같아 이루기 어려운 형세이니 바란들 어찌하겠습니까. 이생에서 두 번 만났으나 세 번 만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금신무양석란산金身無恙錫蘭山의 개송을 잘 읊조려 수천 리 밖 동풍同風의 훈계에 부응합니다. 다만 여呂 스님의 말에 있으니 갖추지 못합니다. 밝게 살펴 주십시오.

-동사열전>철요선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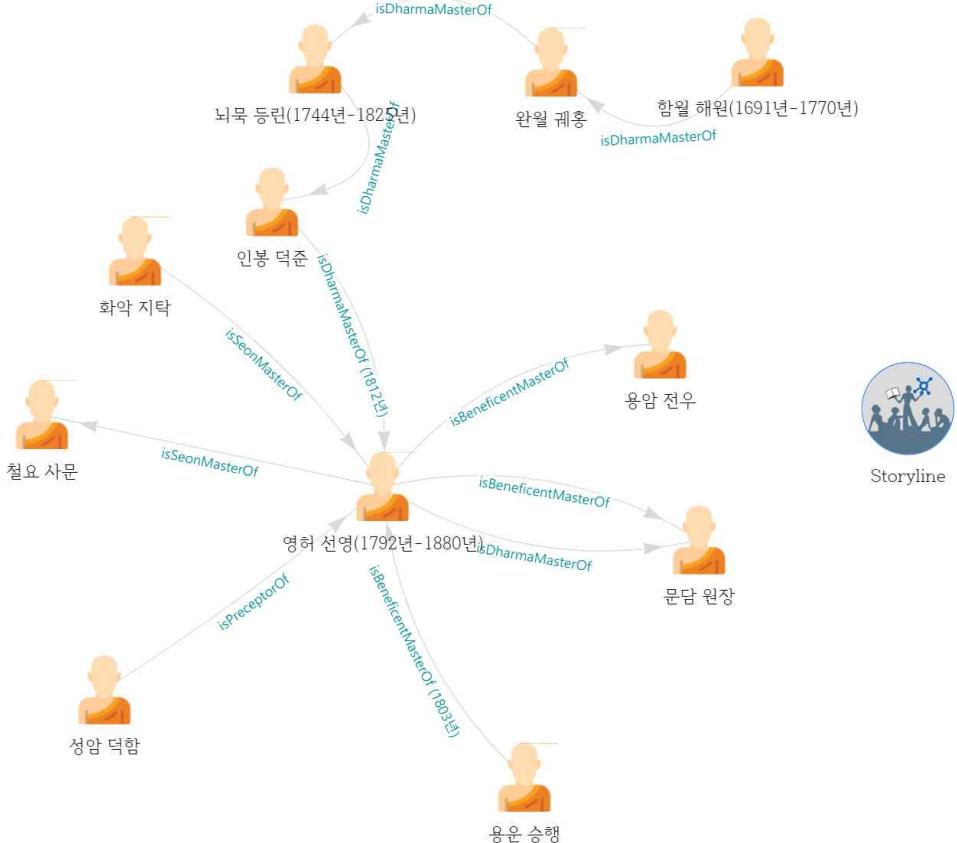
추사 김 참판金參判의 시집에 추사가 사문師文(철요)에게 증정한 절구시 한 수가 있었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五天竺在掌中間	다섯 천축국天竺國 손바닥 안에 있고
八水三峰往復還	팔수八水와 삼봉三峰을 오고 가네
莫把示趺傳祖印	관 밖에 발 드려낸 것으로 조사의 심인心印 삼지 마시게
金身無善錫蘭山	부처님은 아무 탈 없이 석란산錫蘭山(스리랑카)에 계신다네

-동사열전>철요선백전

철요 스님이 나에게 절구 한 수를 지어 주기에 나도 아래와 같은 시를 지어 주었다.

本是同門千里外	본시 동문인데 천 리 밖에 살고 있어
舉頭北望斗牛清	고개 들어 북쪽 하늘 두우성斗牛星을 바라봤지
一之爲幸況逢再	한 번 만남도 다행인데 두 번씩이나 만났으니
談罷山空夢寐清	법담 마치자 산은 맑고 잠자리도 편안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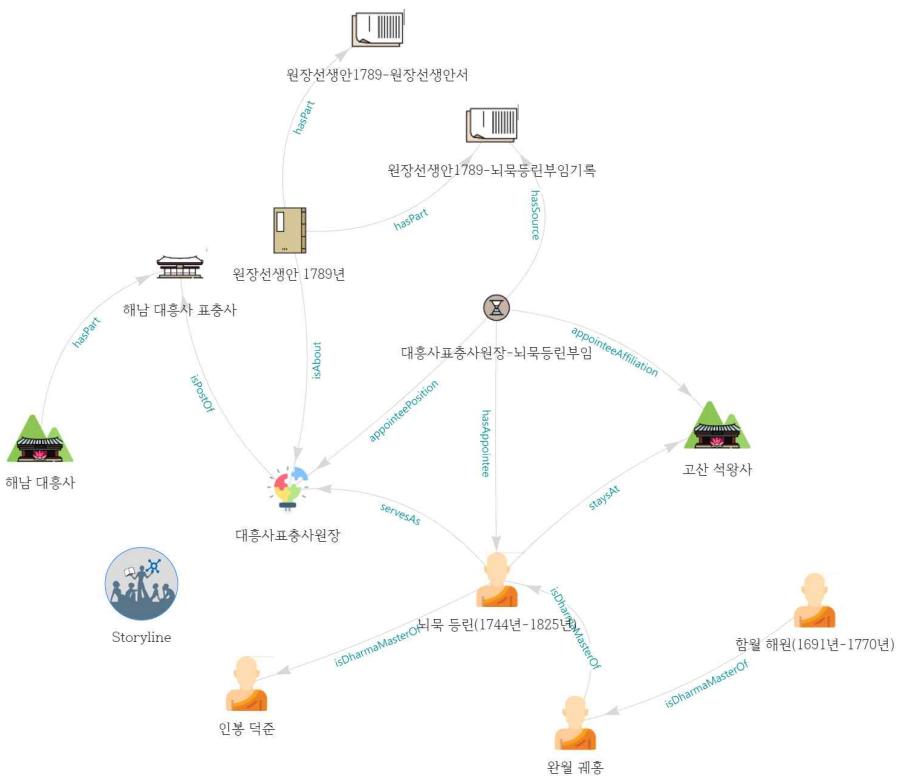


청허계 편양파 5대손인 함월 해원 (범해 각안은 5대손 호암 체정의 문손)

영허왈: “청허清虛의 정맥正脈이요, 함월涵月의 문손門孫이요, 뇌목雷默의 상족上足
이신 인봉 화상의 문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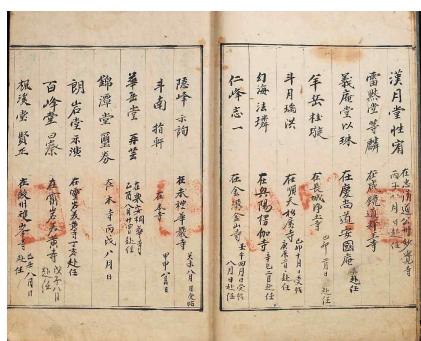
법맥: 환성지안→함월해원→완월궤홍→노목등린→인봉덕준→영허선영→문담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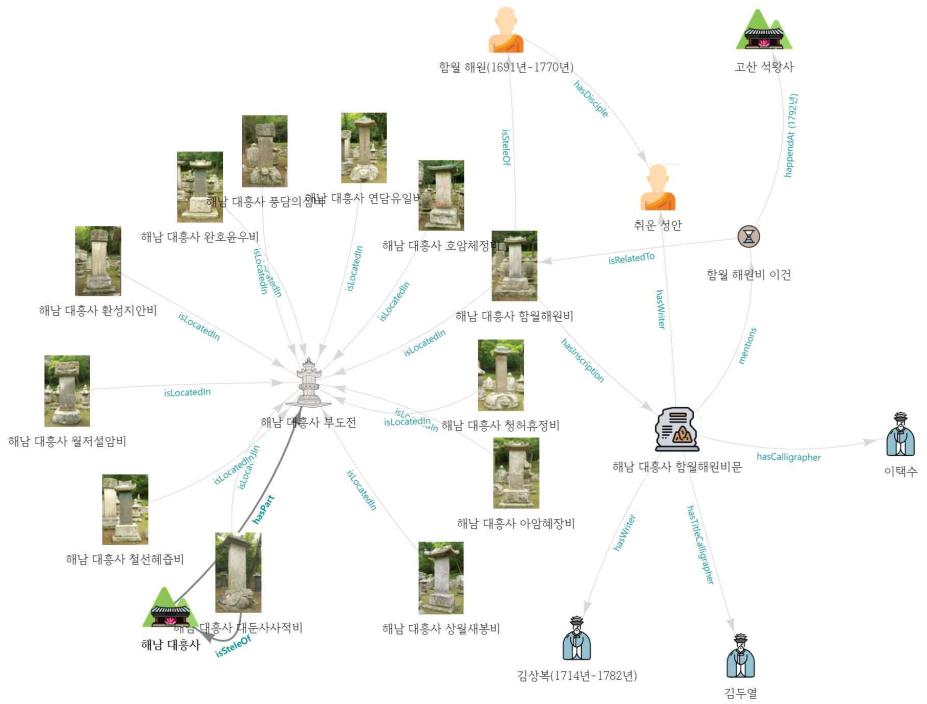
5 Episode-뇌목 등린의 표충사원장 역임



*원장선생안(院長先生案) - 대흥사(17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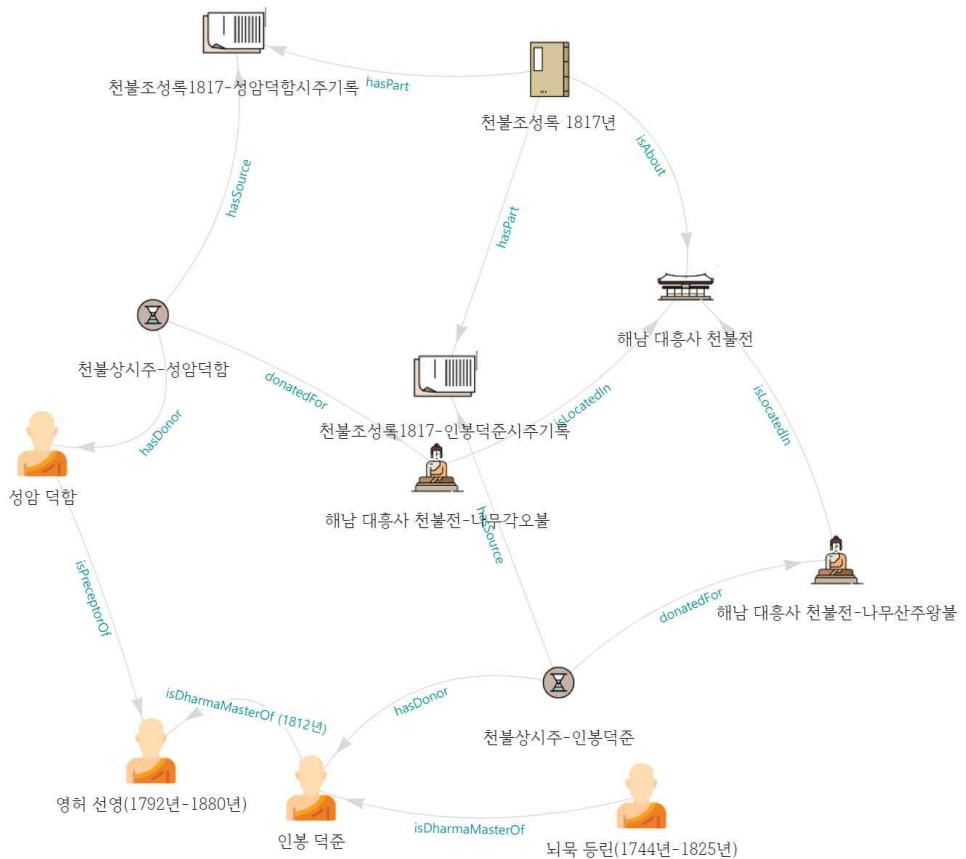
- 뇌목등린 원장으로 부임
- 전임자(한월 성유) 부임일: 1816년 8월
- 후임자(의암 이주) 부임일: 미상
- 후임자(양악 계선) 부임일: 1819년 2월





함월 해원 문손들의 대홍사 관련 활동: 함월 해원 탑비의 대홍사 이건 - 1792년
“임자오월일이건전라도해남대둔사”





함월 해원 문손들의 대흥사 관련 활동: 성암 덕함, 인봉 덕준의 천불전 불상 시주

*천불조성록(千佛造成錄) - 1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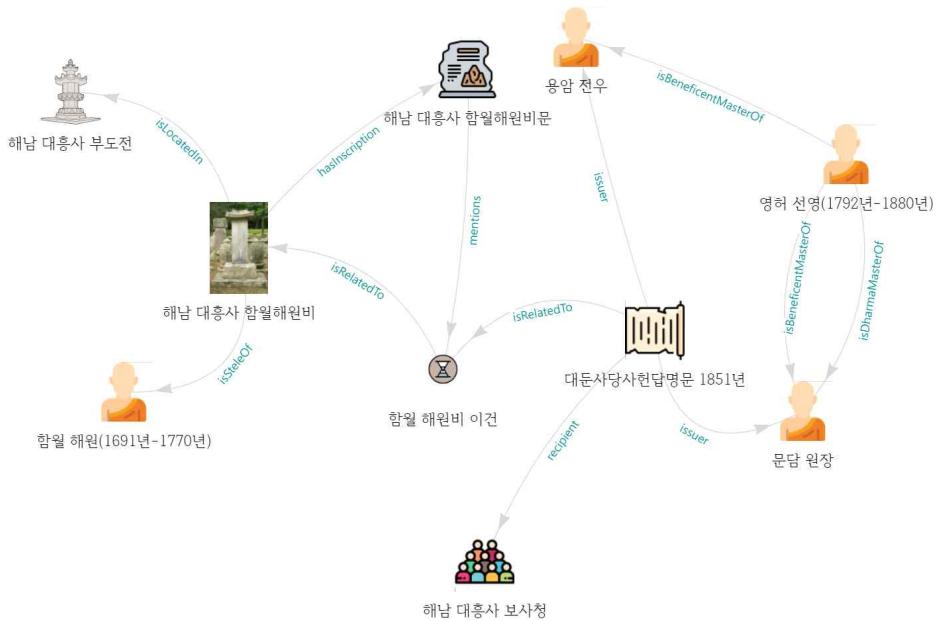
南無作明佛	南無寶月面佛	南無盡見佛	南無身差別佛	南無梵天佛	南無無憂佛	南無意佛	南無寶天佛	南無大威德佛	南無山王佛	南無觀悟佛	南無善明佛	南無寶相佛
南 無 作 明 佛	南 無 寶 月 面 佛	南 無 盡 見 佛	南 無 身 差 別 佛	南 無 梵 天 佛	南 無 無 憂 佛	南 無 意 佛	南 無 寶 天 佛	南 無 大 威 德 佛	南 無 山 王 佛	南 無 觀 悟 佛	南 無 善 明 佛	南 無 寶 相 佛



함월 해원 문손들의 표충사 활동: 문담 원장, 용암 전우의 표충사 위토

*표원 위토원입록(表院 位土願入錄) - 17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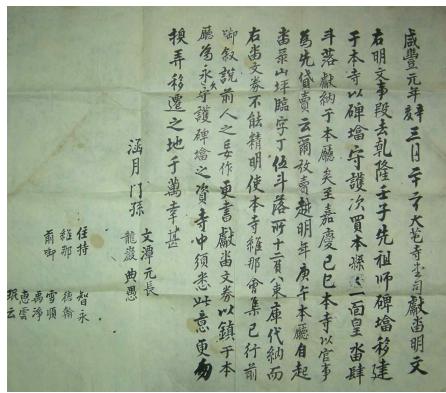
- 표충원의 위토를 헌납받거나 매득한 내용을 기록한 책
 - 문담원장의 납입 기록: “종정宗正 문담원장文潭元長 경술년 8월 납입함”. 경술년: 1850년
 - 용암전우의 납입 기록: “종정宗正 용암전우庸庵典愚 을묘년 8월 일 납입함.”. 을묘년: 1855년. 다만 소재지를 “경기京畿 양주陽州 성사聖寺:로 기술함. 용암전우는 수락산 흥국사(덕사).



함월 해원 문손들의 대흥사 관련 활동: 문담 원장, 용암 전우의 보사청 명문

*대둔사당사현답명문(大芚寺堂司獻答明文) - 대둔사(1851)

- 문담원장, 용암전우가 헌답한 것으로 보임
- 1792년 조사의 비탑을 대둔사로 옮길때 4마지기 구입해서 보사청에 헌답했는데, 보사청에서 관가의 일 때문에 우선 처분하고(1809), 후에 다른 땅을 개간해서 대답했다고 함(1810). 이것이 문제가 되어 다시 전답을 헌납하는 문건을 작성한 것.



[참고문헌]

1. 원자료

『梵海禪師遺稿』

『東師列傳』

『大邱寺誌』

『挽日菴志』

『眞佛庵誌』

『隱跡寺事蹟』

2. 단행본

범해 각안(저)/김재희(역), 『범해선사시집』, 동국대학교출판부, 2020.

범해 각안(저)/김재희(역), 『범해선사문집』, 동국대학교출판부, 2020.

범해 각안(저)/김두재(역), 『동사열전』, 동국대학교출판부, 2015.

김용태, 『조선불교사상사: 유교의 시대를 가로지른 불교적 사유의 지형』,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1.

김현, 『인문정보학의 모색』, 북코리아, 2012.

김현·김영상·김바로, 『디지털 인문학 입문』, HUEBOOKS, 2016.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韓國佛教撰述文獻總錄』,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6.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한국불교전서 편람』,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5.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ABC사업단,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사업 업무지침서』,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사업단, 2018.

동국대학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사업단 편, 『사지자료집』1-5,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4-2018.

동국대학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사업단 편, 『사지자료집8 대둔사지』, 동국대학교 출판부, 2021.

문화재청·(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 : 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전라남도Ⅲ』, 2006년.

문화재청·(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 : 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광주광역시/전라남도 I·II·III 자료집』, 2006년.

문화재청·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 : 2021 한국의 고승 진영 정밀 학술조사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_1, 경상남도』, 문화재청, 2022.

- 불교사학회, 『한국 불교사 조선·근대』, 한울아카데미, 2024.
- 심경호, 『한문산문의 미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 오경후, 『寺誌와 僧傳으로 본 조선후기 불교사학사』, 문현, 2018.
- 이진오, 『韓國佛教文學의 研究』, 민족사, 1997.
- 정민, 『다산의 재발견』, 휴머니스트, 2011.
- 정민, 『새로 쓰는 조선의 차문화』, 김영사, 2021.
- 한상길, 『조선후기 불교와 寺刹契』, 경인문화사, 2006.

3. 학술논문

- 고영섭, 「조선후기 고승의 비석 건립과 문집 간행」, 『한국불교사연구』 제6권, 한국불교사연구소, 2015, 101-140쪽.
- 김바로, 「디지털 인문학의 관점에서 본 디지털 불교학」, 『佛教學報』 제86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9, 265-288쪽.
- 김석태, 「梵海覺岸의 頭輪山 漢詩」, 『한국언어문학』 제73권, 한국언어문학회, 2010, 113-134쪽.
- 김종진, 「18세기 승려 괘허취여(括虛取如)의 문학 세계」, 『溫知論叢』 제55호, 온지학회, 2018, 9-44쪽.
- 김종진, 「조선시대 불서 서·발문 집성과 번역에 대한 제언」,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제29권, 제1호, 사단법인한국교수불자연합회, 2023, 23-54쪽.
- 김창숙, 「『초당집』의 이해와 시대적 배경」, 『한국선학』 제45권, 한국선학회, 2016, 171-198쪽.
- 김현, 「고문헌 자료 XML 전자문서 편찬 기술에 관한 연구」, 『古文書研究』 제29권, 한국고문서학회, 2006, 183-230쪽.
- 김현, 「디지털 인문학과 고문헌 자료 연구」, 『열상고전연구』 제50권, 열상고전연구회, 2016, 13-38쪽.
- 김현, 「다산 저작 텍스트의 전자정보화를 위한 온톨로지 설계」, 고전자료의 현대화 연구: 세계사 속의 다산학, 2016.
- 김현, 「유교문화 디지털 아카이브를 위한 디지털 큐레이션 모델 연구」, 세계유교문화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 마스터플랜 연구, 2020. 3. 국학진흥원.
- 김현, 강혜원, 「고고학술정보 데이터 아카이빙 전략과 구현방안 - 한국고고학사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제언」, 국제학술심포지엄 『고고학술정보 디지털대전환』 자료집, 국립문화재연구원, 2022.

- 김현·안승준·류인태, 「데이터 기반 인문학 연구 방법의 모색: 문중 고문서 아카이브와 디지털 인문학의 만남」, 『횡단인문학』 제1권 제1호,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인문학연구소, 2018, 17-61쪽.
- 박동춘, 「범해각안의 茶詩 연구」, 『大覺思想』 제13권, 대각사상연구원, 2010, 187-219쪽.
- 박명희, 「순천 송광사 간행 고승문집 연구」, 『東方漢文學』 제24호, 동방한문학회, 2003, 241-270쪽.
- 박보람, 「디지털 인문학 시대, 불교학의 대응 현황과 과제」, 『佛教學報』 제76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6, 327-355쪽.
- 박인석, 「『한국불교전서 편람』 간행의 의의와 과제」, 『佛教學報』 제71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5, 316-325쪽.
- 박해당, 「조선후기 유학자들의 불교관-승려문집의 서문을 중심으로-」, 『泰東古典研究』 제28권,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2, 1-26쪽.
- 손성필, 「조선시대 불교사 자료의 종류와 성격」, 『불교학연구』 제39권, 불교학연구회, 2013, 367-413쪽.
- 손성필, 「조선시대 불교사 시기구분 시론」, 『불교학연구』 제45권, 불교학연구회, 2015, 267-300쪽.
- 양은용, 「梵海覺岸의 茶禪思想 연구 1부」, 『차문화·산업학』 제4권 제2호, 국제차문화학회, 2008, 1-17쪽.
- 오경후, 「동사열전의 사학사적 검토」, 『史學研究』 제66호, 한국사학회, 2001, 121-157쪽.
- 오경후, 「梵海覺岸의 古代佛教史 認識」, 『회당학보』 제6권, 회당학회, 2001, 240-267쪽.
- 오경후,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성과의 검토와 과제」, 『역사민속학』 제52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17, 77-101쪽.
- 오경후, 「19세기 대흥사(大興寺)의 선교경향(禪教傾向)」, 『한국선학』 제56호, 한국선학회, 2020, 69-101쪽.
- 이대형, 「조선시대 승려문집의 문체와 내용별 특징」, 『동악어문학』 제69집, 동악어문학회, 2016, 171-297쪽.
- 이대형, 「불가 유산록 「夢行錄」의 문인 취향과 불교적 성격」, 『열상고전연구』 제50권, 열상고전연구회, 2016, 257-281쪽.
- 이대형, 「20세기 초 승려문집 『茶松文稿』의 문체적 특징」, 『어문연구』 제47권 제4

- 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9, 325-349쪽.
- 이용윤, 「송광사 僧寶 전통 형성과 高僧眞影의 상징성」, 『남도문화연구』 제49집, 국립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23, 7-46쪽.
- 이재수,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의 방향」, 『大覺思想』 제18권, 대각사상연구원, 2012, 461-493쪽.
- 이재수, 「백용성 대종사 총서 아카이브 구축과 과제」, 『전자불전』 제19권, 동국대학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2017, 103-134쪽.
- 이종수, 「조선후기 大芻寺 현창 운동과 그 의미」, 『동국사학』 제50권,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1, 173-200쪽.
- 이종수, 「17세기 유학자의 불교인식 변화」, 『보조사상』 제37권, 보조사상연구원, 2012, 257-292쪽.
- 이종수, 「응송 박영희 소장 불교문헌의 종류와 가치」, 『佛教學報』 제68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4, 293-319쪽.
- 이종수, 「해남 대흥사의 천불 조성과 그 시주자들」, 『강좌미술사』 43호, 한국불교미술사, 2014, 99-132쪽.
- 이종수, 「해남 은적사의 문헌자료와 역사」, 『佛教學報』 제95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21, 145-168쪽.
- 정민, 「다산 일문(逸文)을 통해본 승려와의 교유와 강학」, 『韓國漢文學研究』 제50호, 한국한문학회, 2012, 101-127쪽.
- 정병삼, 「18세기 승려 문집의 성격」, 『한국어문학연구』 제48집, 동양어문학회, 2007, 87-117쪽.
- 정윤섭, 「조선후기 대흥사의 중흥과 불교·유교의 교유(交遊)」, 『향토문화』 제41권, 향토문화개발협의회, 2022, 212-249쪽.
- 조은수, 「『한국불교전서』의 편찬과 과제」, 『韓國佛教學』 제69권, 한국불교학회, 2014, 99-132쪽.
- 조태성, 「대흥사(大興寺)의 시풍(時風)과 시단(詩壇)의 모색(摸索)을 위한 시론 - 편양당과 소요당의 문학을 중심으로-」, 『호남학』 제40호,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07, 273-296쪽.
- 최애리, 「『신편제종교장총록』 소장 현존본의 조사현황과 DB 활용방안」, 『인문콘텐츠』 제50호, 인문콘텐츠학회, 2018, 37-61쪽.
- 최진경, 「17세기 승려 풍계 명찰(楓溪明察)의 시세계 연구」, 『한국문학연구』 제71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23, 71-108쪽.

황인규, 「高僧傳과 高僧文集의 集成 : 韓國高僧集의 集成 및 간행을 위한 試攷」, 『불교학연구』 제32권, 불교학연구회, 2012, 485-525쪽.

4. 학위논문

- 강혜원, 「한국고고학사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 모델 설계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4.
- 김지명, 「기록문화유산의 디지털 큐레이션 모델 연구 -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중심으로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 류인태, 「데이터로 읽는 17세기 재지사족의 일상 - 『지암일기(1692-1699)』 데이터 베이스 편찬 연구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 윤해숙, 「白坡 申獻求의 茶生活 研究」, 조선대학교 국제차문화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 최정이, 「조선시대 승려의 문집 간행에 대한 서지적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5. 웹 자원

- 김현, “디지털 큐레이션: 인공지능시대의 인문학 연구 방법”, 2023 인문콘텐츠학회 동계학술대회 기조강연, 2023. 12. 2. 목표대학교, <https://dh.aks.ac.kr/~tutor/Documents/PDF/2023/20231202Mokpo.pdf>
- 김현, “디지털 큐레이션: 디지털 인문학의 실천 방법”, 2024년 한국학대학원 「인문 정보학입문」 강의 자료, [https://dh.aks.ac.kr/~tutor/Documents/PDF/2024/김현-2024-디지털큐레이션\(01\).pdf](https://dh.aks.ac.kr/~tutor/Documents/PDF/2024/김현-2024-디지털큐레이션(01).pdf)
- 김현, “디지털 큐레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와 기술”, 2024년 한국학대학원 「인문 정보학입문」 강의 자료, [https://dh.aks.ac.kr/~tutor/Documents/PDF/2024/김현-2024-디지털큐레이션\(02\).pdf](https://dh.aks.ac.kr/~tutor/Documents/PDF/2024/김현-2024-디지털큐레이션(02).pdf)
-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https://kabc.dongguk.edu>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EKC 데이터 모델, http://dh.aks.ac.kr/hanyang2/wiki/index.php/Ontology:EKC_2022
-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Encyves Wiki, <http://dh.aks.ac.kr/encyves/wiki>

Buddhist Digital Resource Center(BDRC), Buddhist Digital Ontology, <https://purl.bdrc.io/ontology/core/>

中華電子佛典協會(CBETA), CBETA 漢文大藏經, <https://tripitaka.cbeta.org/>

法鼓文理學院(DILA), 鏈結開放資料平台, <https://lod.dila.edu.tw/index.php>

法鼓文理學院(DILA), 佛學規範資料庫, <https://authority.dila.edu.tw/>